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개요

###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진행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한국 가구와 개인 등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 및 소비실태 등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 시작되었다.<sup>1)</sup> 한국노동패널 이전에 실시되고 있던 노동시장 관련 조사는 대부분 횡단면(cross-sectional) 조사로서 노동시장의 정지된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었으나 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노동패널은 횡단면 조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간 이동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표본가구와 가구원을 해마다 반복하여 조사하게 된다.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의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에 대하여 제2차 노동패널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가구 5,000가구 중 제2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379가구로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가구를 포함하여 제2차 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이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제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기존 가구원 중에서 1999년에 15세가 되었거나 새로 가구원이 된 사람 등 제2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조사에 성공한 528명과 원표본가구원은 아니지만 2차년도에 합가, 혼인 등에 의해 편입된 신규 조사대상 가구원 277명을 포함하여 총 12,042명이 제2차 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표본가구원인 11,765명(11,237명+52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목적, 표본의 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er Guide나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kli.re.kr/klips>)를 참고하기 바란다.

## 제 2 절 조사 방법과 조사 진행과정

### 1. 조사 방법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조사 진행과정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기간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아르바이트 학생/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표본가구수는 4,509가구이며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의 총 인원은 15,768명이다. 이들 중 15세 이상의 가구원은 12,534명이며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12,042명이다.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면접원수는 129명이며 실사기간은 1999년 7월 8일부터 1999년 12년 29일까지 이루어졌다.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은 대체로 1999년 8~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

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총 조사표본수	→	4,509가구, 총 인원은 15,768명 15세 이상 가구원 12,534명 중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2,042명
총 투입 면접원수	→	129명
실사기간	→	1999년 7월 8일 ~ 1999년 12월 29일
원표본 성공률	→	원표본 5,000가구 중 87.6% 성공률 : 4,379가구 분가 가구 : 130가구
자료처리기간	→	1999년 7월 8일 ~ 2000년 1월 25일

<표 1-1> 가구용 설문지의 응답시기 분포

	가구수	비 중(%)
7월	223	4.9
8월	1,031	22.9
9월	1,017	22.5
10월	1,232	27.3
11월	910	20.2
12월	96	2.1
전 체	4,509	100.0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

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표 1-2>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시기 분포

	가구원	비 중(%)
7월	661	5.5
8월	2,801	23.3
9월	2,671	22.2
10월	3,189	26.5
11월	2,378	19.7
12월	342	2.8
전 체	12,042	100.0

<표 1-3> 가구용 설문지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

가구주와의 관계	가 구	비 율(%)
부 모	55	1.2
가구주(본인)	1,846	41.0
배우자	2,327	51.6
자녀/자녀의 배우자	201	4.5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20	0.4
기 타	60	1.3
전 체	4,509	100.0

<표 1-4> 개인용 설문지 응답방식 분포

(단위 : 명, %)

	본 인	대 리	전 체
면 접	8,481(79.4)	882(64.6)	9,363(77.8)
유 치	812( 7.6)	100( 7.3)	912( 7.6)
전 화	687( 6.4)	200(14.6)	887( 7.4)
면접+전화	431( 4.0)	137(10.0)	568( 4.7)
유치+전화	257( 2.4)	47( 3.4)	304( 2.5)
면접+유치	6( 0.1)	0( - )	6( 0.0)
면접+유치+전화	2( 0.0)	0( - )	2( 0.0)
전 체	10,676(100.0)	1,366(100.0)	12,042(100.0)

### 제 3 절 표본유지율과 탈락표본의 특성

#### 1. 조사된 가구와 개인응답자의 수

1999년 제2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의 수는 총 4,509가구 12,042명이며, 이들의 지역별 분포는 <표 1-5>와 같다.

<표 1-5>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 지역별 분포

		조사가구수			조사가구수
서 울		1,159	강 원		116
부 산		449	충 북		98
대 구		269	충 남		128
대 전		132	전 북		185
인 천		261	전 남		133
광 주		129	경 북		250
울 산		113	경 남		268
경 기		818	제 주		1
전 체					4,509

#### 2. 유효표본과 탈락표본의 특성

거주지역별로 지난 1998년 한국노동패널 1차조사의 원표본가구<sup>2)</sup>와 1999년 한국노동패널 2차조사 유효표본가구<sup>3)</sup>의 분포 및 탈락표본가구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원표본가구 중에서 패널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수는 4,379가구로 87.6%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621가구는 면접에 성공치 못하였다.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본 결과, 강력 거절이 59.1%로 가장 많았고, 이사 추적 불가능이 20.9%,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15.9%였다. 기타에는 1인가구 사망

2) '원표본가구'는 제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제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3) '유효표본가구'는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지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8가구, 이민 4가구, 병환 4가구, 합가 2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의 표본탈락률이 21.5%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을 제외한 6대 대도시 지역이 다른 중소도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 표본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표본가구 및 탈락표본가구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에 따른 비중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조사에서 답변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 그러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에 따른 비중을 비교해 보면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5%포인트 낮아진 반면 탈락표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0.8%포인트에 그쳐 전체 비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구원수별 분포를 보면 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의 표본탈락률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한국노동패널(1차)과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 표본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탈

<표 1-6> 유효표본가구 및 탈락표본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1998년 원표본가구(1차)	1999년 유효표본가구(2차) <sup>1)</sup>	1999년 탈락표본가구 <sup>2)3)</sup>
서울	1,353(27.1)	1,149(26.2)	204(15.1)
부산	486( 9.7)	440(10.1)	46( 9.5)
대구	314( 6.3)	264( 6.0)	50(15.9)
대전	153( 3.1)	128( 2.9)	25(16.3)
인천	298( 6.0)	255( 5.8)	43(14.4)
광주	158( 3.2)	124( 2.8)	34(21.5)
울산	116( 2.3)	112( 2.6)	4( 3.5)
경기	856(17.1)	772(17.6)	84( 9.8)
강원	130( 2.6)	114( 2.6)	16(12.3)
충북	113( 2.3)	99( 2.3)	14(12.4)
충남	131( 2.6)	120( 2.7)	11( 8.4)
전북	199( 4.0)	177( 4.0)	22(11.1)
전남	127( 2.5)	117( 2.7)	10( 7.9)
경북	274( 5.5)	245( 5.6)	29(10.6)
경남	292( 5.8)	263( 6.0)	29( 9.9)
전국	5,000(100.0)	4,379(100.0)	621(12.4)

주 : 탈락표본가구에 사망 또는 이민에 의한 탈락가구도 포함.

- 1) 1999년 유효표본가구의 분포는 1998년 원표본가구 중에서 1999년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수 및 그 비중을 나타냄.
- 2) ( ) 안은 1998년 한국노동패널(1차) 원표본가구에서의 탈락률을 나타냄.
- 3) 탈락표본가구는 1998년의 제1차 조사에는 응답하였으나 1999년 2차조사에는 응답을 거부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의미함.

락표본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본탈락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표본에서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취업상태에서는 비임금근로자 중 가족종사자의 표본탈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한국노동패널(1차)과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 조사에서 원표본가구의 가구원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의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표본탈락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0대 가구원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록 표본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초반 가구원의 표본탈락률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졸 미만의 표본탈락률이 가장 높은 27.5%였다.

가구원의 취업상태별 구분에서는 미취업자의 표본탈락률이 가장 높아 그 비중이 16.8%를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표본탈락률은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유효표본가구 및 탈락표본가구의 특성

(단위 : 명, %)

		1998년 원표본가구(1차)	1999년	
			유효표본가구(2차)	탈락표본가구
전 체		5,000(100.0)	4,379(100.0)	621(12.4)
월평균 총가구 소득 <sup>1)</sup>	50만원 미만	929(18.6)	558(13.6)	55(9.0)
	50만~100만원 미만	901(18.0)	807(19.6)	94(10.4)
	100만~150만원 미만	1,049(21.0)	920(22.4)	129(12.3)
	150만~200만원 미만	813(16.3)	715(17.4)	98(12.1)
	200만원 이상	1,308(26.2)	1,110(27.0)	198(15.1)
가구원수	1명	517(10.3)	430(9.8)	87(16.8)
	2명	655(13.1)	583(13.3)	72(11.0)
	3명	965(19.3)	849(19.4)	116(12.0)
	4명	1,892(37.8)	1,652(37.7)	240(12.7)
	5명	696(13.9)	615(14.0)	81(11.6)
	6명 이상	275(5.5)	250(5.7)	25(9.1)

주 : 1) 1999년 유효표본가구 4,379명 중 월평균 총가구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269명은 표에서 제외하였고, 1999년 탈락표본가구 621명 중 월평균 총가구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47명도 표에서 제외함.

<표 1-8> 유효표본가구 및 탈락표본가구의 가구주 특성

(단위 : 명, %)

		1998년 원표본가구 (1차)	1999년	
			유효표본가구(2차)	탈락표본가구
전 체		5,000(100.0)	4,379(100.0)	621(12.4)
성별	남성	4,295( 85.9)	3,764( 86.0)	531(12.4)
	여성	705( 14.1)	615( 14.0)	90(12.8)
연령	15 ~ 19세	7( 0.1)	5( 0.1)	2(28.6)
	20 ~ 24세	60( 1.2)	47( 1.1)	13(21.7)
	25 ~ 29세	313( 6.3)	257( 5.9)	56(17.9)
	30 ~ 39세	1,357( 27.1)	1,182( 27.0)	175(12.9)
	40 ~ 49세	1,397( 27.9)	1,196( 27.3)	201(14.4)
	50 ~ 59세	984( 19.7)	881( 20.1)	103(10.5)
	60세 이상	882( 17.6)	811( 18.5)	71( 8.1)
교육 수준 <sup>1)</sup>	무학	306( 6.1)	283( 6.5)	23( 7.5)
	고졸 미만	1,604( 32.1)	1,457( 33.3)	147( 9.2)
	고졸	1,819( 36.4)	1,576( 36.0)	243(13.4)
	대졸 미만	147( 2.9)	125( 2.9)	22(15.0)
	전문대졸	241( 4.8)	210( 4.8)	31(12.9)
	대졸 이상	882( 17.6)	728( 16.6)	154(17.5)
취업 상태 <sup>2)</sup>	임금근로자	2,228( 60.5)	1,919( 59.7)	309(13.9)
	비임금(고용주/자영업자)	1,398( 38.0)	1,248( 38.8)	150(10.7)
	비임금(가족종사자)	42( 1.1)	35( 1.1)	7(16.7)
	미취업자	13( 0.4)	13( 0.4)	-

주 : 1) 고졸 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 휴학, 수료, 중퇴자를 포함.

대졸 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 휴학, 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취업상태가 무응답인 1,319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1-9> 유효표본가구 및 탈락표본가구의 가구원 특성

(단위 : 명, %)

		1998년 원표본 가구원(1차)	1999년	
			유효표본가구원(2차)	탈락표본가구원
전 체		13,321(100.0)	11,237(100.0)	2,084(15.6)
성 별 <sup>1)</sup>	남 성	6,469( 48.6)	5,348( 47.6)	1,121(17.3)
	여 성	6,852( 51.4)	5,889( 52.4)	963(14.1)
연 령 <sup>2)</sup>	15 ~ 19세	1,566( 11.8)	1,256( 11.2)	310(19.8)
	20 ~ 24세	1,258( 9.4)	944( 8.4)	314(25.0)
	25 ~ 29세	1,486( 11.2)	1,224( 10.9)	262(17.6)
	30 ~ 39세	3,045( 22.9)	2,595( 23.1)	450(14.8)
	40 ~ 49세	2,547( 19.1)	2,168( 19.3)	379(14.9)
	50 ~ 59세	1,694( 12.7)	1,500( 13.4)	194(11.5)
	60세 이상	1,725( 13.0)	1,550( 13.8)	175(10.1)
교육수준 <sup>3)</sup>	무 학	856( 6.4)	777( 6.9)	79( 9.2)
	고졸 미만	4,570( 34.3)	4,031( 35.9)	539(11.8)
	고 졸	4,407( 33.1)	3,704( 33.0)	703(16.0)
	대졸 미만	1,138( 8.5)	825( 7.3)	313(27.5)
	전문대졸	712( 5.4)	595( 5.3)	117(16.4)
	대졸 이상	1,637( 12.3)	1,305( 11.6)	332(20.3)
혼인상태 <sup>4)</sup>	미 혼	3,853( 28.9)	3,009( 26.8)	844(21.9)
	기 혼	9,466( 71.1)	8,226( 73.2)	1,240(13.1)
취업상태 <sup>5)</sup>	임금근로자	4,012( 30.1)	3,374( 30.0)	638(15.9)
	비임금근로자	2,415( 18.1)	2,130( 19.0)	285(11.8)
	미 취 업 자	6,894( 51.8)	5,733( 51.0)	1,161(16.8)
월평균개인소득 <sup>6)</sup>	50만원 미만	618( 11.3)	547( 11.7)	71(11.5)
	50 ~ 100만원 미만	1,851( 33.9)	1,580( 33.9)	271(14.6)
	100 ~ 150만원 미만	1,453( 26.6)	1,240( 26.6)	213(14.7)
	150 ~ 200만원 미만	764( 14.0)	656( 14.1)	108(14.1)
	200만원 이상	770( 14.1)	635( 13.6)	135(17.5)

주 : 1차년도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이나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417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 1) 성별이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연령이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교육수준이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혼인여부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 5) 취업상태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6) 월평균 개인소득이 없거나 모름/무응답인 7,867명은 분석에서 제외.

이상과 같이 표본가구의 지역별, 가구, 가구주,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성비를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1차)과 비교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표본탈락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가구원의 특성에서도 연령이 낮은 경우, 미취업자의 경우, 월 평균 개인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표본탈락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들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특성이나 가구 및 가구구성원의 특성별 분포가 지난 1차년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약 1%포인트 내외)에 불과하므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탈락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2차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패널조사로서의 의미를 살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이사가구 추적조사와 표본유지율

1998년 한국노동패널(1차) 대상가구인 5,000가구 중 지난 조사 이후 이사한 가구는 전체의 16.8%인 838가구였다.<sup>4)</sup> 이 원표본가구가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패널조사에서 이사가구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표본유지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노동패널 제2차 조사에서는 전체 이사가구 중 84.5%인 708가구에 대하여 조사 성공하였으며 지역별 이사가구의 분포는 <표 1-10>과 같다.

<표 1-10> 이사가구 분포

	조사 가구수 (a)	가 구			비중(%)		
		파악된 총이사 가구(b)	이사추적 불가(c)	이사추적 성공(d)	파악된 총이사 가구(b/a)	이사추적 불가(c/b)	이사추적 성공(d/b)
서울	1,338	263	54	209	19.7	20.5	79.5
부산	486	69	9	60	14.2	13.0	87.0
대구	313	54	12	42	17.3	22.2	77.8
대전	152	26	6	20	17.1	23.1	76.9
인천	298	48	8	40	16.1	16.7	83.3
광주	158	21	2	19	13.3	9.5	90.5
울산	114	10	1	9	8.8	10.0	90.0
경기	872	197	16	181	22.6	8.1	91.9
강원	129	13	6	7	10.1	46.2	53.8
충청	244	25	2	23	10.2	8.0	92.0
전라	329	34	-	34	10.3	0.0	100.0
경북	272	26	7	19	9.6	26.9	73.1
경남	294	52	7	45	17.7	13.5	86.5
전국	5,000	838	130	708	16.8	15.5	84.5

4) 접촉이 아예 불가능한 가구는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제 4 절 분가가구와 신규 진입자의 특성

### 1. 분가가구의 특성

한국노동패널 제2차 조사에서는 5,000개의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130가구가 표본에 추가되었다. 조사 성공한 4,509가구는 4,379가구의 원표본가구와 130가구의 분가표본가구<sup>5)</sup>를 합한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표본조사 가구 4,379가구 중 5.0%인 220가구가 분가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형성한 분가표본가구는 240가구였다. 이들 중 54.2%인 130가구에 대하여 조사 성공하였다. 지역별 분가표본가구의 분포는 <표 1-11>과 같다.

<표 1-11> 지역별 분가표본가구 분포

	조사 가구수 (a)	가구				비중(%)			
		분가가구원이 있는 가구수 (b)	분가한 가구수 (c)	조사성공 가구 (d)	조사실패 가구 (e)	분가가구원이 있는 가구수 (b/a)	분가한 가구수 (c/a)	조사 성공 가구 (d/c)	조사실패 가구 (e/c)
서울	1,134	41	42	24	18	3.6	3.7	57.1	42.9
부산	440	21	22	10	12	4.8	5.0	45.5	54.5
대구	263	14	18	7	11	5.3	6.8	38.9	61.1
대전	127	7	8	5	2	5.5	6.3	62.5	25.0
인천	255	12	13	7	6	4.7	5.1	53.8	46.2
광주	124	7	7	5	2	5.6	5.6	71.4	28.6
울산	110	8	9	3	6	7.3	8.2	33.3	66.7
경기	788	38	43	28	15	4.8	5.5	65.1	34.9
강원	113	8	8	3	5	7.1	7.1	37.5	62.5
충청	219	10	10	7	3	4.6	4.6	70.0	30.0
전라	297	28	33	21	12	9.4	11.1	63.6	36.4
경북	243	11	11	7	4	4.5	4.5	63.6	36.4
경남	265	14	15	3	12	5.3	5.7	20.0	80.0
제주	1	1	1	-	1	100.0	100.0	0.0	100.0
전국	4,379	220	240	130	109	5.0	5.5	54.2	45.4

5) '분가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하며, 이 때 그 배우자와 자녀를 '분가표본가구원'이라고 한다.

## 2. 신규 진입자의 특성

### 가. 원표본가구원<sup>6)</sup>이지만 2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가구원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중에서 2차년도 조사시점에 만 15세에 도달하였거나 1차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사에 응답하지 못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528명이며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비중이 79.5%로 가장 높으며, 취업상태를 보면 미취업자가 대부분으로 83.9%를 차지한다. 원표본가구와 동거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92.0%가 동거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자녀가 8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본 보고서의 제2장부터 시작되는 개인응답자에 대한 분석은 원표본가구원에 속하는 1999년 유효표본가구원 11,237명과 1999년에만 조사 성공한 가구원 528명을 합한 11,765명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원표본가구원이 아니고 2차년도에 신규 조사된 가구원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가구원이 아니지만 2차년도에 신규로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의 수는 총 277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와 분리되어 있던 구성원이었으나 2차년도부터 참가한 가구원(141명, 73.4%), 2차년도에 혼인으로 인해 원표본가구에 편입된 가구원(39명, 20.3%), 기타(12명,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 277명은 1998년(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원이 아니므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6) '원표본가구원'은 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을 의미한다.

<표 1-12> 원표본가구원이지만 2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1999년에만 조사성공한 유효표본가구원(2차)
전 체		528(100.0)
성 별	남 성	312( 59.1)
	여 성	216( 40.9)
연 령 <sup>1)</sup>	15 ~ 19세	271( 53.3)
	20 ~ 24세	133( 26.2)
	25 ~ 29세	39( 7.7)
	30 ~ 39세	10( 2.0)
	40 ~ 49세	10( 2.0)
	50 ~ 59세	14( 2.8)
	60세 이상	31( 6.1)
교육수준	무 학	17( 3.2)
	고졸 미만	304( 57.6)
	고 졸	81( 15.3)
	대졸 미만	83( 15.7)
	전문대졸	11( 2.1)
	대졸 이상	32( 6.1)
혼인상태	미 혼	455( 86.2)
	기 혼	73( 13.8)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67( 12.7)
	비임금근로자	18( 3.4)
	미취업자	443( 83.9)
동거 여부	동거함	486( 92.0)
	동거하지 않음	42( 8.0)
비동거 이유 <sup>2)</sup>	다른 지방 근무중	13( 31.0)
	해외근무중	1( 2.4)
	학업관계	20( 47.6)
	군복무중	2( 4.8)
	장기입원 및 요양 중	3( 7.1)
	별 거	3( 7.1)
가구주와 관계	부 모	24( 4.5)
	가구주	16( 3.0)
	배우자	21( 4.0)
	자 녀	444( 84.1)
	기 타	23( 4.4)

주 : 1) 연령이 무응답인 20명은 분석에서 제외.

2) 비동거 이유가 무응답인 486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1-13> 원표본가구원이 아니고 2차년도에 신규 조사된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1999년에만 진입한 신규조사가구원(2차)
전 체		277(100.0)
성 별	남 성	139( 50.2)
	여 성	138( 49.8)
연 령	15 ~ 19세	13( 4.7)
	20 ~ 24세	42( 15.2)
	25 ~ 29세	81( 29.2)
	30 ~ 39세	72( 26.0)
	40 ~ 49세	13( 4.7)
	50 ~ 59세	20( 7.2)
	60세 이상	36( 13.0)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113( 40.8)
	비임금근로자	30( 10.8)
	미취업자	134( 48.4)
가구주와 관계	부 모	37( 13.4)
	가구주	54( 19.5)
	배우자	55( 19.9)
	자 녀	72( 26.0)
	기 타	59( 21.3)

## 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

## 제 1 절 가구와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 1. 세대 및 가구 구성

2차년도 조사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이다. 가구원이 4명인 가구가 37.1%로 가장 많고 2명인 가구는 19.6%이다. 1인가구는 440가구로 9.8%이며, 최다 가구원수는 10명이다. 현재 거주지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는 서울이 18.4%, 광역시가 19.5%, 도지역이 20.2%로 도지역이 서울보다 다가구원 가구의 비중이 높다. 1인가구의 비중 역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도지역이 높아, 서울의 1인가구의 비중은 9.8%인 데 비해 도지역은 10.5%이며, 1인가구의 47.5%가 도지역에 거주한다. 도지역의 1인가구는 노인가구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1인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서울은 30.6%, 광역시는 36.7%인 데 비해 도지역은 52.2%이다.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sup>7)</sup>을 보면, 2세대 가구가 66.8%로 가장 많다. 3세대 가구의 비중은

7)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9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를 따랐으며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 가구구성원이 1명인 가구
-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속함.
-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속함.
-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됨.
-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11.9%이며, 1인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도 그와 비슷한 11.0%이다. 가구의 세대 구성은 거주지별로 차이를 보여 서울보다 도지역에서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도지역의 1세대 가구의 비중 역시 높은데, 이는 노인 부부가족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 부부가족은 도지역의 1세대 가구 중 54.9%(130가구)이다.

<표 2-1> 거주지별 가구원수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서울	광역시 <sup>1)</sup>	도
전체	5,000 (100.0)	4,509 (100.0)	1,158 (100.0)	1,354 (100.0)	1,997 (100.0)
1명	517 (10.3)	440 (9.8)	111 (9.6)	120 (8.9)	209 (10.5)
2명	655 (13.1)	630 (14.0)	157 (13.6)	178 (13.1)	295 (14.8)
3명	965 (19.3)	886 (19.6)	221 (19.1)	268 (19.8)	397 (19.9)
4명	1,892 (37.8)	1,673 (37.1)	456 (39.4)	524 (38.7)	693 (34.7)
5명	696 (13.9)	644 (14.3)	162 (14.0)	194 (14.3)	288 (14.4)
6명 이상	275 (5.6)	236 (5.2)	51 (4.4)	70 (5.2)	115 (5.8)
평균(명)	3.5	3.5	3.5	3.5	3.5

주 : 1) 광역시에는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이 포함됨.

<표 2-2> 거주지별 세대 구성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서울	광역시	도
전체	5,000 (100.0)	4,509 (100.0)	1,158 (100.0)	1,354 (100.0)	1,997 (100.0)
1인가구	517 (10.3)	440 (9.8)	111 (9.6)	120 (8.9)	209 (10.5)
1세대 가구	506 (10.1)	494 (11.0)	125 (10.8)	132 (9.7)	237 (11.9)
2세대 가구	3,398 (68.0)	3,014 (66.8)	804 (69.4)	944 (69.7)	1,266 (63.4)
3세대 가구	568 (11.4)	538 (11.9)	113 (9.8)	154 (11.4)	271 (13.6)
4세대 가구	11 (0.2)	23 (0.5)	5 (0.4)	4 (0.3)	14 (0.7)

부모와 미혼 자녀, 또는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75.2%이다. 핵가족의 형태 중에서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가장 많아 전체 가구의 58.4%이며, 편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편부모 가구는 6.9%,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부부 단독가구는 9.9%이다.

부부 단독가구인 446가구 중 58.3%는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 부부가족이다. 핵가족 비중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 서울은 77.3%, 도지역은 72.9%로 도지역으로 갈



수록 낮아진다.

핵가족의 형태별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중은 서울은 60.6%이지만 이은도지역의 경우 55.7%로 낮아지고, 대신 부부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져 11.2%에 달한다.

<표 2-3> 거주지별 핵가족 구성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서울	광역시	도	전체	전체
전체	5,000 (100.0)	4,509 (100.0)	1,158 (100.0)	1,354 (100.0)	1,997 (100.0)
부부 단독	452 ( 9.0)	446 ( 9.9)	107 ( 9.2)	116 ( 8.6)	223 (11.2)
부모+미혼 자녀	2,987 (59.7)	2,633 (58.4)	702 (60.6)	819 (60.5)	1,112 (55.7)
편부모+미혼 자녀	349 ( 7.0)	312 ( 6.9)	86 ( 7.4)	106 ( 7.8)	120 ( 6.0)
1인가구	517 (10.3)	440 ( 9.8)	111 ( 9.6)	120 ( 8.9)	209 (10.5)
비핵가족	695 (13.9)	678 (15.0)	152 (13.1)	193 (14.3)	333 (16.7)

## 2. 가구주의 특성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859가구로 전체 가구의 85.6%이며,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650가구로 14.4%를 차지한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남성은 46.2세, 여성은 54.1세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의 분포는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 분포의 경우 남성은 30~40대 가구주의 비중이 57.6%로 높지만, 여성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40.9%로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남성의 경우 고졸이 38.8%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인 경우도 19.2%에 달하지만, 여성은 43.7%가 고졸 미만이며 무학자의 비중도 26.3%로 높다.

가구주 전체의 혼인상태는 기혼 유배우자가 80.6%로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별거/이혼/사별을 포함하는 기혼 무배우자가 13.6%, 미혼자가 5.8%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혼 유배우자의 비중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 가구주 중 기혼 유배우자의 비중은 14.8%에 불과하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기혼 무배우자가 72.3%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중 사별자는 388명으로 여성 가구주의 59.8%이다. 취업자의 비중은 남성 가구주의 경우 79.0%이며, 여성 가구주는 52.3%로 남성에 비해 낮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45.1%로 남성의 16.7%보다 높다.

남성과 여성 가구주 가구의 차이는 가구의 세대 구성에서 두드러지는데, 남성의 경우 71.2%가 2세대 가구인 반면 여성 가구주 가구는 41.1%로 남성보다 30.1%포인트 낮다. 반면 1인가구의 비중이 41.0%로 높은데,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60.7%이다.

수준	대출 미만	147 ( 2.9)	118 ( 2.6)	107 ( 2.8)	11 ( 1.7)
	전문대출	241 ( 4.8)	224 ( 5.0)	204 ( 5.3)	20 ( 3.1)
	대출 이상	882 (17.6)	781 (17.3)	741 (19.2)	40 ( 6.2)
혼인 상태 <sup>1)</sup>	미 혼	333 ( 6.7)	261 ( 5.8)	177 ( 4.6)	84 (12.9)
	기혼 유배우	3,945 (79.1)	3,607 (80.6)	3,511 (91.7)	96 (14.8)
	기혼 무배우	709 (14.2)	609 (13.6)	140 ( 3.7)	469 (72.3)
경제 활동 <표양 <sup>2)</sup> >	임금근로자	2,229 (44.7)	2,058 (46.0)	1,837 (48.0)	221 (34.1)
	비임금근로자	1,440 (28.9)	1,305 (29.1)	1,187 (31.0)	118 (18.2)
	사업자	384 ( 7.7)	183 ( 4.1)	166 ( 4.3)	17 ( 2.6)
	비경제활동인구	937 (18.8)	931 (20.8)	638 (16.7)	293 (45.1%)
가구의 세대 구성	1인 가구	517 (10.3)	440 ( 9.8)	173 ( 4.5)	267 (41.0)
	1세대 가구	506 (10.1)	494 (11.0)	459 (11.9)	35 ( 5.4)
	2세대 가구	3,398 (68.0)	3,014 (66.8)	2,747 (71.2)	267 (41.1)
	3세대 가구	568 (11.4)	538 (11.9)	459 (11.9)	79 (12.2)
	4세대 가구	11 ( 0.2)	23 ( 0.5)	21 ( 0.5)	2 ( 0.3)

- 주 : 1) 1차년도도의 경우 혼인상태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1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도의 경우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3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1차년도도의 경우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미취업자 1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도의 경우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3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제 2 절 주거생활

### 1. 지난 조사 이후 이사 여부

1차년도 조사에 이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4,379가구 중 1차년도 조사 이후 이사한 가구는 709가구로 전체의 16.2%이다. 지난 조사 당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사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사가구의 비중은 서울지역이 19.5%로 가장 높고, 도지역은 15.5%, 광역시는 가장 낮은 14.3%의 순이다. 지난 조사 당시 가구주의 연령별로 이사 여부를 살펴보면, 이사가구의 비중은 20대가 35.4%로 가장 높다. 이사가구의 비중은 30대에는 22.9%로, 40대에는 14.1%로 감소한다. 이처럼 20대 가구주 가구의 이사율이 높은 것은 20대 연령층이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이동, 부모가구로부터의 독립이나 혼인 등으로 변화가 큰 시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조사 당시 가구의 입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의 경우 이사가구의 비중은 7.3%로 낮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는 30.1%, 월세의 경우는 26.6%로 이사가구의 비중이 자가에 비해 높다.

<표 2-5> 가구 특성별 이사 여부

(단위 : 가구, %)

		전 체	이사함	이사 안함
전 체		4,379 (100.0)	709 (16.2)	3,670 (83.8)
1차조사 당시 거주지	서울	1,149 (100.0)	224 (19.5)	925 (80.5)
	광역시	1,323 (100.0)	189 (14.3)	1,134 (85.7)
	도	1,907 (100.0)	296 (15.5)	1,611 (84.5)
1차조사 당시 가구주 연령	15~29세	305 (100.0)	108 (35.4)	197 (64.6)
	30~39세	1,182 (100.0)	271 (22.9)	911 (77.1)
	40~49세	1,195 (100.0)	168 (14.1)	1,027 (85.9)
	50~59세	890 (100.0)	100 (11.2)	790 (88.8)
	60세 이상	807 (100.0)	62 ( 7.7)	745 (92.3)
1차조사 당시 입주형태	자 가	2,502 (100.0)	183 ( 7.3)	2,319 (92.7)
	전 세	1,314 (100.0)	396 (30.1)	918 (69.9)
	월 세	391 (100.0)	104 (26.6)	287 (73.4)
	기 타	172 (100.0)	26 (15.1)	146 (84.9)

주 :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이사가구의 경우 입주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이사 이전과 이후의 입주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54.0%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자가의 경우 53.0%가 입주형태에 변화가 없으며, 전세로 옮긴 경우는 36.6%이다.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한 경우는 58.8%이며, 전세에서 자가로 입주형태가 변화된 경우는 27.8%이다. 월세의 경우는 전세 또는 자가로 옮긴 비중이 높아 전세로 옮긴 경우는 34.6%이며 자가로 옮긴 경우는 14.4%이다.

<표 2-6> 이사가구의 입주형태 변화

(단위 : 가구, %)

		1차년도 입주형태				
		전 체	자 가	전 세	월 세	기 타
2차 년도 입주 형태	전 체	709 (100.0)	183 (100.0)	396 (100.0)	104 (100.0)	26 (100.0)
	자 가	226 (31.9)	97 (53.0)	110 (27.8)	15 (14.4)	4 (15.4)
	전 세	345 (48.7)	67 (36.6)	233 (58.8)	36 (34.6)	9 (34.6)
	월 세	104 (14.7)	17 ( 9.3)	39 ( 9.8)	44 (42.3)	4 (15.4)
	기 타	34 ( 4.8)	2 ( 1.1)	14 ( 3.5)	9 ( 8.7)	9 (34.6)

## 2. 입주형태와 주택의 종류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입주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57.2%로 가장 많으며, 전세는 29.6%, 월세는 9.0%의 순이다. 자가의 비중은 서울의 경우 46.2%로 반수에 못미치지만 도지역은 64.0%로 높다. 반면 전세와 월세는 서울이 각각 39.4%, 10.5%로 광역시나 도지역보다 높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38.7%로 가장 많다. 다음이 아파트로 33.1%이며 다세대주택은 15.1%이다. 주택의 종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의 경우는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순이다. 그러나 도지역은 단독주택의 비중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파트가 35.4%를 차지한다.

입주형태별 주택의 종류를 보면, 자가의 경우 단독주택이 43.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아파트로 38.7%이다. 전세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중은 31.3%로 자가인 경우보다 약간 떨어지며, 반면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28.1%로 증가한다. 월세 역시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32.3%로 자가나 전세에 비해 높다. 각각의 입주형태와 주택 종류별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입주형태가 자がい면서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가구는 전체 4,507가구 중 25.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がい면서 아파트인 경우가 22.1%이다. 입주형태가 전세이면서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가구는 9.3%이며, 다세대주택 가구는 8.3%이다.

<표 2-7> 거주지별 입주형태와 주택의 종류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서울	광역시	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1,158 (100.0)	1,354 (100.0)	1,997 (100.0)
입주 형태	자 가	2,791 (55.8)	2,579 (57.2)	535 (46.2)	766 (56.6)	1,278 (64.0)
	전 세	1,549 (31.0)	1,335 (29.6)	456 (39.4)	402 (29.7)	477 (23.9)
	월 세	472 ( 9.4)	405 ( 9.0)	122 (10.5)	136 (10.0)	147 ( 7.4)
	기 타	188 ( 3.8)	190 ( 4.2)	45 ( 3.9)	50 ( 3.7)	95 ( 4.8)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52 (39.0)	1,743 (38.7)	306 (26.4)	555 (41.0)	882 (44.2)
	아 파 트	1,590 (31.8)	1,494 (33.1)	291 (25.1)	496 (36.6)	707 (35.4)
	연립주택	409 ( 8.2)	365 ( 8.1)	148 (12.8)	71 ( 5.2)	146 ( 7.3)
	다세대주택	806 (16.1)	680 (15.1)	345 (29.8)	179 (13.2)	156 ( 7.8)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160 ( 3.2)	146 ( 3.2)	35 ( 3.0)	37 ( 2.7)	74 ( 3.7)
	오피스텔	2 ( 0.0)	1 ( 0.0)	- ( 0.3)	- ( 0.1)	1 ( 0.1)
	임시막사	11 ( 0.2)	10 ( 0.2)	4 ( 2.5)	1 ( 1.0)	5 ( 0.3)
	기 타	66 ( 1.3)	68 ( 1.5)	29	14 ( 0.1)	25 ( 1.3)
	모름/무응답	4 ( 0.1)	2 ( 0.0)	-	1	1 ( 0.1)

<표 2-8> 입주형태별 주택의 종류

(단위 : 가구, %)

	전 체	자 가	전 세	월 세	기 타
전 체	4,507 [100.0] (100.0)	2,579 [57.2] (100.0)	1,333 [29.6] (100.0)	405 [ 9.0] (100.0)	190 [ 4.2] (100.0)
단독주택	1,743 [38.7] (38.7)	1,126 [25.0] (43.7)	417 [ 9.3] (31.3)	151 [ 3.4] (37.3)	49 [ 1.1] (25.8)
아파트	1,494 [33.1] (33.1)	997 [22.1] (38.7)	365 [ 8.1] (27.4)	53 [ 1.2] (13.1)	79 [ 1.8] (41.6)
연립주택	365 [ 8.1] ( 8.1)	244 [ 5.4] ( 9.5)	97 [ 2.2] ( 7.3)	16 [ 0.4] ( 4.0)	8 [ 0.2] ( 4.2)
다세대주택	680 [15.1] (15.1)	153 [ 3.4] ( 5.9)	375 [ 8.3] (28.1)	131 [ 2.9] (32.3)	21 [ 0.5] (11.1)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146 [ 3.2] ( 3.2)	35 [ 0.8] ( 1.4)	64 [ 1.4] ( 4.8)	43 [ 1.0] (10.6)	4 [ 0.1] ( 2.1)
오피스텔, 임시 막사 및 기타	79 [ 1.8] ( 1.8)	24 [ 0.5] ( 1.0)	15 [ 0.3] ( 1.2)	11 [ 0.2] ( 2.7)	29 [ 0.7] (15.3)

주 : [ ] 안은 전체 4,507가구 중의 비중임. 주택의 종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3. 주택의 규모

주택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과 연건평을,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평수를 질문하였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면서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대지면적을 질문하였다. 평균 대지면적은 75.3평이며, 50평 이상 100평 미만인 경우와 25평 이상 50평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대지면적은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보다 도지역의 대지면적이 두 배 이상 넓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의 평균 대지면적은 43.0평으로, 25평 이상 50평 미만인 경우가 53.0%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150평 이상인 가구는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은 평균 92.3평으로, 150평 이상인 가구가 18.7%에 달한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경우 연건평을 질문하였다.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주택의 총 연건평을 답하게 하였고, 단독주택에서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만을 답하게 하였다.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 연건평은 평균 31.1평이며 20평 이상 30평 미만인 가구가 36.1%로 가장 많다. 주거형태가 전세나 월세 등 자가가 아닌 경우 연건평은 자가인 경우보다 좁아서 평균 16.4평이며 10평 이상 20평 미만인 가구가 43.1%로 가장 많다. 자가가구의 경우 연건평은 거주지별 차이가 있어, 서울의 평균 연건평은 37.4평인 데 비해 도지역은 29.1평으로 서울보다 좁다. 반면 전세/월세 또는 기타인 경우 서울보다 도지역이 넓어, 서울의 연건평은 평균 15.4평인 반면, 광역시는 16.7평, 도지역은 16.9평이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평수를 질문하였다. 비단독주택의 평수는 평균 22.3평이다. 평수 역시 입주형태별로 차이가 있어, 자가의 경우 평균 26.3평으로 20~30평 미만의 가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 등 자가가 아닌 경우 평균 평수는 17.8평으로 좁아지며, 10~20평 미만의 가구가 47.3%로 가장 많다.

<표 2-9>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단위 : 가구, %)

	전 체	25평 미만	25~50평 미만	50~100평 미만	100~150평 미만	150평 이상	평균(평)
전 체	1,045 (100.0)	110 (10.5)	338 (32.3)	340 (32.5)	126 (12.1)	131 (12.5)	75.3
서울	134 (100.0)	23 (17.2)	71 (53.0)	34 (25.4)	4 ( 3.0)	2 ( 1.5)	43.0
광역시	306 (100.0)	55 (18.0)	117 (38.2)	101 (33.0)	17 ( 5.6)	16 ( 5.2)	55.6
도	605 (100.0)	32 ( 5.3)	150 (24.8)	205 (33.9)	105 (17.4)	113 (18.7)	92.3

주 :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면서 입주형태가 자가인 1,126가구 중 대지면적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8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2-10> 입주형태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연건평

(단위 : 가구, %)

		전 체	10평 미만	10~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	40~50평 미만	50평 이상	평균 (평)
전 체		100.0 (1,686)	8.9 (150)	29.3 (494)	32.1 (542)	14.5 (244)	5.8 ( 98)	9.4 (158)	26.0
자가	소 계	1,101	1.6	22.0	36.1	18.5	8.4	13.4	31.1
	서울 광역시	151	0.7	23.8	25.2	15.2	7.9	27.2	37.4
	도	311	2.9	23.5	32.8	16.4	10.3	14.1	32.1
전세, 월세, 기타	소 계	639	1.3	20.8	40.2	20.3	7.5	9.9	29.1
	서울	585	22.6	43.1	24.8	6.8	1.0	1.7	16.4
	광역시	144	26.4	44.4	22.2	4.2	1.4	1.4	15.4
도	219	18.7	45.2	26.9	6.4	0.9	1.8	16.7	
도	222	23.9	40.1	24.3	9.0	0.9	1.8	16.9	

주 :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1,743가구 중 연건평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57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2-11> 입주형태별, 거주지별 비단독주택의 평수

(단위 : 가구, %)

		전 체	10평 미만	10~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	40~50평 미만	50평 이상	평균 (평)
전 체		100.0 (2,738)	6.7 (184)	35.1 (961)	37.0 (1,014)	16.3 (447)	3.2 (88)	1.6 (44)	22.3
자가	소 계	1,443	0.5	24.2	44.7	23.6	4.5	2.5	26.3
	서울	375	0.8	27.7	42.9	17.9	6.4	4.3	27.1
	광역시	440	0.2	25.0	43.6	25.0	4.8	1.4	25.7
도	628	0.5	21.5	46.5	26.1	3.2	2.2	26.3	
전세, 월세, 기타	소 계	1,295	13.7	47.3	28.5	8.2	1.8	0.6	17.8
	서울	468	16.0	48.5	25.9	7.3	1.9	0.4	17.2
	광역시	351	17.9	47.3	24.8	7.4	2.0	0.6	16.9
도	476	8.2	46.0	33.8	9.7	1.5	0.8	19.2	

주 :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 아닌 2,766가구 중 평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28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4. 입주비용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 거주지의 평균 시가는 9,245만 5,000원이다. 평균 시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이 평균 14,531만 4,000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8,381만 7,000원, 도지역이 7,751만 5,000원이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주택의 시가를 연건평으로, 아파트 등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주택의 시가를 평수로 나누어 자가주택의 평당 시가를 구하였다. 전체 가구의 평당 시가는 328만 1,000원이다. 서울은 501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는 302만 6,000원, 도지역은 277만 7,000원으로, 특히 도지역과 서울 간의 주택가격의 차이가 크다. 평당 시가가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광역시와 도지역은 8.2%와 8.9%로 낮은 데 비해 서울은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입주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답하게 하였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513만 7,000원이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3,260만 4,000원, 도지역이 2,273만 2,000원이며, 광역시의 보증금이 가장 낮은 1,957만 6,000원이다.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연건평으로 나누고,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평수로 나누어 평당 임대보증금을 구하였다. 평당 임대보증금은 147만 9,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서울의 경우 평당 임대보증금은 194만 9,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도지역이 125만 7,000원, 광역시가 120만 6,000원이다.

월세금이 있는 경우 월세금은 평균 20만원이다. 서울의 월세금이 평균 2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도지역은 21만원, 광역시는 17만원이다. 평당 월세금은 평균 1만 8,000원으로, 1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서울의 평당 월세금은 2만 2,000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와 도지역은 1만 6,000원으로 같다.

<표 2-12> 거주지별 자가주택의 평당 시가

(단위 : 가구, %)

	전 체	100 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500~ 1000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평당시가 (만원)	평균 시가 (만원)
전 체	2,247 (100.0)	144 (6.4)	393 (17.5)	732 (32.6)	420 (18.7)	242 (10.8)	263 (11.7)	54 ( 2.4)	328.1	9,244.5
서울	431 (100.0)	1 (0.2)	10 (2.3)	57 (13.2)	118 (27.4)	85 (19.7)	132 (30.6)	28 ( 6.5)	500.8	14,531.4
광역시	688 (100.0)	8 (1.2)	119 (17.3)	341 (49.6)	115 (16.7)	49 ( 7.1)	45 ( 6.5)	11 ( 1.6)	302.6	8,381.7
도	1,129 (100.0)	135 (12.0)	264 (23.4)	334 (29.6)	187 (16.6)	108 ( 9.6)	86 ( 7.6)	15 ( 1.3)	277.7	7,751.5

주 : 입주형태가 자가인 2,579가구 중 평수와 주거지의 시가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33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2-13> 거주지별 평당 임대보증금

(단위 : 가구, %)

	전 체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250 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평균 평당 보증금 (만원)	평균 보증금 (만원)
전 체	1,662 (100.0)	216 (13.0)	270 (16.2)	466 (28.0)	307 (18.5)	195 (11.7)	208 (12.5)	147.9	2,513.7
서울	569 (100.0)	48 (8.4)	46 (8.1)	80 (14.0)	117 (20.5)	126 (22.1)	153 (26.8)	194.9	3,260.4
광역시	502 (100.0)	82 (16.3)	95 (18.9)	191 (38.0)	86 (17.1)	29 (5.8)	19 (3.8)	120.6	1,957.6
도	591 (100.0)	86 (14.6)	129 (21.8)	195 (33.0)	104 (17.6)	40 (6.8)	37 (6.3)	125.7	2,273.2

주 : 입주형태가 전세, 월세 또는 기타이면서 임대보증금이 있는 1,782가구 중 임대보증금과 평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12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2-14> 거주지별 평당 월세금

(단위 : 가구, %)

	전 체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평균평당 월세금 (만원)	평균 월세금 (만원)
전 체	473 (100.0)	168 (35.5)	150 (31.7)	82 (17.3)	33 ( 7.0)	17 ( 3.6)	23 ( 4.9)	1.8	20.0
서울	135 (100.0)	34 (25.2)	37 (27.4)	32 (23.7)	11 ( 8.1)	10 ( 7.4)	11 ( 8.1)	2.2	23.0
광역시	160 (100.0)	71 (44.4)	51 (31.9)	19 (11.9)	9 ( 5.6)	5 ( 3.1)	5 ( 3.1)	1.6	16.7
도	178 (100.0)	63 (35.4)	62 (34.8)	31 (17.4)	13 ( 7.3)	2 ( 1.2)	7 ( 3.9)	1.6	20.8

주 : 입주형태가 전세, 월세 또는 기타이면서 월세금이 있는 594가구 중 월세금과 평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119가구, 월세금이 1,000만원 이상인 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제 3 절 가계경제

### 1. 소 득

한국노동패널 제2차년도 조사는 1998년 한 해 동안의 가구소득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의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소득의 유무와 세금을 제외한 액수를 질문하였다.

#### 가. 가구의 총소득

1998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소득을 합하여 1998년 가구의 총소득을 산출하였다. 1998년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60만 4,000원이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1.3%로 가장 많다.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13.0%이며, 반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0.6%에 달한다.

<표 2-15>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단위 : 가구, %)

	1차년도 <sup>1)</sup>	2차년도 <sup>2)</sup>
전 체	5,000 (100.0)	4,379 (100.0)
50만원 미만	614 (12.3)	570 (13.0)
50만~100만원 미만	901 (18.0)	840 (19.2)
100만~150만원 미만	1,049 (21.0)	932 (21.3)
150만~200만원 미만	815 (16.3)	697 (15.9)
200만~300만원 미만	815 (16.3)	734 (16.8)
300만원 이상	489 ( 9.8)	465 (10.6)
모름/무응답 <sup>3)</sup>	317 ( 6.3)	141 ( 3.2)
평균(만원)	156.4	160.4

주 :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1) 1차년도의 월평균 총소득은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이며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임.
- 2) 2차년도의 월평균 총소득은 1998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며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사회보험소득의 합임.
- 3) 소득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액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를 의미함.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특성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았다. 가구원수별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64만 9,000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6인 이상 가구의 소득은 207만 3,000원으로 가장 높다. 가구주의 특성별로는,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171만 8,000원이며 여성은 그보다 79만 1,000원이 적은 92만 7,000원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7.4%이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는 9.2%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성 가구주 가구와 남성 가구주 가구간의 월평균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남성과 여성 간의 기본적인 임금격차 이외에도 여성 가구주 가구의 41.0%가 가구주 이외의 소득원이 없는 1인가구이며, 가구주의 취업률 역시 남성 가구주보다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190만원으로 가장 높고 50대 가구주 가구가 181만 9,000원으로 다음을 차지한다.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은 94만 7,000원으로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중 20.9%가

<표 2-16> 가구 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단위 : 가구,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4,238	1,410 (33.2)	1,629 (38.5)	1,199 (28.3)	160.4
가구원수	1명	404	302 (74.8)	88 (21.8)	14 ( 3.5)	64.9
	2명	539	331 (61.4)	143 (26.5)	65 (12.1)	99.3
	3명	823	310 (37.7)	339 (41.2)	174 (21.1)	147.9
	4명	1,619	315 (19.5)	742 (45.8)	562 (34.7)	188.6
	5명	624	108 (17.3)	243 (38.9)	273 (43.8)	200.9
	6명 이상	229	44 (19.2)	74 (32.3)	111 (48.5)	207.3
가구주의 성별	남 성	3,627	998 (27.5)	1,486 (41.0)	1,143 (31.5)	171.8
	여 성	611	412 (67.4)	143 (23.4)	56 ( 9.2)	92.7
가구주의 연령	15~29세	203	76 (37.4)	98 (48.3)	29 (14.3)	123.1
	30~39세	1,104	233 (21.1)	560 (50.7)	311 (28.2)	168.8
	40~49세	1,196	290 (24.2)	483 (40.4)	423 (35.4)	190.0
	50~59세	882	258 (29.3)	311 (35.3)	313 (35.3)	181.9
	60세 이상	853	553 (64.8)	177 (20.8)	123 (14.4)	94.7
가구주의 교육수준	무 학	273	229 (83.9)	31 (11.4)	13 ( 4.8)	55.6
	고졸 미만	1,412	657 (46.5)	517 (36.6)	238 (16.9)	124.3
	고 졸	1,520	380 (25.0)	700 (46.1)	440 (28.9)	163.5
	대졸 미만	112	30 (26.8)	45 (40.2)	37 (33.0)	167.8
	전문대졸	204	36 (17.6)	98 (48.0)	70 (34.3)	193.9
	대졸 이상	717	78 (10.9)	238 (33.2)	401 (55.9)	255.8

주 : 가구소득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44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1인가구이고 29.0%는 자녀 없는 부부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원이 노인인 가구주와 그 배우자뿐이기 때문에 해석된다.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도 차이가 나타난다. 가구주가 무학인 경우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평균 55만 6,000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3.9%이다. 반면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255만 8,000원으로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 나.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하며, 임금근로자가 직장 또는 일자리에 서 받은 임금과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포함된다. 1998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3,787가구로 전체의 86.5%이며,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던 가구는 592가구로 전체의 13.5%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998년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50만 8,000원이다.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4.5%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0.6%이다.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2%이며, 반대로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8.9%이다.

<표 2-17>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4,993]	100.0 [100.0]
근로소득 없음	592 [ 743]	13.5 [ 14.9]
근로소득 있음	3,787 [4,250]	86.5 [ 85.1]
평균(만원)	150.8 [154.9]	
50만원 미만	338	8.9
50만~100만원 미만	781	20.6
100만~150만원 미만	928	24.5
150만~200만원 미만	674	17.8
200만~250만원 미만	471	12.4
250만~300만원 미만	231	6.1
300만원 이상	348	9.2
모름/무응답	16	0.4

주 : [ ] 안은 1차년도(1997년)의 근로소득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질문하였음. 근로소득의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7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1998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이자,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식의 시세가 높아진 경우 등과 같이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8년 한 해 동안 가구에 금융소득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후 금융소득이 있었던 경우, 금융소득의 항목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사채 이자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과 기타 금융소득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소득 유무와 총액을 질문하였다.

1998년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496가구로 전체 가구의 11.3%이다. 가구의 총 금융소득은 항목별 금융소득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평균 367만 3,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가장 많다.

금융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496가구 중 각각의 항목별 금융소득의 유무와 액수를 살펴보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446가구로 전체 4,379가구 중 10.2%이며, 평균 316만 8,000원이다. 사채 이자수입이 있었던 가구는 33가구로 전체 가구의 0.8%이며 평균 수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입보다 많은 475만 5,000원이다.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이 있었던 가구 역시 0.8%이며, 평균 소득액수는 기타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가장 높아 758만 7,000원이다.

<표 2-18> 가구의 연간 총 금융소득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4,995]	100.0 [100.0]
금융소득 없음	3,883 [4,523]	88.7 [ 90.6]
금융소득 있음	496 [ 472]	11.3 [ 9.4]
평균(만원)	367.3 [493.0]	
50만원 미만	90	18.1
50만~100만원 미만	59	11.9
100만~250만원 미만	149	30.0
250만~500만원 미만	83	16.7
500만~1,000만원 미만	63	12.7
1,000만원 이상	45	9.1
모름/무응답 <sup>1)</sup>	7	1.4

주 : [ ] 안은 1차년도(1997년)의 금융소득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금융소득을 질문하였음. 금융소득의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5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1998년)의 금융소득은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1) 금융소득의 세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액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를 의미함.

<표 2-19>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금융소득

	빈도(가구)	비중(%)	평균(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소득	446	10.2	316.8
사채 이자수입	33	0.8	475.5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36	0.8	758.7
배당금	33	0.8	46.0
기타 금융소득	7	0.2	1,250.0

주 : 전체 4,37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라.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월세 등의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1998년 한 해 동안 부동산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290가구로 전체의 6.6%이다. 총 부동산소득은 평균 1,187만 9,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5.9%로 가장 많다.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9.7%이며, 1,5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4.8%가 된다. 항목별 부동산소득을 살펴보면, 월세 등의 임대료가 있었던 가구는 235가구로 전체 가구의 5.4%이며 임대료소득은 평균 721만 5,000원이다. 부동산 매매차익이 있었던 가구는 24가구로 전체 가구의 0.5%에 불과하나 평균 7,193만 9,000원으로 가장 높다.

<표 2-20> 가구의 연간 총 부동산소득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4,996]	100.0 [100.0]
부동산소득 없음		4,089 [4,723]	93.4 [ 94.5]
부동산소득 있음		290 [ 273]	6.6 [ 5.5]
	평균(만원)	1,187.9 [704.8]	
	100만원 미만	37	12.8
	100만~250만원 미만	75	25.9
	250만~500만원 미만	57	19.7
	500만~1,000만원 미만	45	15.5
	1,000만~1,500만원 미만	32	11.0
	1,500만원 이상	43	14.8
	모름/무응답 <sup>1)</sup>	1	0.3

주 : [ ] 안은 1차년도의 부동산소득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부동산소득을 질문하였음. 부동산소득의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4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의 부동산소득은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1) 부동산소득의 세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액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를 의미함.

<표 2-21>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부동산소득

	빈도(가구)	비중(%)	평균(만원)
월세 등의 임대료(임대보증금 제외)	235	5.4	721.5
부동산 매매차익	24	0.5	7,193.9
기타 임대료 수입	32	0.7	259.6

주 : 전체 4,37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마. 사회보험소득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과 보훈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sup>8)</sup> 1998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을 받은 가구원이 있었던 가구는 170가구로 전체의 3.9%이다. 사회보험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수급한 사회보험소득은 평균 586만 2,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2.4%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가구도 19.4%를 차지한다.

<표 2-22> 가구의 연간 총 사회보험 수급액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100.0
사회보험소득 없음	4,209	96.1
사회보험소득 있음	170	3.9
평균(만원)	586.2	
100만원 미만	31	18.2
100만~250만원 미만	38	22.4
250만~500만원 미만	28	16.5
500만~1000만원 미만	33	19.4
1,000만~1,500만원 미만	21	12.4
1,500만원 이상	17	10.0
모름/무응답	2	1.2

주 :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8) 사회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 특수지역연금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
- 산재보험 :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 보훈연금
- 실업급여

## 바.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또는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경로우대교통비나 동사무소의 생활보호대상 연금 등이 이에 속하며, 위에서 응답한 사회보험소득은 제외된다. 1998년 한 해 동안 이전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959가구로 전체 가구의 21.9%이다. 1998년 가구의 총 이전소득은 평균 234만 8,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이전소득이 있었던 가구가 가장 많다.

친척 또는 친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612가구로 전체 가구의 14.0%이며, 보조금의 총액은 평균 323만 2,000원이다. 정부보조금은 전체 가구의 11.4%가 받았으며 평균 40만 5,000원이다. 정부보조금의 종류로는 경로우대교통비가 79.6%로 가장 많다.

<표 2-23> 가구의 연간 총 이전소득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4,995]	100.0 [100.0]
이전소득 없음	3,420 [4,407]	78.1 [ 88.1]
이전소득 있음	959 [ 588]	21.9 [ 11.8]
평균(만원)	234.8 [322.3]	
10만원 미만	92	9.6
10만~25만원 미만	189	19.7
25만~50만원 미만	48	5.0
50만~100만원 미만	98	10.2
100만~250만원 미만	230	24.0
250만~500만원 미만	167	17.4
500만원 이상	133	13.9
모름/무응답 <sup>1)</sup>	2	0.2

주 : [ ] 안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이전소득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월평균 이전소득을 질문하였고 이에 12를 곱하여 1년 총소득으로 환산하였음. 이전소득의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5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의 이전소득은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1) 이전소득의 세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액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를 의미함.

<표 2-24>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이전소득

	빈도(가구)	비중(%)	평균(만원)
정부보조금	501	11.4	40.5
사회단체 보조금	14	0.3	96.9
친척, 친지 보조금	612	14.0	323.2
기타 보조금	29	0.6	194.0

주 : 전체 4,37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사.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 포함)이나 퇴직금, 복권 당첨금과 같이 앞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다. 1998년 한 해 동안 기타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471가구로 전체 가구의 10.8%이다. 가구의 총 기타소득은 평균 1,110만 2,000원이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1%로 가장 많다. 기타소득 중 보험금이 있었던 가구는 323가구로 전체 가구의 7.4%이며 평균 액수는 425만 6,000원이다. 퇴직금을 받았던 가구는 2.6%이며, 평균 액수는 2,976만 4,000원이다.

<표 2-25> 1998년 가구의 연간 총 기타소득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4,995]	100.0 [100.0]
기타소득 없음	3,908 [4,750]	89.2 [ 95.1]
기타소득 있음	471 [ 245]	10.8 [ 4.9]
평균(만원)	1,110.2 [1,846.8]	
100만원 미만	68	14.4
100만~250만원 미만	109	23.1
250만~500만원 미만	100	21.2
500만~1,000만원 미만	79	16.8
1,000만~2,500만원 미만	66	14.0
2,500만~5,000만원 미만	21	4.5
5,000만원 이상	25	5.3
모름/무응답 <sup>1)</sup>	3	0.6

주 : [ ] 안은 1차년도(1997년)의 기타소득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월평균 기타소득을 질문하였고 이에 12를 곱하여 1년 총소득으로 환산하였음. 기타소득의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5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1998년)의 기타소득은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1) 기타소득의 세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액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를 의미함.

<표 2-26>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기타소득

	빈도(가구)	비중(%)	평균(만원)
보험금(보험해약금 포함)	323	7.4	425.6
퇴직금	115	2.6	2,976.4
기 타	57	1.3	800.9

주 : 전체 4,37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2. 소 비

1998년 한해 동안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와 저축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소비 역시 1998년의 가구 상황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대상가구 중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고 2차년도 조사에도 응답한 4,379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가.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란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1998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00만 8,000원이다. 월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8.4%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인 가구가 21.0%이다.

<표 2-27>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100.0
평균(만원)	100.8 [101.0]	
50만원 미만	710	16.2
50만 ~ 75만원 미만	920	21.0
75만 ~ 100만원 미만	609	13.9
100만 ~ 150만원 미만	1,244	28.4
150만 ~ 200만원 미만	506	11.6
200만원 이상	383	8.7
모름/무응답	7	0.2

주 : [ ] 안은 1차년도의 월평균 생활비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평균임. 2차년도의 월평균 생활비는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식비,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비 항목별로 지출 여부와 월평균 지출액을 질문하였다. 주식비와 부식비를 포함하는 식비는 대부분의 가구가 지출하였으며 월평균 35만 2,000원이 들었다. 외식비는 36.9%의 가구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8만 5,000원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40%에 가까운 가구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공교육비 지출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가 약간 많다. 그러나 월평균 교육비는 공교육비가 사교육비보다 약간 높다. 주거비의 경우는 월평균 12만 5,000원이 지출되었다. 경조사비는 대부분의 가구가 지출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7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로는 월평균 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문화비는 41.0%의 가구만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평균 5만 5,000원으로 생활비 항목 중 가장 액수가 낮다.

<표 2-28>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빈도(가구)	비중(%) <sup>1)</sup>	평균(만원)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4,346	99.2	35.2
외식비	1,618	36.9	8.5
공교육비(학교 등록금, 납입금 등)	1,649	37.7	25.0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등)	1,701	38.8	21.7
차량유지비	2,042	46.6	19.1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4,263	97.4	12.5
경조사비	3,534	80.7	7.3
보건의료비	3,649	83.3	6.3
문화비(취미나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1,798	41.1	5.5
내구재 구입비(전자제품이나 가구구입)	643	14.7	10.2
기타 생활용품비	2,554	58.3	10.0

주 : 2차년도의 기타소득은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1) 각 항목별 생활비가 있다고 응답한 4,379가구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나. 저 축

1998년 한해 동안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하여 저축을 한 가구는 2,279가구로 전체의 52.0%이다. 월평균 저축액은 46만 6,000원이었으며,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저축한 가구가 26.0%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을 저축한 가구는 25.4%이다. 월평균 저축액이 10만원 미만인 가구는 7.4%이며, 반면 한달에 100만원 이상 저축한 가구는 12.0%이다.

<표 2-29> 저축 여부와 월평균 저축액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379 [5,000]	100.0 [100.0]
저축 안함	2,100 [2,290]	48.0 [45.8]
저축함	2,279 [2,710]	52.0 [54.2]
평균(만원)	46.6 [61.8]	
10만원 미만	168	7.4
10만~25만원 미만	578	25.4
25만~50만원 미만	593	26.0
50만~75만원 미만	532	23.3
75만~100만원 미만	111	4.9
100만~150만원 미만	189	8.3
150만원 이상	84	3.7
모름/무응답	24	1.1

주 : [ ] 안은 1차년도의 저축 관련 내용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월평균임. 2차년도의 월평균 생활비는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기존 가구만을 분석하였으며, 제1차 조사 이후 분가하여 새로 표본에 편입된 13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 3. 자 산

1999년 조사 당시 가구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산은 조사 당시의 시세를 응답하게 하였으며, 모든 조사가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 가. 부동산자산

부동산자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타인에게 지불한 부동산 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947가구로 전체 가구의 21.0%이다. 소유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토지를 소유한 가구가 전체 4,509가구 중 10.0%로 가장 많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7.8%이다. 소유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28.8%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도 그와 비슷한 28.2%이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주택이나 상가, 임야, 토지 등을 빌려 쓰고 있는 가구는 605가구로 전체 가구의 13.4%이다.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475가구로 10.5%이며,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1.3%이다.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는 1.2%이다.

<표 2-30> 부동산자산 소유 여부와 시가 총액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509	100.0
부동산 소유 안함		3,562	79.0
부동산 소유함		947	21.0
소유 부동산 종류 <sup>1)</sup>	주 택	351	7.8
	건 물	126	2.8
	임 야	126	2.8
	토 지	449	10.0
	기 타	11	0.2
소유 부동산 시가총액 <sup>2)</sup>	1,000만원 미만	84	8.9
	1,000만~5,000만원 미만	273	28.8
	5,000만~1억원 미만	229	24.4
	1억~5억원 미만	231	28.2
	5억~10억원 미만	33	3.5
	10억~20억원 미만	12	1.3
	20억원 이상	1	0.1
	잘 모르겠음	46	4.9

주 : 1) 전체 4,50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2)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947가구 중의 비중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지불한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2.4%로 가장 많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2.1%이다.

<표 2-31> 부동산 임차 여부와 임차보증금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509	100.0
부동산 임차 안함		3,904	86.6
부동산 임차함		605	13.4
임차부동산 종류 <sup>1)</sup>	주택	57	1.3
	건물	475	10.5
	임야	4	0.1
	토지	52	1.2
	기타	22	0.5
임차보증금의 총액 <sup>2)</sup>	보증금 없음	42	6.9
	1,000만원 미만	134	22.1
	1,000만~5,000만원 미만	317	52.4
	5,000만~1억원 미만	74	12.2
	1억원 이상	12	2.0
	잘 모르겠음	26	4.3

주 : 1) 전체 4,50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2)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605가구 중의 비중임.

#### 나. 금융자산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위의 금융자산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194가구로 전체 가구의 70.8%이다. 항목별 금융자산을 합하여 가구의 총 금융자산을 구하였다. 가구의 총 금융자산은 평균 1,856만 5,000원으로,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가장 많다. 금융자산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21.7%이며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1%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자산이 있는 경우가 33.8%이다.

항목별 금융자산을 보면, 은행예금이 있는 가구는 2,340가구로 전체 가구의 51.9%를 차지하며, 평균 액수는 1,506만 2,000원이다. 보험이 있는 가구 역시 전체 가구의 과반수로 50.7%이며, 지금까지 지불한 돈(불입총액)은 평균 594만 3,000원이다. 주식, 채권, 신탁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이며 평균 액수는 은행예금보다 많은 1,653만 9,000원이다.

<표 2-32> 가구의 총 금융자산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509	100.0
금융자산 없음		1,315	29.2
금융자산 있음		3,194	70.8
	평균(만원)	1,856.5	
	250만원 미만	694	21.7
	250만~500만원 미만	385	12.1
	500만~1,000만원 미만	569	17.8
	1,000만~2,500만원 미만	846	26.5
	2,500만~5,000만원 미만	376	11.8
	5,000만~1억원 미만	188	5.9
	1억원 이상	89	2.8
	모름/무응답 <sup>1)</sup>	47	1.5

주 : 1) 금융자산의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액수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경우를 의미함.

<표 2-33> 가구의 항목별 금융자산

	빈도(가구)	비중(%)	평균(만원)
은행예금	2,340	51.9	1,506.2
주식, 채권, 신탁	359	8.0	1,653.9
보험	2,285	50.7	594.3
아직 타지 않은 계	116	2.6	592.6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189	4.2	2,059.0
기타 금융자산	27	0.6	1,464.2

주 : 전체 4,50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4. 부 채

부채에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전세금 또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된다. 1999년 조사 당시 현재 부채가 있는 가구는 2,282가구로 전체 4,509가구의 50.6%이다. 부채가 있는 경우 항목별 부채의 합으로 가구의 총 부채잔액을, 월평균 상환금의 합으로 총 월평균 상환금을 구하였다. 가구의 총 부채잔액은 평균 3,647만 6,000원으로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원금과 이자의 월평균 상환금은 총 39만 3,000원이다. 월평균 상환금이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인 경우가 24.6%로 가장 많고, 월평균 상환금이 없는 경우도 25.9%이다.

항목별 부채를 살펴보면,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경우가 1,618가구로 전체 가구의 35.9%이다. 금융기관 부채잔액은 평균 2,982만 2,000원이고 월평균 원금과 이자 상환금은 35만 8,000

원이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는 가구는 12.5%이며, 부채잔액은 평균 1,748만 7,000원이며  
 이자상환금은 평균 33만 1,000원이다. 부동산을 임대해 준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받은  
 가구는 522가구로 전체의 11.6%이다.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금은 31.1만원이지만 상환금을 지불하는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하다.

<표 2-34> 가구의 부채 유무와 부채잔액, 월평균 상환금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509 [4,997]	100.0 [100.0]
부채 없음		2,227 [2,898]	49.4 [ 58.0]
부채 있음		2,282 [2,099]	50.6 [ 42.0]
부 채 잔 액	평균(만원)	3,647.6 [3,016.4]	
	500만원 미만	320	14.0
	500만 ~ 1,000만원 미만	320	14.0
	1,000만 ~ 2,500만원 미만	729	31.9
	2,500만 ~ 5,000만원 미만	437	19.1
	5,000만 ~ 1억만원 미만	278	12.2
	1억원 이상	167	7.3
	모름/무응답 <sup>1)</sup>	31	1.4
월평균 상환금	평균(만원)	39.3 [47.9]	
	상환금 없음	590	25.9
	10만원 미만	341	14.9
	10만 ~ 25만원 미만	562	24.6
	25만 ~ 50만원 미만	389	17.1
	50만 ~ 100만원 미만	208	9.1
	100만원 이상	127	5.6
	모름/무응답 <sup>1)</sup>	65	2.8

주 : [ ] 안은 1차년도의 부채 관련 내용으로 조사일 이전 1년간의 부채에 관해 질문함. 부채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3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2-35> 가구의 항목별 부채잔액과 월평균 상환금

	빈도 (가구)	비중 (%)	평균 부채 잔액 (만원)	월평균 원금과 이자상환금(만원)
금융기관 부채	1,618	35.9	2,980.6	35.8
비금융기관 부채 (회사를 통해 빌린 돈 등)	160	3.5	1,232.2	18.5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나 친척 및 친지에게 빌린 돈)	565	12.5	1,748.7	33.1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522	11.6	4,375.2	31.1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46	1.0	454.9	59.3
기 타	44	1.0	1,300.7	19.4

주 : 전체 4,50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5.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699가구로 전체의 59.9%이다. 경제적 어려움의 종류를 다중응답한 결과, 부채의 상황이 가장 많아 41.0%이며, 식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38.6%이다. 교육비는 37.8%, 주거비의 경우는 26.9%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의료비의 경우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1.2%이다.

<표 2-36>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여부와 내용

	1차년도 <sup>1)</sup>	2차년도 <sup>2)</sup>
전 체	4,997 (100.0)	4,509 (100.0)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1,874 (37.5)	1,810 (40.1)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3,123 (62.5)	2,699 (59.9)
식 비	906 (29.0) [18.1]	1,042 (38.6) [23.1]
교육비	1,260 (40.3) [25.2]	1,020 (37.8) [22.6]
채무의 원리금 상환	1,121 (35.9) [22.6]	1,106 (41.0) [24.5]
의료비	627 (20.1) [12.5]	573 (21.2) [12.7]
주거비	834 (26.7) [16.7]	727 (26.9) [16.1]
기 타	292 ( 9.3) [ 5.8]	329 (12.2) [ 7.3]

주 : 1) ( ) 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3,123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 안은 전체 4,997가구 중의 비중임. 또한 경제적 어려움 유무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3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 ( ) 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2,699가구 중의 비중으로 다중응답임. [ ] 안은 전체 4,509가구 중의 비중임.



## 개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제 1 절 개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장에서는 개인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지의 분포를 다룬다. 분석대상자는 전체 11,765명으로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원가구원 11,237명과 2차년도 조사에 처음으로 응답한 원가구원 528명이다. 신규 원가구원에는 1차년도 조사 당시 만 15세 미만으로 개인설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만 15세 이상이 되어 개인설문 조사대상이 된 경우와 1차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개인설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개인응답자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분포는 남성 5,670명, 여성 6,09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30대 인구가 전체의 22.2%, 40대는 19.3%로 30~40대 인구가 가장 많다. 20대 인구는 19.1%이고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4.7%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분포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별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여성이 16.6%로 남성보다 3.9%포인트 많다. 평균연령은 남성 39.6세, 여성 40.6세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가구주는 37.6%이고 가구주의 배우자는 29.7%이다. 가구주의 비중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가구주가 전체 남성인구의 66.6%인 반면 여성인구에서는 10.6%에 달한다. 가구주의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는 남성의 경우 29.4%이고 여성인구 중에서는 24.9%이다. 반면 가구주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남성은 1.5%, 여성은 6.2%를 차지한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가 전체 28.6%이고 기혼자 중 현재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기혼 유배우자는 63.1%이다. 별거는 0.6%, 이혼은 1.1%이고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6.6%이다. 혼인상태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미혼자는 전체의 31.9%로 여성의 25.5%보다 6.4%포인트 많다. 남성은 기혼 유배우자의 비중도 여성보다 높다. 이는 사별자의 비중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남성 인구 중에서 사별한 경우는 1.5%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11.3%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은 무학자가 전체 6.7%이고 고등학교 재학/휴학/중퇴자를 포함하는 고졸 미만자가 가장 많은 34.4%이다. 고졸자는 32.9%이고 대졸 이상자는 12.2%이다.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인구는 전체의 15.2%이다. 교육수준은 성별로 차이가 나는데, 남성의 경우 무학과 고졸 미만자의 비중은 각각 2.8%와 32.1%에 달한다. 반면 여성은 무학자가 10.4%,

<표 3-1> 개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남성	여성
전 체		13,738 (100.0)	11,765 (100.0)	5,670 (100.0)	6,095 (100.0)
연령 <sup>1)</sup>	15~19세	1,653 (12.0)	1,366 (11.6)	700 (12.3)	666 (10.9)
	20~24세	1,493 (10.9)	1,033 ( 8.8)	417 ( 7.4)	616 (10.1)
	25~29세	1,525 (11.1)	1,211 (10.3)	600 (10.6)	611 (10.0)
	30~39세	3,064 (22.3)	2,613 (22.2)	1,319 (23.3)	1,294 (21.2)
	40~49세	2,557 (18.6)	2,272 (19.3)	1,114 (19.6)	1,158 (19.0)
	50~59세	1,701 (12.4)	1,539 (13.1)	802 (14.1)	737 (12.1)
	60세 이상	1,744 (12.7)	1,731 (14.7)	718 (12.7)	1,013 (16.6)
	평균(세)	38.8	40.1	39.6	40.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000 (36.4)	4,423 (37.6)	3,776 (66.6)	647 (10.6)
	배우자	3,952 (28.8)	3,499 (29.7)	43 ( 0.8)	3,456 (56.7)
	부모	540 ( 3.9)	460 ( 3.9)	84 ( 1.5)	376 ( 6.2)
	자녀	3,977 (28.9)	3,184 (27.1)	1,668 (29.4)	1,516 (24.9)
	형제	166 ( 1.2)	124 ( 1.1)	65 ( 1.1)	59 ( 1.0)
	기타	103 ( 0.7)	75 ( 0.6)	34 ( 0.6)	41 ( 0.7)
혼인 상태 <sup>2)</sup>	미 혼	3,853 (29.0)	3,367 (28.6)	1,811 (31.9)	1,556 (25.5)
	기혼유배우	8,292 (62.3)	7,424 (63.1)	3,685 (65.0)	3,739 (61.3)
	별거	134 ( 1.0)	75 ( 0.6)	23 ( 0.4)	52 ( 0.9)
	이혼	149 ( 1.1)	127 ( 1.1)	68 ( 1.2)	59 ( 1.0)
	사별	855 ( 6.4)	772 ( 6.6)	83 ( 1.5)	689 (11.3)
교육 수준 <sup>3)</sup>	무 학	866 ( 6.7)	793 ( 6.7)	159 ( 2.8)	634 (10.4)
	고졸 미만	4,651 (34.4)	4,050 (34.4)	1,818 (32.1)	2,232 (36.6)
	고 졸	4,530 (32.9)	3,876 (32.9)	1,913 (33.7)	1,963 (32.2)
	대졸 미만	1,296 ( 8.2)	967 ( 8.2)	535 ( 9.4)	432 ( 7.1)
	전문대졸	725 ( 5.5)	647 ( 5.5)	328 ( 5.8)	319 ( 5.2)
	대졸 이상	1,662 (12.2)	1,431 (12.2)	916 (16.2)	515 ( 8.4)

주 : 1) 1차년도의 경우 연령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2) 1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431명 분석에서 제외.

3) 1차년도의 경우 교육수준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8명은 분석에서 제외, 2차년도의 경우 교육수준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 분석에서 제외.

고졸 미만이 36.6%로 전체 여성인구의 47.0%를 차지한다. 반면 대졸 이상자의 경우는 남성은 16.2%인 반면, 여성은 8.4%에 불과하다.

성별·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 개인응답자의 인구특성을 살펴보았다.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25~29세 인구의 29.0%가 가구주이다. 이 비중은 30대에 들어 급격히 83.2%로 증가하며 40대에서는 97.1%에 이른다. 반면 여성은 30대의 경우 가구주의 비중이 4.1%에 불과하나 40대부터 가구주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60세 이상의 경우 26.2%에 달한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사실과 더불어 여성 노인인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별 혼인상태는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까지 미혼자의 비중이 높으나 30대에 들어서는 미혼자의 비중이 17.3%로 떨어지고 대신 기혼 유배우자의 비중이 81.0%로 높아진다. 여성의 경우 혼인연령이 남성보다 낮아, 25~29세에 들어 미혼의 비중은 40.9%로 낮아지고 기혼 유배우자의 비중이 58.4%로 높아진다. 기혼 유배우자의 비중은 30대에 들어 93.4%로 높아진다. 특히 여성인구의 경우 사별자의 비중이 높아 60세 이상 연령층의 49.6%가 사별자이다. 반면 남

<표 3-2> 남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전 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5,670 (100.0)	700 (100.0)	417 (100.0)	600 (100.0)	1,319 (100.0)	1,114 (100.0)	802 (100.0)	718 (100.0)
혼인 상태	미 혼	1,811 (31.9)	700 (100.0)	404 (96.9)	446 (74.3)	228 (17.3)	26 ( 2.3)	6 ( 0.7)	1 ( 0.1)
	기혼 유배우	3,685 (65.0)	-	12 ( 2.9)	150 (25.0)	1,069 (81.0)	1,046 (93.9)	759 (94.6)	649 (90.4)
	기혼 무배우	174 ( 3.7)	-	1 ( 0.2)	4 ( 0.7)	22 ( 1.7)	42 ( 3.8)	37 ( 4.6)	68 ( 9.5)
교육 수준	무 학	159 ( 2.8)	-	2 ( 0.5)	1 ( 0.2)	6 ( 0.5)	2 ( 0.2)	15 ( 1.9)	133 (18.5)
	고졸 미만	1,818 (32.1)	502 (71.7)	24 ( 5.8)	32 ( 5.3)	166 (12.6)	345 (31.0)	375 (46.8)	374 (52.1)
	고 졸	1,913 (33.7)	54 ( 7.7)	126 (30.2)	252 (42.0)	599 (45.4)	482 (43.3)	279 (34.8)	121 (16.9)
	대졸 미만	535 ( 9.4)	141 (20.1)	220 (52.8)	77 (12.8)	42 ( 3.2)	22 ( 2.0)	19 ( 2.4)	14 ( 1.9)
	전문대졸	328 ( 5.8)	2 ( 0.3)	31 ( 7.4)	83 (13.8)	135 (10.2)	68 ( 6.1)	5 ( 0.6)	4 ( 0.6)
	대졸 이상	916 (16.2)	1 (0.0)	14 ( 3.4)	155 (25.8)	371 (28.1)	195 (17.5)	109 (13.6)	72 (10.0)

성의 경우 60대의 사별자 비중은 8.5%로 여성보다 매우 낮다.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는 25세 미만의 경우 아직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인구가 많아, 고졸 미만자와 대졸 미만자의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30대 연령층의 경우, 남성은 고졸자가 45.4%, 대졸 이상자가 28.1%인 반면 여성은 고졸자의 분포가 남성보다 높은 55.1%이며, 대졸 이상자는 14.4%로 남성보다 낮다. 남성과 여성의 학력차이는 60세 이상에서 크게 드러나는데, 남성의 경우 무학자가 18.5%, 고졸 미만자가 52.1%, 대졸 이상자의 경우는 10.0%인 반면, 여성은 무학자가 51.6%, 고졸 미만자가 42.2%이며 대졸 이상자는 0.9%에 불과하다.

<표 3-3> 여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전 체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전 체		6,095 (100.0)	666 (100.0)	616 (100.0)	611 (100.0)	1,294 (100.0)	1,158 (100.0)	737 (100.0)	1,013 (100.0)
혼인 상태	미 혼	1,556 (25.5)	663 (99.5)	570 (92.5)	250 (40.9)	53 (4.1)	18 (1.6)	- 603 (81.8)	2 (0.2)
	기혼유배우	3,739 (61.3)	3 (0.5)	44 (7.1)	357 (58.4)	1,208 (93.4)	1,035 (89.4)	134 (18.2)	489 (48.3)
	기혼무배우	800 (13.2)	- 1	2 (0.4)	4 (0.7)	33 (2.6)	105 (9.1)	88	522 (51.6)
교육 수준	무 학	634 (10.4)	(0.2)	- 12 (1.9)	2 (0.3)	2 (0.2)	18 (1.6)	(11.9)	523 (51.6)
	고졸 미만	2,232 (36.6)	423 (63.5)	210 (34.1)	27 (4.4)	268 (20.7)	594 (51.3)	481 (65.3)	427 (42.2)
	고 졸	1,963 (32.2)	103 (15.5)	222 (36.0)	320 (52.4)	713 (55.1)	439 (37.9)	132 (17.9)	46 (4.5)
	대졸 미만	432 (7.1)	139 (20.9)	101 (16.4)	28 (4.6)	27 (2.1)	9 (0.8)	4 (0.5)	3 (0.3)
	전문대졸	319 (5.2)	-	71 (11.5)	89 (14.6)	98 (7.6)	20 (1.7)	6 (0.8)	5 (0.5)
	대졸 이상	515 (8.4)	-		145 (23.7)	186 (14.4)	78 (6.7)	26 (3.5)	9 (0.9)

## 제 2 절 현재 거주지

응답자의 26.2%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43.7%가 서울 및 경기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 거주 비중은 31.0%이며, 도지역은 42.8%이다.

연령별 거주지 분포를 보면, 15세 미만 인구의 26.4%가 서울에, 35.4%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의 50.5%는 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1.7%만이 서울에 거주한다. 거주지별 연령분포를 보면,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30대 인구가 21.8%, 40대 인구가 20.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 인구는 2.1%에 불과하다. 광역시 역시 30~40대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하며 60세 이상 노령층은 3.2%로 적다. 하지만 도지역의 경우 19세 이하 인구는 10.4%로 낮고 60세 이상 인구는 7.4%로 서울 및 광역시보다 높다.

<표 3-4> 성별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남 성		여 성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3,738	(100.0)	11,765	(100.0)	5,670	(100.0)	6,095	(100.0)
서울	3,720	(27.1)	3,087	(26.2)	1,491	(26.3)	1,596	(26.2)
부산	1,329	(9.7)	1,180	(10.0)	575	(10.1)	605	(9.9)
대구	918	(6.7)	737	(6.3)	352	(6.2)	385	(6.3)
대전	433	(3.2)	362	(3.1)	179	(3.2)	183	(3.0)
인천	844	(6.1)	730	(6.2)	356	(6.3)	374	(6.1)
광주	443	(3.2)	335	(2.8)	160	(2.8)	175	(2.9)
울산	329	(2.4)	303	(2.6)	143	(2.5)	160	(2.6)
경기	2,257	(16.4)	2,056	(17.5)	998	(17.6)	1,058	(17.4)
강원	350	(2.5)	295	(2.5)	141	(2.5)	154	(2.5)
충북	316	(2.3)	269	(2.3)	129	(2.3)	140	(2.3)
충남	355	(2.6)	321	(2.7)	153	(2.7)	168	(2.8)
전북	583	(4.2)	474	(4.0)	214	(3.8)	260	(4.3)
전남	340	(2.5)	299	(2.5)	142	(2.5)	157	(2.6)
경북	705	(5.1)	609	(5.2)	284	(5.0)	325	(5.3)
경남	816	(5.9)	706	(6.0)	352	(6.2)	354	(5.8)
제주	-		2	(0.0)	1	(0.0)	1	(0.0)
서울	3,720	(27.1)	3,087	(26.2)	1,491	(26.3)	1,596	(26.2)
광역시	4,296	(31.3)	3,647	(31.0)	1,765	(31.1)	1,882	(30.9)
도	5,722	(41.7)	5,031	(42.8)	2,414	(42.6)	2,617	(42.9)

<표 3-5> 연령별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

	전 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전 체	11,765 (100.0)	1,366 (100.0)	1,033 (100.0)	1,211 (100.0)	2,613 (100.0)	2,272 (100.0)	1,539 (100.0)	1,731 (100.0)
서울	3,087 (26.2) [100.0]	360 (26.4) [11.7]	275 (26.6) [ 8.9]	346 (28.6) [11.2]	674 (25.8) [21.8]	639 (28.1) [20.7]	418 (27.2) [13.5]	375 (21.7) [ 2.1]
광역시	3,647 (31.0) [100.0]	484 (35.4) [13.3]	336 (32.5) [ 9.2]	378 (31.2) [10.4]	738 (28.2) [20.2]	746 (32.8) [20.5]	483 (31.4) [13.2]	482 (27.8) [ 3.2]
도	5,031 (42.8) [100.0]	522 (38.2) [10.4]	422 (40.9) [ 8.2]	487 (40.2) [9.7]	1,201 (46.0) [23.9]	887 (39.0) [17.6]	638 (41.5) [12.7]	874 (50.5) [ 7.4]

주 : [ ] 안은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거주자 전체 중의 비중임.

### 제 3 절 건강상태

현재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부터 ‘매우 건강이 나쁘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sup>9)</sup> 응답자 중 26.8%가 ‘매우 건강하다’, 44.6%는 ‘건강한 편이다’에 속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75.5%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그보다 적은 67.6%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건강하다’를 5점으로, ‘매우 건강이 나쁘다’를 1점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전체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는 3.8점이다. 건강상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인 90.7%가 건강이 좋다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은 30.6%만이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속하였으며, ‘건강이 나쁜 편’이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3%이다.

<표 3-6>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

(단위 : 명, %)

		전 체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매우 건강이 나쁘다	평균 점수 <sup>1)</sup>
전 체		11,732 (100.0)	3,139 (26.8)	5,236 (44.6)	1,952 (16.6)	1,103 ( 9.4)	302 ( 2.6)	3.8
성별	남 성	5,652 (100.0)	1,648 (29.2)	2,618 (46.3)	829 (14.7)	415 ( 7.3)	142 ( 2.5)	3.9
	여 성	6,080 (100.0)	1,491 (24.5)	2,618 (43.1)	1,123 (18.5)	688 (11.3)	160 ( 2.6)	3.8
연령	15 ~ 29세	3,593 (100.0)	1,342 (37.4)	1,916 (53.3)	251 ( 7.0)	64 ( 1.8)	20 ( 0.6)	4.3
	30 ~ 39세	2,605 (100.0)	822 (31.6)	1,338 (51.4)	332 (12.7)	83 ( 3.2)	30 ( 1.2)	4.1
	40 ~ 49세	2,268 (100.0)	560 (24.7)	1,034 (45.6)	453 (20.0)	182 ( 8.0)	39 ( 1.7)	3.8
	50 ~ 59세	1,537 (100.0)	286 (18.6)	549 (35.7)	411 (26.7)	235 (15.3)	56 ( 3.6)	3.5
	60세 이상	1,729 (100.0)	129 (7.5)	399 (23.1)	505 (29.2)	539 (31.2)	157 ( 9.1)	2.9

주 : 건강상태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3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매우 건강하다’를 5점, ‘건강한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건강이 나쁜 편이다’ 2점, ‘건강이 매우 나쁘다’ 1점으로 하여 건강상태의 평균점수를 계산한 것임.

9)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즉 가구원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가구용 설문을 응답하는 사람(가구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가구주나 그 배우자)이 답하였으므로 응답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은 아니다.

## 경제활동상태

## 제 1 절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태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를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로 세분하였다. 응답자 중 취업자는 총 6,102명으로 전체의 51.9%이다. 이 중 임금근로자는 3,901명, 비임금근로자는 2,201명으로 각각 33.2%와 18.7%를 차지한다. 실업자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실업자는 4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7%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44.5%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13.2%이다.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인구의 취업자 비중은 64.1%인 반면, 여성은 그보다 23.6%포인트 낮은 40.5%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은 41.3%이며 여성은 25.6%이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은 22.8%, 여성은 14.9%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은 남성 4.9%이고 여성은 그보다 낮은 2.6%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에 76.4%, 30대 72.9%로 가장 높고 50대에는 64.8%를 유지하다가 60세 이상이 되면 28.6%로 떨어진다. 반면 실업자의 비중은 20대 초반에 7.6%로 가장 높고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20대 후반에 들어 낮아지기 시작하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8%로 떨어진다. 성별·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큰 차이가 없어 남성은 42.2%, 여성은 39.7%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8%에 달하나 여성은 46.2%에 머무른다.



<표 4-1> 인구학적 특성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sup>주)</sup>	
전 체		11,765 (100.0)	3,901 (33.2)	2,201 (18.7)	436 ( 3.7)	3,679 (31.3)	1,548 (13.2)	
성별	남 성	5,670 (100.0)	2,342 (41.3)	1,290 (22.8)	276 ( 4.9)	929 (16.4)	833 (14.7)	
	여 성	6,095 (100.0)	1,559 (25.6)	911 (14.9)	160 ( 2.6)	2,750 (45.1)	715 (11.7)	
연령	15~19세	1,366 (100.0)	117 ( 8.6)	2 ( 0.1)	28 ( 2.0)	116 ( 8.5)	1,103 (80.7)	
	20~24세	1,033 (100.0)	417 (40.4)	20 ( 1.9)	79 ( 7.6)	162 (15.7)	355 (34.4)	
	25~29세	1,211 (100.0)	586 (48.4)	98 ( 8.1)	60 ( 5.0)	390 (32.2)	77 ( 6.4)	
	30~39세	2,613 (100.0)	1,206 (46.2)	597 (22.8)	101 ( 3.9)	700 (26.8)	9 ( 0.3)	
	40~49세	2,272 (100.0)	938 (41.3)	714 (31.4)	83 ( 3.7)	534 (23.5)	3 ( 0.1)	
	50~59세	1,539 (100.0)	477 (31.0)	466 (30.3)	54 ( 3.5)	541 (35.2)	1 ( 0.1)	
	60세 이상	1,731 (100.0)	160 ( 9.2)	304 (17.6)	31 ( 1.8)	1,236 (71.4)	-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1,811 (100.0)	558 (30.8)	96 ( 5.3)	111 ( 6.1)	217 (12.0)	829 (45.8)
		기혼 유배우	3,685 (100.0)	1,732 (47.0)	1,161 (31.5)	157 ( 4.3)	631 (17.1)	4 ( 0.1)
		기혼 무배우	174 (100.0)	52 (29.9)	33 (19.0)	8 ( 4.6)	81 (46.6)	-
	여 성	미 혼	1,556 (100.0)	522 (33.5)	30 ( 1.9)	66 ( 4.2)	232 (14.9)	706 (45.4)
		기혼 유배우	3,739 (100.0)	884 (23.6)	768 (20.5)	77 ( 2.1)	2002 (53.5)	8 ( 0.2)
		기혼 무배우	800 (100.0)	153 (19.1)	113 (14.1)	17 ( 2.1)	516 (64.5)	1 ( 0.1)
교육 수준	무 학	793 (100.0)	90 (11.3)	122 (15.4)	11 ( 1.4)	570 (71.9)	-	
	고졸 미만	4,050 (100.0)	947 (23.4)	853 (21.1)	123 ( 3.0)	1,255 (31.0)	872 (21.5)	
	고 졸	3,876 (100.0)	1,540 (39.7)	845 (21.8)	189 ( 4.9)	1,302 (33.6)	-	
	대졸 미만	967 (100.0)	198 (20.5)	43 ( 4.4)	38 ( 3.9)	39 ( 4.0)	649 (67.1)	
	전문대졸	647 (100.0)	340 (52.6)	104 (16.1)	29 ( 4.5)	174 (26.9)	-	
	대졸 이상	1,432 (100.0)	786 (54.9)	234 (16.3)	46 ( 3.2)	339 (23.7)	27 ( 1.9)	

주 :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임.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4.4%로 가장 높다. 전문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보다 약간 낮은 73.1%이며 고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4%이다. 반면 실업자의 비중은 고졸자의 경우 4.9%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자의 경우가 4.5%이다.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의 분포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34.2%가 임금근로자이고 6.4%가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자는 전체 50.6%이다. 실업자의 비중은 서울 전체 인구의 4.1%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5.2%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인구는 전체의 13.2%이다. 광역시의 분포는 서울특별시와 비슷하며,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비중 모두 서울보다 약간 낮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서울보다 약간 높고, 특히 학생인구의 비중이 서울보다 높다. 도지역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은 54.4%로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높다. 도지역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지만 비임금근로자의 비율도 22.2%로 높다. 이는 도지역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6.1%로 서울(0.8%)이나 광역시(4.8%)보다 높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자영농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2> 현재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전 체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1,765 (100.0)	3,901 (33.2)	2,201 (18.7)	436 ( 3.7)	3,679 (31.3)	1,548 (13.2)
서울	3,087 (100.0)	1,057 (34.2)	507 (16.4)	126 ( 4.1)	989 (32.0)	408 (13.2)
부산	1,180 (100.0)	387 (32.8)	179 (15.2)	47 ( 4.0)	380 (32.2)	187 (15.8)
대구	737 (100.0)	260 (35.3)	116 (15.7)	32 ( 4.3)	216 (29.3)	113 (15.3)
대전	362 (100.0)	117 (32.3)	63 (17.4)	13 ( 3.6)	112 (30.9)	57 (15.7)
인천	730 (100.0)	267 (36.6)	114 (15.6)	21 ( 2.9)	227 (31.1)	101 (13.8)
광주	335 (100.0)	91 (27.2)	63 (18.8)	14 ( 4.2)	112 (33.4)	55 (16.4)
울산	303 (100.0)	103 (34.0)	42 (13.9)	10 ( 3.3)	99 (32.7)	49 (16.2)
경기	2,056 (100.0)	776 (37.7)	335 (16.3)	58 ( 2.8)	673 (32.7)	214 (10.4)
강원	295 (100.0)	82 (27.8)	54 (18.3)	21 ( 7.1)	102 (34.6)	36 (12.2)
충북	269 (100.0)	81 (30.1)	63 (23.4)	10 ( 3.7)	79 (29.4)	36 (13.4)
충남	321 (100.0)	88 (27.4)	99 (30.8)	7 ( 2.2)	100 (31.2)	27 ( 8.4)
전북	474 (100.0)	144 (30.4)	118 (24.9)	22 ( 4.6)	134 (28.3)	56 (11.8)
전남	299 (100.0)	84 (28.1)	78 (26.1)	6 ( 2.0)	93 (31.1)	38 (12.7)
경북	609 (100.0)	153 (25.1)	204 (33.5)	15 ( 2.5)	164 (26.9)	73 (12.0)
경남	706 (100.0)	211 (29.9)	165 (23.4)	34 ( 4.8)	198 (28.0)	98 (13.9)
제주	2 (100.0)	-	1 (50.0)	-	1 (50.0)	-
서울	3,087 (100.0)	1,057 (34.2)	507 (16.4)	126 ( 4.1)	989 (32.0)	408 (13.2)
광역시	3,647 (100.0)	1,225 (33.6)	577 (15.8)	137 ( 3.8)	1,146 (31.4)	562 (15.4)
도	5,031 (100.0)	1,619 (32.2)	1,117 (22.2)	173 ( 3.4)	1,544 (30.7)	578 (11.5)

## 제 2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각 조사가 이루어진 두 시점만을 기준으로 개인응답자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미취업자 비중의 감소와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즉 1차년도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미취업자의 비중은 개인응답자의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48.1%로 약 4%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취업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실업자의 비중이 1차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이와 대조적으로 3.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응답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비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자영업주 혹은 고용주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의 개인응답자 13,321명 가운데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동일한 응답자는 8,626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2차년도에 표본에서 이탈한 응답자를 제외한 11,237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76.8%에 이른다.

표본이탈률이 비교적 낮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두 조사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동일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1차년도 조사시의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73.8%(표본이탈자 제외시 83.7%)는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도 동일한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거나, 혹은 일자리가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비임금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다소 낮은 69.0%(표본이탈자 제외시 82.0%)의 응답자가 두 조사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에 비해 1차년도에 실업자로 분류되었던 응답자의 경우에는 두 조사시점 사이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실업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7%였으며, 취업상태로의 전환에 성공한 응답자는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2.7%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으며,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가운데 가장 높은 표본이탈률(18.4%)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전년도에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67.4%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응답자가 10%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경제활동상태 비교(1차년도, 2차년도)

(단위 : 명, %)

	1차년도(1998년)		2차년도(1999년)	
	인원(명)	구성비 <sup>1)</sup>	인원(명)	구성비 <sup>1)</sup>
전 체	13,321	100.0	11,765	100.0
임금근로자	4,012	30.1	3,901	33.2
정규직 <sup>2)</sup>	3,062	(23.0)	2,682	(22.9)
비정규직 <sup>2)</sup>	949	( 7.1)	1,159	( 9.9)
비임금근로자	2,415	18.1	2,201	18.7
자영업/고용주	1,886	(14.2)	1,681	(14.4)
가족종사자	529	(4.0)	520	( 4.4)
미취업자	6,894	51.8	5,663	48.1
실업자 <sup>3)</sup>	1,010	( 7.6)	436	( 3.7)
비경제활동인구	5,884	(44.2)	5,227	(44.7)

주 : 1) ( ) 안의 구성비는 개인응답자를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을 때의 각각의 비중임.

2)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비정규직의 분류가 불가능한 응답자(1차년도 1명, 2차년도 60명)가 누락되어 있음.

3) 실업자는 지난 한 주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표 4-4>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명, %)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전 체	13,321[100.0]	11,237 [표본유지율 : 84.4%]	
임금근로자	4,012(100.0) [30.1]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2,767 (69.0){82.0} 150 ( 3.7){ 4.4} 121 ( 3.0){ 3.6} 336 ( 8.4){10.0} 638 (15.9)
비임금근로자	2,415(100.0) [18.1]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142 ( 5.9){ 6.7} 1,783 (73.8){83.7} 33 ( 1.4){ 1.5} 172 ( 7.1){ 8.1} 285 (11.8)
실업자	1,010(100.0) [ 7.6]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324 (32.1){39.3} 62 ( 6.1){ 7.5} 108 (10.7){13.1} 330 (32.7){40.0} 186 (18.4)
비경제활동인구	5,884(100.0) [44.2]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601 (10.2){12.2} 188 ( 3.2){ 3.8} 152 ( 2.6){ 3.1} 3,968 (67.4){80.8} 975 (16.6)

주 : ( )는 1차년도 각각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한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및 표본이탈자의 구성비임. { }는 표본이탈자를 제외한 후 1차년도 각각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임. [ ]는 1차년도 개인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비임.

<표 4-5>를 보면,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모든 경제활동상태에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년도 조사시 임금근로자였던 경우를 제외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실업상태로 이동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1차년도 실업자의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실업상태가 계속된 응답자의 비중이 남성은 12.7%(표본이탈자 제외시 15.9%)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8.2%(표본이탈자 제외시 9.7%)로 낮은 수준이나, 이는 취업에 성공한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절반에 가까운 여성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1차년도에 미취업자였던 응답자의 2차년도 표본이탈률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9.0%포인트 높은 표본이탈률을 나타냈다.

<표 4-5> 성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명, %)

남 자				여 자			
1차년도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1차년도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전 체	6,469 [100.0]	5,348[표본유지율 : 82.7%]		전 체	6,852 [100.0]	5,889[표본유지율 : 85.9%]	
임금 근로자	2,531 [39.1]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1,814(71.7){84.8} 111( 4.4){ 5.2} 77( 3.0){ 3.6} 137( 5.4){ 6.4} 392(15.5)	임금 근로자	1,481 [21.6]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953(64.3){77.2} 39( 2.6){ 3.2} 44( 3.0){ 3.6} 199(13.4){16.1} 246(16.6)
비임금 근로자	1,411 [21.8]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86( 6.1){ 6.9} 1,061(75.2){85.5} 2( 2.1){ 2.3} 6( 4.6){ 5.2} 17(12.0)	비임금 근로자	1,004 [14.7]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56( 5.6){ 6.3} 722(71.9){81.2} 4( 0.4){ 0.4} 107(10.7){12.0} 115(11.5)
실업자	569 [8.8]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 표본이탈	196(34.4){43.3} 43( 7.6){ 9.5} 72(12.7){15.9} 142(25.0){31.3} 116(20.4)	실업자	441 [6.4]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활 표본이탈	128(29.0){34.5} 19( 4.3){ 5.1} 36( 8.2){ 9.7} 188(42.6){50.7} 70(15.9)
비경제 활동 인구	1,958 [30.3]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203(10.4){13.4} 59( 3.0){ 3.9} 80( 4.1){ 5.3} 1,173(59.9){77.4} 443(22.6)	비경제 활동 인구	3,926 [57.3]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표본이탈	398(10.1){11.7} 129( 3.3){ 3.8} 72( 1.8){ 2.1} 2,795(71.2){82.4} 532 (13.6)

주 : ( )는 1차년도 각각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한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 및 표본이탈자의 구성비임. { }는 표본이탈자를 제외한 후 1차년도 각각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임. [ ]는 1차년도 개인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비임.

### 제 3 절 취업자 특성

#### 1. 산업과 직업

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26.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광공업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41.7%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생산직이 3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표 4-6>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6,102 (100.0)	3,901(100.0)	2,201(100.0)
산업 <sup>1)</sup>	농림어업	530 ( 8.8)	47 ( 1.2)	483 (22.0)
	광공업	1,356 (22.4)	1,087 (28.2)	269 (12.3)
	건설업	500 ( 8.3)	399 (10.3)	101 ( 4.6)
	공익설비업	380 ( 6.3)	271 ( 7.0)	109 ( 5.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82 (26.1)	668 (17.3)	914 (41.7)
	금융 및 부동산업	602 (10.0)	502 (13.0)	100 ( 4.6)
	공공서비스업	1,103 (18.2)	888 (23.0)	215 ( 9.8)
직업 <sup>2)</sup>	전문관리직	1,213 (20.1)	957 (24.9)	256 (11.7)
	사무직	619 (10.3)	566 (14.7)	53 ( 2.4)
	서비스직	1,436 (23.8)	549 (14.3)	887 (40.5)
	농림어업직	515 ( 8.5)	34 ( 0.9)	481 (21.9)
	생산직	2,258 (37.4)	1,743 (45.3)	515 (23.5)

주 : 1) 농림어업에는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등을 포함.

공익설비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포함.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포함.

금융 및 부동산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을 포함.

분류불가 및 모름/무응답인 49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

군인 8명과 분류불가 및 모름/무응답인 53명은 분석에서 제외.

기능원을 포함한 생산직이 45.3%로 비중이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직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2.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분포

취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분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26.1%이며 그 다음이 광공업으로 22.4%를 차지한다.

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산업분포는 남성이 광공업에 24.1%, 여성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33.4% 차지하고 있다.

동일한 연령층에서 취업자들이 종사하는 산업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대와 40~50

<표 4-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 설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전 체		6,053(100.0)	530( 8.8)	1,356(22.4)	500( 8.3)	380( 6.3)	1,582(26.1)	602(10.0)	1,103(18.2)	
성 별	남 성	3,604(100.0)	286( 7.9)	869(24.1)	456(12.7)	333( 9.2)	765(21.2)	377(10.5)	518(14.4)	
	여 성	2,449(100.0)	244(10.0)	487(19.9)	44( 1.8)	47( 1.9)	817(33.4)	225( 9.2)	585(23.9)	
연 령	15~19세	114(100.0)	2( 1.8)	22(19.3)	2( 1.8)	3( 2.6)	42(36.8)	17(14.9)	26(22.8)	
	20~24세	426(100.0)	3( 0.7)	106(24.9)	19( 4.5)	15( 3.5)	110(25.8)	54(12.7)	119(27.9)	
	25~29세	682(100.0)	7( 1.0)	163(23.9)	52( 7.6)	38( 5.6)	159(23.3)	101(14.8)	162(23.8)	
	30~39세	1,794(100.0)	58( 3.2)	516(28.8)	158( 8.8)	119( 6.6)	480(26.8)	164( 9.1)	299(16.7)	
	40~49세	1,643(100.0)	94( 5.7)	387(23.6)	156( 9.5)	135( 8.2)	479(29.2)	127( 7.7)	265(16.1)	
	50~59세	934(100.0)	164(17.6)	139(14.9)	89( 9.5)	55( 5.9)	224(24.0)	88( 9.4)	175(18.7)	
	60세 이상	460(100.0)	202(43.9)	23( 5.0)	24( 5.2)	15( 3.3)	88(19.1)	51(11.1)	57(12.4)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641(100.0)	12( 1.9)	170(26.5)	62( 9.7)	40( 6.2)	169(26.4)	86(13.4)	102(15.9)
		기혼유배우	2,879(100.0)	266( 9.2)	681(23.7)	376(13.1)	281( 9.8)	582(20.2)	288(10.0)	405(14.1)
		기혼무배우	84(100.0)	8( 9.5)	18(21.4)	18(21.4)	12(14.3)	14(16.7)	3( 3.6)	11(13.1)
	여 성	미 혼	543(100.0)	1( 0.2)	104(19.2)	13( 2.4)	19( 3.5)	130(23.9)	75(13.8)	201(37.0)
		기혼유배우	1,645(100.0)	197(12.0)	357(21.7)	22( 1.3)	25( 1.5)	579(35.2)	134( 8.2)	331(20.1)
		기혼무배우	261(100.0)	46(17.6)	26(10.0)	9( 3.5)	3( 1.2)	108(41.4)	16( 6.1)	53(20.3)
교 육 수 준	무 학	209(100.0)	100(47.9)	14( 6.7)	10( 4.8)	1( 0.5)	44(21.1)	8( 3.8)	32(15.3)	
	고졸 미만	1,784(100.0)	320(17.9)	410(23.0)	157( 8.8)	89( 5.0)	502(28.1)	106( 5.9)	200(11.2)	
	고 졸	2,364(100.0)	96( 4.1)	626(26.5)	236(10.0)	187( 7.9)	724(30.6)	225( 9.5)	270(11.4)	
	대졸 미만	234(100.0)	-	39(16.7)	17( 7.3)	15( 6.4)	61(26.1)	35(15.0)	67(28.6)	
	전문대졸	442(100.0)	8( 1.8)	97(22.0)	26( 5.9)	35( 7.9)	83(18.8)	56(12.7)	137(31.0)	
	대졸 이상	1,020(100.0)	6( 0.6)	170(16.7)	54( 5.3)	53( 5.2)	168(16.5)	172(16.9)	397(38.9)	

주 : 산업이 분류불가인 49명은 분석에서 제외.

대 연령층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20대 초반 연령층은 공공서비스업에, 20대 후반과 30대는 광공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60세 이상은 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광공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미혼 남성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반면 배우자가 없는 기혼 남성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미혼인 경우 공공서비스업에, 기혼인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산업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무학인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47.9%에 달한다. 고졸 미만과 고졸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광공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졸 미만과 전문대졸, 대졸 이상은 모두 공공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3.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분포

취업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생산직으로서 37.4%를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생산직이, 여성은 서비스직이 가장 많다. 또한 직업별 성별 분포를 보면 전문관리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더 높고, 사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다.

취업자의 연령별 직업분포를 보면, 15~19세는 서비스직이, 20~24세는 사무직이, 25~29세는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많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생산직의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은 농림어업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직업분포를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생산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미혼인 경우에는 사무직에서, 기혼인 경우에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직업분포를 살펴본 결과, 무학인 경우에는 농림어업직이 가장 많고, 고졸 미만과 고졸은 생산직이, 대졸 미만 및 전문대졸 이상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4-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전 체		6,041 (100.0)	1,213 (20.1)	619 (10.3)	1,436 (23.8)	515 ( 8.5)	2,258 (37.4)	
성 별	남 성	3,594 (100.0)	796 (22.2)	288 ( 8.0)	612 (17.0)	275 ( 7.7)	1,623 (45.2)	
	여 성	2,447 (100.0)	417 (17.0)	331 (13.5)	824 (33.7)	240 ( 9.8)	635 (26.0)	
연 령	15 ~ 19세	115 (100.0)	16 (13.9)	32 (27.8)	37 (32.2)	1 ( 0.9)	29 (25.2)	
	20 ~ 24세	424 (100.0)	102 (24.1)	122 (28.8)	101 (23.8)	3 ( 0.7)	96 (22.6)	
	25 ~ 29세	677 (100.0)	232 (34.3)	137 (20.2)	114 (16.8)	6 ( 0.9)	188 (27.8)	
	30 ~ 39세	1,794 (100.0)	439 (24.5)	182 (10.1)	413 (23.0)	53 ( 3.0)	707 (39.4)	
	40 ~ 49세	1,639 (100.0)	265 (16.2)	108 ( 6.6)	462 (28.2)	87 ( 5.3)	717 (43.8)	
	50 ~ 59세	932 (100.0)	118 (12.7)	36 ( 3.9)	231 (24.8)	163 (17.5)	384 (41.2)	
	60세 이상	460 (100.0)	41 ( 8.9)	2 ( 0.4)	78 (17.0)	202 (43.9)	137 (29.8)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637 (100.0)	162 (25.4)	66 (10.4)	116 (18.2)	11 ( 1.7)	282 (44.3)
		기혼유배우	2,873 (100.0)	623 (21.7)	222 ( 7.7)	486 (16.9)	257 ( 9.0)	1,285 (44.7)
		기혼무배우	84 (100.0)	11 (13.1)	-	10 (11.9)	7 ( 8.3)	56 (66.7)
	여 성	미 혼	543 (100.0)	177 (32.6)	201 (37.0)	119 (21.9)	-	46 ( 8.5)
		기혼유배우	1,642 (100.0)	228 (13.9)	127 ( 7.7)	598 (36.4)	194 (11.8)	495 (30.2)
		기혼무배우	262 (100.0)	12 ( 4.6)	3 ( 1.2)	107 (40.8)	46 (17.6)	94 (35.9)
교 육 수 준	무 학	209 (100.0)	1 ( 0.5)	-	37 (17.7)	100 (47.9)	71 (34.0)	
	고졸 미만	1,782 (100.0)	51 ( 2.9)	34 ( 1.9)	493 (27.7)	311 (17.5)	893 (50.1)	
	고 졸	2,359 (100.0)	267 (11.3)	298 (12.6)	663 (28.1)	92 ( 3.9)	1,039 (44.0)	
	대졸 미만	234 (100.0)	67 (28.6)	51 (21.8)	61 (26.1)	-	55 (23.5)	
	전문대졸	442 (100.0)	171 (38.7)	84 (19.0)	77 (17.4)	8 ( 1.8)	102 (23.1)	
	대졸 이상	1,015 (100.0)	656 (64.6)	152 (15.0)	105 (10.3)	4 ( 0.4)	98 ( 9.7)	

주: 군인이나 직업이 분류불가인 61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기업체 종류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기업체 종류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 보았다. 민간회사가 73.7%로 기업체 종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눈 다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체 종류별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민간회사의 경우 고졸 출신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외 기업체에서는 대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한국노동패널과 비교했을 때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들 중 연령별 분포에서 20대 후반은 1.5%포인트, 50대는 3.5%포인트, 60세 이상은 7.6%포인트 증가했으며 교육 수준별 분포에서도 무학 2.9%포인트, 고졸 미만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9>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업체 종류

(단위 : 명, %)

		전 체	민간회사	외국인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기 타	
전 체		3,814(100.0)	2,810(73.7)	29( 0.8)	137( 3.6)	150( 3.9)	416(10.9)	272( 7.1)	
성 별	남 성	2,288(100.0)	1,674(73.2)	18( 0.8)	93( 4.1)	78( 3.4)	260(11.4)	165( 7.2)	
	여 성	1,526(100.0)	1,136(74.4)	11( 0.7)	44( 2.9)	72( 4.7)	156(10.2)	107( 7.0)	
연 령	15~19세	113(100.0)	100(88.5)	-	2( 1.8)	4( 3.5)	1( 0.9)	6( 5.3)	
	20~24세	405(100.0)	334(82.5)	6( 1.5)	10( 2.5)	18( 4.4)	23( 5.7)	14( 3.5)	
	25~29세	579(100.0)	463(80.0)	5( 0.9)	25( 4.3)	31( 5.4)	45( 7.8)	10( 1.7)	
	30~39세	1,188(100.0)	896(75.4)	15( 1.3)	52( 4.4)	41( 3.5)	114( 9.6)	70( 5.9)	
	40~49세	917(100.0)	651(71.0)	2( 0.2)	38( 4.1)	32( 3.5)	116(12.7)	78( 8.5)	
	50~59세	458(100.0)	273(59.6)	1( 0.2)	8( 1.8)	18( 3.9)	97(21.2)	61(13.3)	
	60세 이상	154(100.0)	93(60.4)	-	2( 1.3)	6( 3.9)	20(13.0)	33(21.4)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542(100.0)	461(85.1)	6( 1.1)	11( 2.0)	14( 2.6)	30( 5.5)	20( 3.7)
		기혼유배우	1,696(100.0)	1,180(69.6)	12( 0.7)	81( 4.8)	62( 3.7)	227(13.4)	134( 7.9)
		기혼무배우	50(100.0)	33(66.0)	-	1( 2.0)	2( 4.0)	3( 6.0)	11(22.0)
	여 성	미 혼	512(100.0)	404(78.9)	7( 1.4)	21( 4.1)	33( 6.5)	34( 6.6)	13( 2.5)
		기혼유배우	869(100.0)	636(73.2)	4( 0.5)	20( 2.3)	37( 4.3)	101( 11.6)	71( 8.2)
		기혼무배우	145(100.0)	96(66.2)	-	3( 2.1)	2( 1.4)	21( 14.5)	23(15.9)
교 육 수 준	무 학	87(100.0)	46(52.9)	-	2( 2.3)	-	17( 19.5)	22(25.3)	
	고졸 미만	917(100.0)	705(76.9)	1( 0.1)	9( 1.0)	11( 1.2)	67( 7.3)	124(13.5)	
	고 졸	1,513(100.0)	1,247(82.4)	6( 0.4)	39( 2.6)	36( 2.4)	102( 6.7)	83( 5.5)	
	대졸 미만	190(100.0)	138(72.6)	-	11( 5.8)	7( 3.7)	16( 8.4)	18( 9.5)	
	전문대졸	332(100.0)	243(73.2)	5( 1.5)	14( 4.2)	22( 6.6)	45(13.6)	3( 0.9)	
	대졸 이상	3,814(100.0)	431(55.6)	17( 2.2)	62( 8.0)	74( 9.6)	169(21.8)	22( 2.8)	

주: 민간회사에는 민간회사와 개인사업체 등을 포함.  
 · 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등을 포함.  
 · 법인단체에는 재단 및 사단 법인단체를 포함.  
 · 정부기관에는 군인, 공무원 등을 포함.  
 · 기타에는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87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자영업자 혼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로서 전체의 28.6%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별 분포에 따른 사업체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집단에서는 종업원수가 1~4인으로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20대에 들어서는 10~49인 규모가 가장 많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 혼자서 경영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별로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까지는 자영업자 혼자서 경영하는 경우,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1~4인 이하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10~49인 이하인 경우, 대졸 이상에서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들에게 자신이 종사하는 사업체에 노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1~4인 사업체의 경우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모름/무응답의 비중이 65.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조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

		전 체	0인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모름/무응답
전 체		5,425(100.0)	1,552(28.6)	986(18.2)	465( 8.6)	912(16.8)	241( 4.4)	406( 7.5)	596(11.0)	267( 4.9)
성 별	남 성	3,222(100.0)	855(26.5)	544(16.9)	277( 8.6)	582(18.1)	173( 5.4)	273( 8.5)	391(12.1)	116( 3.6)
	여 성	2,203(100.0)	697(31.6)	442(20.1)	188( 8.5)	330(15.0)	68( 3.1)	133( 6.0)	205( 9.3)	135( 6.1)
연 령	15~19세	108(100.0)	-	29(26.9)	19(17.6)	21(19.4)	3( 2.8)	13(12.0)	14(13.0)	9( 8.3)
	20~24세	393(100.0)	13( 3.3)	68(17.3)	44(11.2)	98(24.9)	21( 5.3)	50(12.7)	70(17.8)	29( 7.4)
	25~29세	630(100.0)	65(10.3)	98(15.6)	82(13.0)	144(22.9)	38( 6.0)	55( 8.7)	111(17.6)	36( 5.7)
	30~39세	1,626(100.0)	365(22.5)	337(20.7)	132( 8.1)	273(16.8)	77( 4.7)	130( 8.0)	223(13.7)	85( 5.2)
	40~49세	1,464(100.0)	471(32.2)	300(20.5)	131( 9.0)	210(14.3)	64( 4.4)	110( 7.5)	129( 8.8)	45( 3.1)
	50~59세	793(100.0)	365(46.0)	113(14.3)	46( 5.8)	119(15.0)	31( 3.9)	40( 5.0)	39( 4.9)	33( 4.2)
	60세 이상	411(100.0)	273(66.4)	41(10.0)	11( 2.7)	47(11.4)	7( 1.7)	8( 2.0)	10( 2.4)	14( 3.4)
교육수준	무 학	171(100.0)	118(69.0)	11(6.4)	13( 7.6)	18(10.5)	1( 0.6)	3( 1.8)	2( 1.2)	5( 2.9)
	고졸미만	1,613(100.0)	730(45.3)	278(17.2)	123( 7.6)	223(13.8)	54( 3.4)	67( 4.2)	73( 4.5)	65( 4.0)
	고 졸	2,195(100.0)	553(25.2)	442(20.1)	196( 8.9)	385(17.5)	102( 4.7)	185( 8.4)	232(10.6)	100( 4.6)
	대졸미만	205(100.0)	28(13.7)	46(22.4)	21(10.2)	34(16.6)	9( 4.4)	24(11.7)	32(15.6)	11( 5.4)
	전문대졸	396(100.0)	57(14.4)	67(16.9)	38( 9.6)	90(22.7)	22( 5.6)	45(11.4)	58(14.7)	19( 4.8)
	대졸이상	845(100.0)	82( 9.7)	142(16.8)	74( 8.8)	162(19.2)	53( 6.3)	82( 9.7)	199(23.6)	51( 6.0)

주: 임금을 받는 종업원수만 고려한 것임.

## 5. 부 업

취업자 집단에서 주업 이외의 활동인 부업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50명으로서 전체 취업자의 2.5%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대답을 전반적인 취업자들의 특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취업자 집단 중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은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가 더 많다. 부업이 있는 취업자 집단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업의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30~50대까지의 연령층이 부업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부업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자는 주당 19.1시간이고 비임금근로자는 주당 20.8시간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주당 1.7시간 더 길게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남·여 성별 구분 없이 20~40시간 미만 정도 부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미혼 남성은 10시간 미만으로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반면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20~40시간 미만으로 부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부업

(단위 : 명, %)

		부업 있음	
전 체		150 (2.5)	
취업자	임금근로자	57 (1.5)	
	비임금근로자	93 (4.2)	
성 별	남 성	96 (2.6)	
	여 성	54 (2.2)	
연 령	15~19세	-	
	20~24세	4 (0.9)	
	25~29세	5 (0.7)	
	30~39세	40 (2.2)	
	40~49세	40 (2.4)	
	50~59세	39 (4.1)	
	60세 이상	22 (4.7)	
혼인상태	남 성	미 혼	7 (1.1)
		기혼 유배우	87 (3.0)
		기혼 무배우	2 (2.4)
	여 성	미 혼	5 (0.9)
		기혼 유배우	40 (2.4)
		기혼 무배우	9 (3.4)
교육수준	무 학	13 (6.1)	
	고졸 미만	63 (3.5)	
	고 졸	41 (1.7)	
	대졸 미만	2 (0.8)	
	전문대졸	7 (1.6)	
	대졸 이상	24 (2.4)	

<표 4-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명, %)

		전 체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 체		126 (100.0)	27 (21.4)	26 (20.6)	54 (42.9)	19 (15.1)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3 (100.0)	17 (32.1)	9 (17.0)	21 (39.6)	6 (11.3)	
	비임금근로자	73 (100.0)	10 (13.7)	17 (23.3)	33 (45.2)	13 (17.8)	
성 별	남 성	80 (100.0)	14 (17.5)	21 (26.3)	34 (42.5)	11 (13.8)	
	여 성	46 (100.0)	13 (28.3)	5 (10.9)	20 (43.5)	8 (17.4)	
연 령	15~19세	-	-	-	-	-	
	20~24세	4 (100.0)	4 (100.0)	-	-	-	
	25~29세	5 (100.0)	3 (60.0)	1 (20.0)	1 (20.0)	-	
	30~39세	40 (100.0)	13 (32.5)	5 (12.5)	16 (40.0)	6 (15.0)	
	40~49세	40 (100.0)	15 (37.5)	7 (17.5)	11 (27.5)	7 (17.5)	
	50~59세	39 (100.0)	7 (18.0)	9 (23.1)	19 (48.7)	4 (10.3)	
	60세 이상	22 (100.0)	9 (40.9)	4 (18.2)	7 (31.8)	2 ( 9.1)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7 (100.0)	4 (57.1)	1 (14.3)	-	2 (28.6)
		기혼유배우	87 (100.0)	24 (27.6)	20 (23.0)	34 (39.1)	9 (10.3)
		기혼무배우	2 (100.0)	2 (100.0)	-	-	-
	여 성	미 혼	5 (100.0)	3 (60.0)	-	2 (40.0)	-
		기혼유배우	40 (100.0)	16 (40.0)	4 (10.0)	14 (35.0)	6 (15.0)
		기혼무배우	9 (100.0)	2 (22.2)	1 (11.1)	4 (44.4)	2 (22.2)
교 육 수 준	무 학	9 (100.0)	-	3 (33.1)	3 (33.1)	3 (33.1)	
	고졸 미만	51 (100.0)	8 (15.7)	13 (25.5)	26 (51.1)	4 ( 7.8)	
	고 졸	36 (100.0)	4 (11.1)	6 (16.7)	18 (50.0)	8 (22.2)	
	대졸 미만	2 (100.0)	1 (50.0)	-	1 (50.0)	-	
	전문대졸	7 (100.0)	4 (57.1)	2 (28.6)	1 (14.3)	-	
	대졸 이상	21 (100.0)	10 (47.6)	2 ( 9.5)	5 (23.8)	4 (19.1)	

주 : 부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지난 주 부업에 종사한 근로시간이 0시간인 22명과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임시/일용의 종사상 지위로 구분이 되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동패널에서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응답자 스스로가 정규-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 제 1 절 근로계약과 종사상 지위

#### 1. 근로계약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해진 기간 없이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5-1>을 보면, 2차년도 임금근로자 가운데 94.3%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5.7%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고용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2%포인트 하락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평균 계약기간은 9.7개월이었으며, 6개월 이하가 53.4%, 6~12개월 이하가 33.8%로 대부분 1년 이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유무 비교(1차년도, 2차년도)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1차 <sup>1)</sup> (’98)	179 (4.5)	3,831 (95.5)	106 (4.2)	2,424 (95.8)	73 (4.9)	1,407 (95.1)
2차 <sup>2)</sup> (’99)	220 (5.7)	3,633 (94.3)	116 (5.0)	2,195 (95.0)	104 (6.7)	1,438 (93.3)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고용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유배우자,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전문대졸에서 평균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여성은 근로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6.7%로 남성(5.0%)보다 다소 높았다.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5.1개월 더 긴 12.2개월로 나타나, 보다 안정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의 준고령층과 20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계약기간은 20대 초반 및 30대에서 평균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으나, 평균 계약기간은 8.9개월로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혼 유배우, 미혼, 기혼 무배우의 순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기혼 무배우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혼인상태 및 1차년도 조사결과와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여성 기혼 무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저학력·고연령층의 비중이 높으며, 평균 고용계약기간도 3.5개월에 그치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응답자 중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약 70%의 응답자가 재학생 및 휴학생인 대졸 미만 집단에서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고졸 및 전문대졸자의 경우 약 97%에 이르는 응답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고용계약기간은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로계약기간 유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공공근로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서비스업이며, 가장 낮게 나타난 산업은 광공업이다. 계약기간은 광공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익설비업 부분에서 평균 14개월을 상회하는 반면, 일용직 단순노무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은 3.9개월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생산직과 농림어업직이었으며,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3%만이 계약기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평균계약기간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평균 1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경우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1차 조사시 7.7%에서 2차 조사에서는 20.0%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근로 참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2개월로 조사되었다.<sup>10)</sup> 공기업과 법인단체도 응답자의 10% 이상이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 종사자의 약 97%는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 5-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계약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평균계약기간(월)			
전 체		3,853(100.0)	220( 5.7)	9.7	3,633(94.3)	
성별	남 성	2,311(100.0)	116( 5.0)	12.2	2,195(95.0)	
	여 성	1,542(100.0)	104( 6.7)	7.1	1,438(93.3)	
연령	15 ~ 19세	113(100.0)	10( 8.8)	9.3	103(91.2)	
	20 ~ 24세	408(100.0)	22( 5.4)	13.4	386(94.6)	
	25 ~ 29세	584(100.0)	31( 5.3)	10.0	553(94.7)	
	30 ~ 39세	1,199(100.0)	49( 4.1)	12.2	1,150(95.9)	
	40 ~ 49세	927(100.0)	34( 3.7)	8.9	893(96.3)	
	50 ~ 59세	464(100.0)	53(11.4)	7.6	411(88.6)	
	60세 이상	158(100.0)	21(13.3)	6.6	137(86.7)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546(100.0)	33( 6.0)	13.2	513(94.0)
		기혼유배우	1,714(100.0)	79( 4.6)	11.9	1,635(95.4)
		기혼무배우	51(100.0)	4( 7.8)	8.8	47(92.2)
	여 성	미 혼	516(100.0)	30( 5.8)	8.6	486(94.2)
		기혼유배우	878(100.0)	47( 5.4)	8.1	831(94.6)
		기혼무배우	148(100.0)	27(18.2)	3.5	121(81.8)
교육 수준	무 학	89(100.0)	18(20.2)	2.5	71(79.8)	
	고졸 미만	931(100.0)	73( 7.8)	6.2	858(92.2)	
	고 졸	1,523(100.0)	47( 3.1)	9.8	1,476(96.9)	
	대졸 미만	191(100.0)	20(10.5)	6.9	171(89.5)	
	전문대졸	336(100.0)	11( 3.3)	15.7	325(96.7)	
	대졸 이상	783(100.0)	51( 6.5)	17.3	732(93.5)	

주: 근로계약이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0)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다고 응답한 정부기관 종사자 가운데 약 75%가 공공근로 참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평균 계약기간은 법인단체 및 민간기업이 타기업형태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계약기간의 분포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계약기간은 50~99인,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각각 18.0개월, 15.5개월로 가장 길고, 5~9인 규모에서 3.8개월로 가장 짧다.

<표 5-3>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근로 계약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평균계약기간(월)		
전 체		3,853(100.0)	220( 5.7)	9.7	3,633(94.3)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6(100.0)	4( 8.7)	9.5	42( 91.3)
	광공업	1,087(100.0)	18( 1.7)	14.9	1,069( 98.3)
	건설업	397(100.0)	17( 4.3)	3.9	380( 95.7)
	공익설비업	270(100.0)	9( 3.3)	14.3	261( 96.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7(100.0)	16( 2.4)	8.6	641( 97.6)
	금융 및 부동산업	501(100.0)	30( 6.0)	14.5	471( 94.0)
	공공서비스업	886(100.0)	126(14.2)	8.5	760( 85.8)
직업 <sup>2)</sup>	전문관리직	952(100.0)	51( 5.4)	18.1	901( 94.6)
	사무직	566(100.0)	24( 4.2)	12.0	542( 95.8)
	서비스직	541(100.0)	16( 3.0)	7.6	525( 97.0)
	농림어업직	33(100.0)	3( 9.1)	8.7	30( 90.9)
	생산직	1,739(100.0)	126( 7.2)	6.3	1,613( 92.8)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10(100.0)	89( 3.2)	11.9	2,721( 96.8)
	외국인회사	29(100.0)	1( 3.4)	12.0	28( 96.6)
	공기업	137(100.0)	16(11.7)	9.0	121( 88.3)
	법인단체	150(100.0)	16(10.7)	20.3	134( 89.3)
	정부기관	416(100.0)	83(20.0)	6.2	333( 80.0)
	기 타	272(100.0)	13( 4.8)	4.6	259( 95.2)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966(100.0)	116( 3.9)	12.0	2,850( 96.1)
	1~4인	489(100.0)	10( 2.0)	9.1	479( 98.0)
	5~9인	382(100.0)	11( 2.9)	3.8	371( 97.1)
	10~49인	856(100.0)	35( 4.1)	10.1	821( 95.9)
	50~99인	240(100.0)	13( 5.4)	18.0	227( 94.6)
	100~499인	405(100.0)	11( 2.7)	10.1	394( 97.3)
	500인 이상	594(100.0)	36( 6.1)	15.5	558( 93.9)

주: 근로계약이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39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7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2차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7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7.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4.9%포인트, 2.5%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2%포인트 높다. 전년도 조사에서 남성의 상용직 비중이 여성보다 8.3%포인트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다소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과 같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특히 임시직 비중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1차년도, 2차년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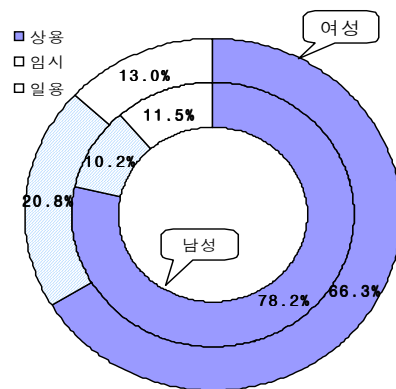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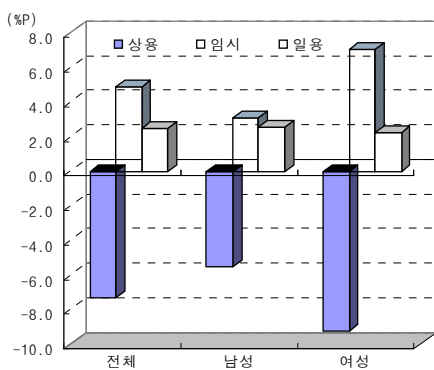
	전 체			남 성			여 성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1차 <sup>1)</sup> (’98)	3,236 (80.8)	385 (9.6)	386 (9.6)	2,119 (83.8)	182 (7.2)	227 (9.0)	1,117 (75.5)	203 (13.7)	159 (10.8)
2차 <sup>2)</sup> (’99)	2,819 (73.4)	555 (14.5)	464 (12.1)	1,802 (78.2)	236 (10.2)	265 (11.5)	1,017 (66.3)	319 (20.8)	199 (13.0)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6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5-1] 전년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중의 변화

[그림 5-2] 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2차년도)



<표 5-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3,838(100.0)	2,819(73.4)	555(14.5)	464(12.1)	
성별	남 성	2,303(100.0)	1,802(78.2)	236(10.2)	265(11.5)	
	여 성	1,535(100.0)	1,017(66.3)	319(20.8)	199(13.0)	
연령	15 ~ 19세	113(100.0)	55(48.7)	48(42.5)	10( 8.8)	
	20 ~ 24세	407(100.0)	314(77.1)	77(18.9)	16( 3.9)	
	25 ~ 29세	581(100.0)	476(81.9)	79(13.6)	26( 4.5)	
	30 ~ 39세	1,195(100.0)	941(78.7)	120(10.0)	134(11.2)	
	40 ~ 49세	923(100.0)	673(72.9)	124(13.4)	126(13.7)	
	50 ~ 59세	463(100.0)	294(63.5)	69(14.9)	100(21.6)	
	60세 이상	156(100.0)	66(42.3)	38(24.4)	52(33.3)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545(100.0)	404(74.1)	99(18.2)	42( 7.7)
		기혼 유배우	1,707(100.0)	1,373(80.4)	129( 7.6)	205(12.0)
		기혼 무배우	51(100.0)	25(49.0)	8(15.7)	18(35.3)
	여 성	미 혼	515(100.0)	404(78.4)	96(18.6)	15( 2.9)
		기혼 유배우	873(100.0)	555(63.6)	177(20.3)	141(16.2)
		기혼 무배우	147(100.0)	58(39.5)	46(31.3)	43(29.3)
교육 수준	무 학	88(100.0)	26(29.5)	25(28.4)	37(42.0)	
	고졸 미만	927(100.0)	512(55.2)	178(19.2)	237(25.6)	
	고 졸	1,519(100.0)	1,171(77.1)	191(12.6)	157(10.3)	
	대졸 미만	191(100.0)	106(55.5)	67(35.1)	18( 9.4)	
	전문대졸	334(100.0)	306(91.6)	23( 6.9)	5( 1.5)	
	대졸 이상	779(100.0)	698(89.6)	71( 9.1)	10( 1.3)	

주: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6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의 상용직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 준고령층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임시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남녀 모두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집단에서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미혼인 경우 78.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용직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졸 이상에 비해 전문대졸의 상용직 비중이 다소 높는데, 특히 대졸 이상의 여성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81.0%로 전문대졸(9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학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임시직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공익설비업, 금융 및 부동산업, 광공업 부문의 상용직 비중이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서비스업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과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용직의 비중은 30%대에 불과하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는 제조업 부문 종사자가 32.2%,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22.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 종사자가 각각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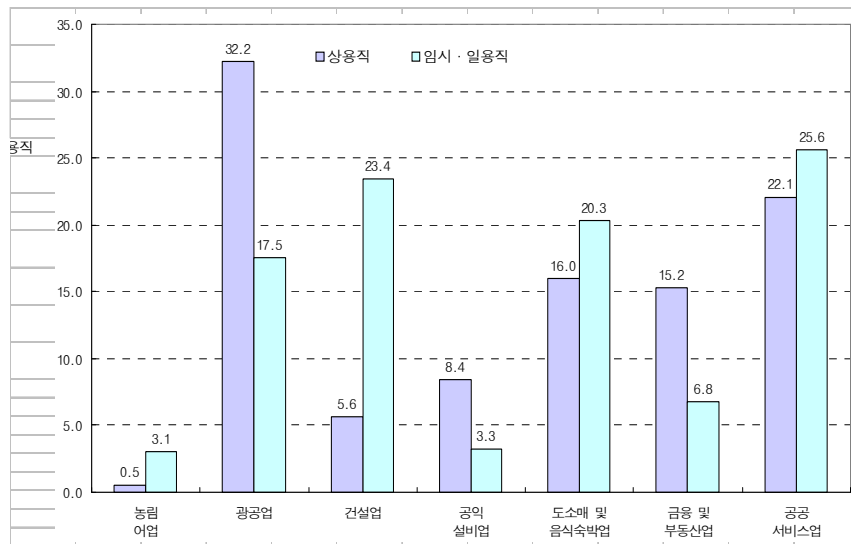
직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보면,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에서는 종사자의 약 90%가 상용직으로 여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직에서는 임시근로자(25.7%)의 비중이, 농림어업직 및 생산직에서는 일용근로자(62.5%, 21.6%)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회사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었으며, 법인단체 및 공기업의 상용직 비중도 각각 85.3%, 82.5%로 조사되어 타기업형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임시직 비중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정부기관, 민간기업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 간의 분포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3] 산업별 취업자 분포(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단위 : %)



<표 5-6>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3,838(100.0)	2,819(73.4)	555(14.5)	464(12.1)
산 업 <sup>1)</sup>	농림어업	45(100.0)	14(31.3)	10(22.2)	21(46.7)
	광공업	1,084(100.0)	906(83.6)	109(10.1)	69( 6.4)
	건설업	396(100.0)	158(39.9)	47(11.9)	191(48.2)
	공익설비업	270(100.0)	237(87.8)	21( 7.8)	12( 4.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5(100.0)	449(68.5)	139(21.2)	67(10.2)
	금융 및 부동산업	498(100.0)	429(86.1)	51(10.2)	18( 3.6)
	공공서비스업	881(100.0)	621(70.5)	177(20.1)	83( 9.4)
직 업 <sup>2)</sup>	전문관리직	945(100.0)	846(89.5)	93( 9.8)	6( 0.6)
	사무직	565(100.0)	513(90.8)	40( 7.1)	12( 2.1)
	서비스직	541(100.0)	351(64.9)	139(25.7)	51( 9.4)
	농림어업직	32(100.0)	5(15.6)	7(21.9)	20(62.5)
	생산직	1,735(100.0)	1,085(62.5)	276(15.9)	374(21.6)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09(100.0)	2,165(77.1)	384(13.7)	260( 9.3)
	외국인회사	29(100.0)	28(96.6)	1( 3.4)	-
	공기업	137(100.0)	113(82.5)	20(14.6)	4( 2.9)
	법인단체	150(100.0)	128(85.3)	19(12.7)	3( 2.0)
	정부기관	415(100.0)	315(75.9)	61(14.7)	39( 9.4)
	기 타	272(100.0)	60(22.1)	64(23.5)	148(54.4)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952(100.0)	2,332(79.0)	388(13.1)	232( 7.9)
	1~4인	482(100.0)	287(59.5)	127(26.3)	68(14.1)
	5~9인	380(100.0)	265(69.7)	63(16.6)	52(13.7)
	10~49인	853(100.0)	682(80.0)	90(10.6)	81( 9.5)
	50~99인	240(100.0)	208(86.7)	18( 7.5)	14( 5.8)
	100~499인	403(100.0)	362(89.8)	32( 7.9)	9( 2.2)
500인 이상	594(100.0)	528(88.9)	58( 9.8)	8( 1.3)	

주: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6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0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26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6명은 분석에서 제외.

## 제 2 절 근로시간 형태

임금근로자를 근로시간 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며,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이 1.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의 연령대, 대졸 미만, 금융 및 부동산 산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비교(1차년도, 2차년도)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1차 <sup>1)</sup> (’98)	478 (11.9)	3,530 (88.1)	194 (7.7)	2,335 (92.3)	284 (19.2)	1,195 (80.8)
2차 <sup>2)</sup> (’99)	387 (10.1)	3,449 (89.9)	122 (5.3)	2,180 (94.7)	265 (17.3)	1,269 (82.7)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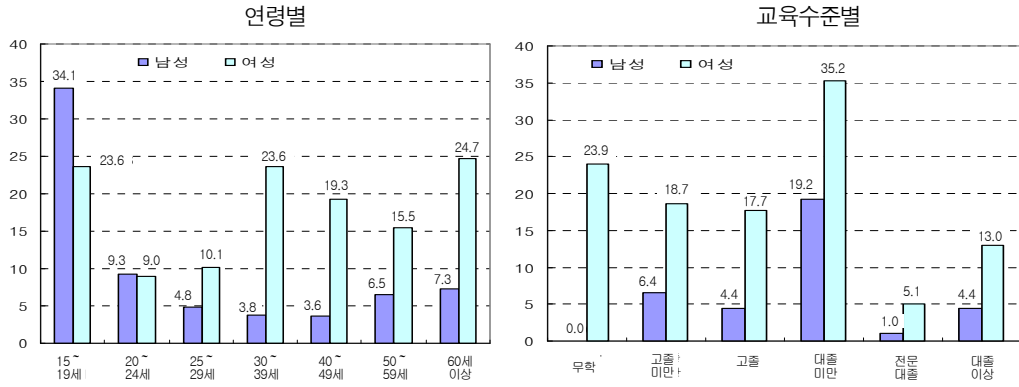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6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전일제 근로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근로시간 형태는 연령 집단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의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25~50세 미만까지 95%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과 달리, 여성은 20대의 90%를 정점으로 30대 76.4%, 40대 80.7%로 하락한다. 이는 [그림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40대에 가사 및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함을 의미한다.

전체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의 전일제 비중이 93.1%로 가장 높고,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현저히 하락하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90% 내외의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5-4]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단위 : %)



<표 5-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3,836(100.0)	387(10.1)	3,449(89.9)	
성별	남 성	2,302(100.0)	122( 5.3)	2,180(94.7)	
	여 성	1,534(100.0)	265(17.3)	1,269(82.7)	
연령	15~19세	113(100.0)	31(27.4)	82(72.6)	
	20~24세	407(100.0)	37( 9.1)	370(90.9)	
	25~29세	581(100.0)	40( 6.9)	541(93.1)	
	30~39세	1,194(100.0)	120(10.1)	1,074(89.9)	
	40~49세	923(100.0)	92(10.0)	831(90.0)	
	50~59세	463(100.0)	43( 9.3)	420(90.7)	
	60세 이상	155(100.0)	24(15.5)	131(84.5)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545(100.0)	46( 8.4)	499(91.6)
		기혼 유배우	1,706(100.0)	68( 4.0)	1,638(96.0)
		기혼 무배우	51(100.0)	8(15.7)	43(84.3)
	여 성	미 혼	515(100.0)	58(11.3)	457(88.7)
		기혼 유배우	873(100.0)	177(20.3)	696(79.7)
		기혼 무배우	146(100.0)	30(20.5)	116(79.5)
교육 수준	무 학	88(100.0)	17(19.3)	71(80.7)	
	고졸 미만	927(100.0)	115(12.4)	812(87.6)	
	고 졸	1,519(100.0)	144( 9.5)	1,375(90.5)	
	대졸 미만	191(100.0)	48(25.1)	143(74.9)	
	전문대졸	334(100.0)	9( 2.7)	325(97.3)	
	대졸 이상	777(100.0)	54( 6.9)	723(93.1)	

주: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6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혼인상태별로는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여성의 경우 미혼자의 전일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는 20% 이상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혼인상태별 범주 가운데 시간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근로시간 형태를 보면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임금근로자의 97.3%가 전일제로 일하

<표 5-9>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3,836(100.0)	387(10.1)	3,449(89.9)
산 업 <sup>1)</sup>	농림어업	45(100.0)	4( 8.9)	41(91.1)
	광공업	1,085(100.0)	79( 7.3)	1,006(92.7)
	건설업	395(100.0)	25( 6.3)	370(93.7)
	공익설비업	270(100.0)	11( 4.1)	259(95.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5(100.0)	104(15.9)	551(84.1)
	금융 및 부동산업	496(100.0)	41( 8.3)	455(91.7)
	공공서비스업	881(100.0)	122(13.8)	759(86.2)
직 업 <sup>2)</sup>	전문관리직	943(100.0)	90( 9.5)	853(90.5)
	사무직	565(100.0)	23( 4.1)	542(95.9)
	서비스직	541(100.0)	90(16.6)	451(83.4)
	농림어업직	32(100.0)	3( 9.4)	29(90.6)
	생산직	1,733(100.0)	180(10.4)	1,553(89.6)
기업체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10(100.0)	271( 9.6)	2,539(90.4)
	외국인회사	29(100.0)	2( 6.9)	27(93.1)
	공기업	137(100.0)	6( 4.4)	131(95.6)
	법인단체	150(100.0)	11( 7.3)	139(92.7)
	정부기관	415(100.0)	19( 4.6)	396(95.4)
	기 타	272(100.0)	74(27.2)	198(72.8)
	소 계	2,952(100.0)	264( 8.9)	2,688(91.1)
사업체규모 <sup>4)</sup>	1~4인	483(100.0)	86(17.8)	397(82.2)
	5~9인	380(100.0)	42(11.1)	338(88.9)
	10~49인	853(100.0)	60( 7.0)	793(93.0)
	50~99인	240(100.0)	16( 6.7)	224(93.3)
	100~499인	403(100.0)	22( 5.5)	381(94.5)
	500인 이상	593(100.0)	38( 6.4)	555(93.6)

주: 근로시간 형태가 무응답인 6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23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4명은 분석에서 제외.



고 있다고 응답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은 이보다 다소 낮은 93.1%가 전일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및 휴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대졸 미만 임금근로자는 시간제의 비중이 25.1%로 타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산업별로는 공익설비업, 건설업 부문의 전일제 비중이 각각 95.9%, 93.7%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서비스업은 84.1%, 8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도 조사에서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금융 및 부동산업은 유일하게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면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타직업군에 비해 여성 종사자의 비중(63%)이 높은 서비스직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6.6%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직 시간제 근로자의 78.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무직은 95.9%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관리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90%가 전일제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의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일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2차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70%에 이르는 임금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비교(1998, 1999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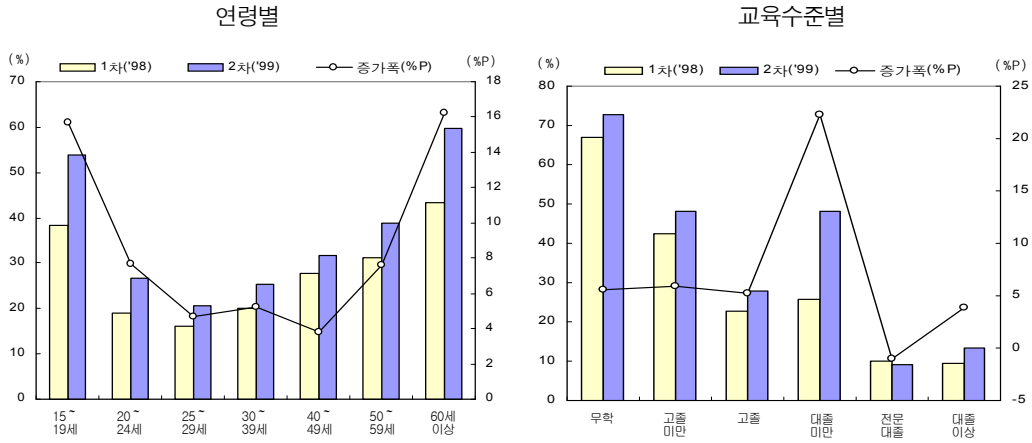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차 <sup>1)</sup> (’98)	3,062 (76.3)	949 (23.7)	2,044 (80.8)	486 (19.2)	1,018 (68.7)	463 (31.3)
2차 <sup>2)</sup> (’99)	2,682 (69.8)	1,159 (30.2)	1,748 (75.8)	557 (24.2)	934 (60.8)	602 (39.2)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고용형태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고용형태가 모름/무응답인 6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6.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그림 5-5]와 같이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미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추이



성별로 구분하여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 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을 보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은 미혼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결혼 여부에 따라 정규/비정규직 분포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고용형태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학의 27.3%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정규직의 비중이 90% 내외에 이르고 있으며, 고졸 미만과 대졸 미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경우 비정규직이 각각 61.1%, 68.9%로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공공서비스업 부문 역시 전년도 조사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공익설비업, 광공업 부문은 80% 이상이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85% 내외로 높은 반면, 서비스직과 생산직은 60%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근로자가 분포하고 있는 생산직의 경우 전년도 조사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7%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규비정규직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3,841(100.0)	2,682(69.8)	1,159(30.2)	
성별	남 성	2,305(100.0)	1,748(75.8)	557(24.2)	
	여 성	1,536(100.0)	934(60.8)	602(39.2)	
연령	15~19세	113(100.0)	52(46.0)	61(54.0)	
	20~24세	407(100.0)	298(73.2)	109(26.8)	
	25~29세	581(100.0)	461(79.3)	120(20.7)	
	30~39세	1,195(100.0)	891(74.6)	304(25.4)	
	40~49세	925(100.0)	633(68.4)	292(31.6)	
	50~59세	464(100.0)	284(61.2)	180(38.8)	
	60세 이상	156(100.0)	63(40.4)	93(59.6)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545(100.0)	387(71.0)	158(29.0)
		기혼 유배우	1,709(100.0)	1,338(78.3)	371(21.7)
		기혼 무배우	51(100.0)	23(45.1)	28(54.9)
	여 성	미 혼	515(100.0)	385(74.8)	130(25.2)
		기혼 유배우	874(100.0)	503(57.6)	371(42.4)
		기혼 무배우	147(100.0)	46(31.3)	101(68.7)
교육 수준	무 학	88(100.0)	24(27.3)	64(72.7)	
	고졸 미만	929(100.0)	481(51.8)	448(48.2)	
	고 졸	1,520(100.0)	1,098(72.2)	422(27.8)	
	대졸 미만	191(100.0)	99(51.8)	92(48.2)	
	전문대졸	334(100.0)	304(91.0)	30( 9.0)	
	대졸 이상	779(100.0)	676(86.8)	103(13.2)	

주: 정규·비정규직이 모름/무응답인 6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기업체 종류별로 보면 전년도 조사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소폭 증가한 법인단체와 외국인 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공기업은 정부기관과 함께 지난 해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80% 이상이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정규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정규·비정규직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3,841(100.0)	2,682(69.8)	1,159(30.2)
산 업 <sup>1)</sup>	농림어업	45(100.0)	14(31.1)	31(68.9)
	광공업	1,086(100.0)	893(82.2)	193(17.8)
	건설업	396(100.0)	154(38.9)	242(61.1)
	공익설비업	270(100.0)	231(85.6)	39(14.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5(100.0)	414(63.2)	241(36.8)
	금융 및 부동산업	498(100.0)	379(76.1)	119(23.9)
	공공서비스업	882(100.0)	592(67.1)	290(32.9)
직 업 <sup>2)</sup>	전문관리직	945(100.0)	795(84.1)	150(15.9)
	사무직	565(100.0)	495(87.6)	70(12.4)
	서비스직	541(100.0)	326(60.3)	215(39.7)
	농림어업직	32(100.0)	6(18.8)	26(81.3)
	생산직	1,736(100.0)	1,039(59.9)	697(40.1)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10(100.0)	2,055(73.1)	755(26.9)
	외국인회사	29(100.0)	27(93.1)	2( 6.9)
	공기업	137(100.0)	111(81.0)	26(19.0)
	법인단체	150(100.0)	124(82.7)	26(17.3)
	정부기관 기 타	416(100.0) 272(100.0)	309(74.3) 47(17.3)	107(25.7) 225(82.7)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954(100.0)	2,228(75.4)	726(24.6)
	1~4인	483(100.0)	276(57.1)	207(42.9)
	5~9인	380(100.0)	245(64.5)	135(35.5)
	10~49인	853(100.0)	646(75.7)	207(24.3)
	50~99인	240(100.0)	207(86.3)	33(13.8)
	100~499인	404(100.0)	355(87.9)	49(12.1)
	500인 이상	594(100.0)	499(84.0)	95(16.0)

주 : 정규·비정규직이 모름/무응답인 6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23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4명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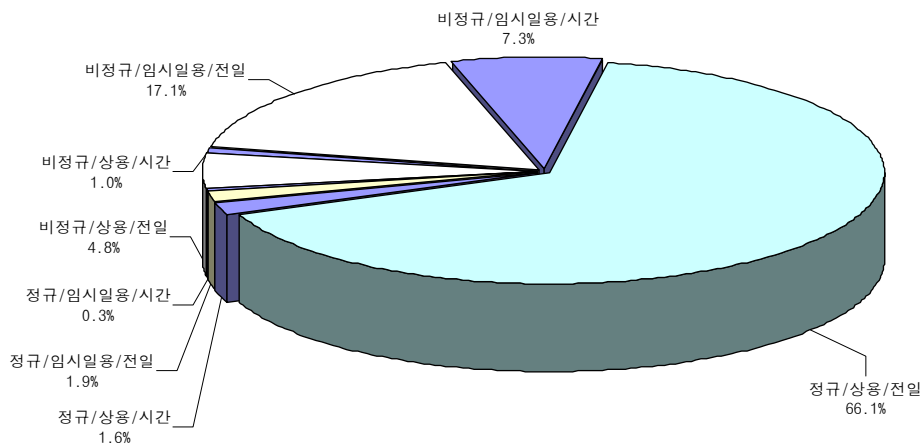
## 제 4 절 고용형태간의 관계

지금까지 임금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전일제,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이나 기업체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고용형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6]을 보면,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분포하고 있는 유형은 정규직이면서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인 경우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비정규직이면서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인 경우로 전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뿐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는 전일제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비정규직이면서 시간제 근로자인 동시에 임시·일용직인 경우는 7.3%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형태간의 관련성이 적은 유형, 예컨대 정규직이면서 시간제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라고 응답하거나, 상용직이고 전일제로 근무하지만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형태나 취업형태에 관한 용어들의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6] 고용형태간의 관계



주: 각 비중(%)은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고용형태 중 하나라도 무응답인 68명을 제외한 3,833명을 기준으로 한 것임.

한편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임금근로자의 77.7%가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78.1%)이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반대로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72.7%가 정규직이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76.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근로시간형태는 계약기간의 유무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의 비중은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87.7%, 90.0%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13>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와 그 외 고용형태 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3,833(100.0) [100.0]	387(10.1) [100.0]	3,446(89.9) [100.0]
정규직	2,677(100.0) [ 69.8]	72( 2.7) [ 18.6]	2,605(97.3) [ 75.6]
비정규직	1,156(100.0) [ 30.2]	315(27.2) [ 81.4]	841(72.8) [ 24.4]
상용직	2,816(100.0) [ 73.5]	98( 3.5) [ 25.3]	2,718(96.5) [ 78.9]
임시직	554(100.0) [ 14.5]	163(29.4) [ 42.1]	391(70.6) [ 11.3]
일용직	463(100.0) [ 12.1]	126(27.2) [ 32.6]	337(72.8) [ 9.8]

주: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고용형태 중 하나라도 무응답인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는 근로시간 형태를 제외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 [ ]는 근로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임.

<표 5-14> 임금근로자의 정규비정규와 종사상 지위 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3,833(100.0) [100.0]	2,677( 69.8) [100.0]	1,156( 30.2) [100.0]
상용직	2,816(100.0) [ 73.5]	2,594( 92.1) [ 96.9]	222( 7.9) [ 19.2]
임시직	554(100.0) [ 14.5]	56( 10.1) [ 2.1]	498(89.9) [ 43.1]
일용직	463(100.0) [ 12.1]	27( 5.8) [ 1.0]	436(94.2) [ 37.7]

주: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고용형태 중 하나라도 무응답인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는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한 비율, [ ]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표 5-15>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와 고용형태 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전 체	3,833(100.0) [100.0]	220( 5.7) [100.0]	3,613( 94.3) [100.0]
정규직	2,677(100.0) [ 69.8]	49( 1.8) [ 22.3]	2,628( 98.2) [ 72.7]
비정규직	1,156(100.0) [ 30.2]	171( 14.8) [ 77.7]	985( 85.2) [ 27.3]
시간제	387(100.0) [ 10.1]	27( 7.0) [ 12.3]	360( 93.0) [ 10.0]
전일제	3,446(100.0) [ 89.9]	193( 5.6) [ 87.7]	3,253( 94.4) [ 90.0]
상용직	2,816(100.0) [ 73.5]	48( 1.7) [ 21.8]	2,768( 98.3) [ 76.6]
임시직	554(100.0) [ 14.5]	118( 21.3) [ 53.6]	436( 78.7) [ 12.1]
일용직	463(100.0) [ 12.1]	54( 11.7) [ 24.5]	409( 88.3) [ 11.3]

주: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고용형태 중 하나라도 무응답인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는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 [ ]는 계약기간 유무를 기준으로 한 비율임.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에서는 ‘현재의 직위에서 승진이 가능한지’를 묻는 설문을 추가하였으며, 조사결과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승진 가능성 여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에서는 43.0%가 승진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6.7%만이 현재의 직위에서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국 승진이 가능한 근로자의 93.6%가 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형태 및 종사상 지위별로 보더라도 시간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승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2.2%만이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임시직은 이보다 다소 높은 5.4%의 응답자가 현 직위에서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5-16> 임금근로자의 승진 가능성 여부와 고용형태 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승진가능	승진불가능
전 체	3,833(100.0) [100.0]	1,228( 32.0) [100.0]	2,605( 67.0) [100.0]
정규직	2,677(100.0) [ 69.8]	1150( 43.0) [ 93.6]	1,527( 57.0) [ 58.6]
비정규직	1,156(100.0) [ 30.2]	78( 6.7) [ 6.4]	1,078( 93.3) [ 41.4]
시간제	387(100.0) [ 10.1]	30( 7.8) [ 2.4]	357( 92.2) [ 13.7]
전일제	3,446(100.0) [ 89.9]	1,198( 34.8) [ 97.6]	2,248( 65.2) [ 86.3]
상용직	2,816(100.0) [ 73.5]	1,188( 42.2) [ 96.7]	1,628( 57.8) [ 62.5]
임시직	554(100.0) [ 14.5]	30( 5.4) [ 2.4]	524( 94.9) [ 20.1]
일용직	463(100.0) [ 12.1]	10( 2.2) [ 0.8]	453( 97.8) [ 17.4]

주: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고용형태 중 하나라도 무응답인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는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 [ ]는 승진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비율임.

11) 승진 가능성 여부에 응답한 3,853명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현 직위에서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2.1%(1,23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진이 가능한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18.6%)에 비해 남성(41.1%)이 현저히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46.1%) 및 30대(42.7%)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졸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의 승진 가능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졸 이상 응답자(62.3%)의 승진 가능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46.3%),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55.3%),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65.5%) 종사자의 승진 가능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이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우선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은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을 묻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 혹은 고용형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근로일수

임금근로자의 86.2%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으나, 그 외의 응답자는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 하는 불규칙적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6-1>의 1, 2차년도 간 비교를 보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다소 줄어든 반면,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97%를 상회하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경우가 37.4%에 이르고 있다.

한편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한 달 근무일수는 정규직의 경우 24~26일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4~26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24.5일이며, 정규직인



경우에는 25.5일,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이보다 다소 적은 22.2일이다. 일의 규칙성 여부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일수를 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25.3일, 불규칙적인 경우가 19.1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1>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근로일수

(단위 : 명, %)

		1차년도 (1998년)	2차년도 (1999년)	고용형태 <sup>2)</sup>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12(100.0)	3,901(100.0)	2,682(100.0)	1,159(100.0)
불규칙적		390( 9.7)	510( 13.1)	71( 2.6)	434( 37.4)
규칙적		3,620( 90.2)	3,361( 86.2)	2,611( 97.4)	725( 62.6)
월평균 근로 일수 <sup>1)</sup>	1~14일	44( 1.1)	66( 1.7)	22( 0.8)	44( 3.8)
	15~23일	463( 11.5)	382( 9.8)	231( 8.6)	150( 12.9)
	24~26일	2,630( 65.6)	2,509( 64.3)	2,102( 78.4)	398( 34.3)
	27일이상	480( 12.0)	389( 10.0)	256( 9.5)	133( 11.5)
	모름	3( 0.1)	15( 0.4)	-	-
	평균(일)	24.9	24.5	25.5	22.2
모름/무응답		2( 0.0)	30( 0.8)	-	-

주: 1) 2차년도 조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응답자에게는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응답자에게는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고 있으며, 이 때 월평균 근로일수는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에 4.3을 곱하여 산출함.

2) 고용형태가 무응답인 6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2>에서는 임금근로자를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나누고, 규칙적일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은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모두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및 부동산업은 종사자의 95.0%가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각각 68.1%, 52.4%로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 중 대부분의 일자리가 불규칙적이면서도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24~26일이 가장 일반적이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27일 이상, 공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5~23일을 일하는 응답자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근로일수도 24~26일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의 경직성이 가장 높은 직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에 이어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전문관리직의 경우에는 근로일수가 15~23일에 해당하는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근로일수가 가장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형태는 법인단체와 공기업으로 98.5%를 상회하였으며, 근로일수가 24~26일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88.9%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하여 타기업형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도 5.2%포인트가 하락하였다. 토요일무체가 일반적인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는 한 달 근로일수가 15~23일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달 근로일수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24~26일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27일 이상 근무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및 근로일수  
(단위 : 명, %)

	전 체	규칙적						불규칙적
		전 체	월평균 근로일수 <sup>5)</sup>					
			1~14일	15~23일	24~26일	27일 이상		
전 체	3,871(100.0)	3,361(86.8)	66(1.7)	382(9.9)	2,509(64.8)	389(10.0)	510(13.2)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7(100.0)	15(31.9)	-	-	5(10.6)	9(19.1)	32(68.1)
	광공업	1,087(100.0)	984(90.5)	6(0.6)	61(5.6)	838(77.1)	79(7.3)	103(9.5)
	건설업	399(100.0)	190(47.6)	1(0.3)	8(2.0)	152(38.1)	29(7.3)	209(52.4)
	공익설비업	271(100.0)	246(90.8)	8(3.0)	30(11.1)	181(66.8)	27(10.0)	25(9.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68(100.0)	619(92.7)	7(1.0)	33(4.9)	397(59.4)	171(25.6)	49(7.3)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502(100.0) 888(100.0)	477(95.0) 823(92.7)	8(1.6) 36(4.1)	70(13.9) 180(20.3)	374(74.5) 558(62.8)	24(4.8) 47(5.3)	25(5.0) 65(7.3)
직업 <sup>2)</sup>	전문관리직	957(100.0)	919(96.0)	31(3.2)	122(12.7)	720(75.2)	41(4.3)	38(4.0)
	사무직	566(100.0)	557(98.4)	4(0.7)	35(6.2)	498(88.0)	20(3.5)	9(1.6)
	서비스직	549(100.0)	518(94.4)	5(0.9)	48(8.7)	304(55.4)	153(27.9)	31(5.6)
	농림어업직	34(100.0)	8(23.5)	-	-	2(5.9)	5(14.7)	26(76.5)
	생산직	1,743(100.0)	1,339(76.8)	26(1.5)	177(10.2)	966(55.4)	169(9.7)	404(23.2)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10(100.0)	2,499(88.9)	34(1.2)	218(7.8)	1,898(67.5)	349(12.4)	311(11.1)
	외국인회사	29(100.0)	28(96.6)	-	15(51.7)	13(44.8)	-	1(3.4)
	공기업	137(100.0)	135(98.5)	2(1.5)	19(13.9)	111(81.0)	3(2.2)	2(1.5)
	법인단체	150(100.0)	148(98.7)	7(4.7)	26(17.3)	113(75.3)	2(1.3)	2(1.3)
	정부기관	416(100.0)	398(95.7)	7(1.7)	80(19.2)	302(72.6)	9(2.2)	18(4.3)
	기 타	272(100.0)	113(41.5)	16(5.9)	19(7.0)	53(19.5)	25(9.2)	159(58.5)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969(100.0)	2,683(90.4)	43(1.4)	269(9.1)	2,023(68.1)	345(11.6)	286(9.6)
	1~4인	491(100.0)	414(84.3)	10(2.0)	37(7.5)	246(50.1)	119(24.2)	77(15.7)
	5~9인	383(100.0)	328(85.6)	4(1.0)	21(5.5)	252(65.8)	50(13.1)	55(14.4)
	10~49인	856(100.0)	746(87.1)	11(1.3)	77(9.0)	577(67.4)	81(9.5)	110(12.9)
	50~99인	240(100.0)	230(95.8)	3(1.3)	22(9.2)	181(75.4)	24(10.0)	10(4.2)
	100~499인	405(100.0)	391(96.5)	8(2.0)	39(9.6)	311(76.8)	33(8.1)	14(3.5)
500인 이상	594(100.0)	574(96.6)	7(1.2)	73(12.3)	456(76.8)	38(6.4)	20(3.4)	

주: 근로시간의 규칙성이 모름/무응답인 3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57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902명은 분석에서 제외.
- 5) 앞의 <표 6-1> 참조. 월평균 근로일수가 모름/무응답인 15명은 분석에서 제외.

## 제 2 절 정규근로

임금근로자의 82.8%는 현재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도 조사(79.3%)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91.9%, 비정규직의 61.6%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9%가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약 19.6%가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자가 60.1%로 조사되어 전년도 조사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하였다. 정규직만을 보면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64.4%에 이르는 등 과반수 이상의 임금근로자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6시간 미만의 근로자 비중도 전년대비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응답자가 2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의 주당 정규근로시간은 평균 50.6시간이며, 전년도(49.6시간)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2.6시간, 여성이 47.6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8.7%포인트 높은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인 응답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52.3시간으로 가장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최하위 및 최상위 연령층은 정규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당 정규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18시간 이하의 20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36시간 미만 근로는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대 후반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정규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높은 연령층일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결혼 여부에 따른 분포의 차이보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남성은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에 비해 19~35시간 근무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정규근로시간을 보면 미혼 및 기혼 유배우 남성이 약 5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기혼 무배우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성별·혼인상태별 집단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근로시간도 대체로 짧아지고 있다. 즉 고졸 및 고졸 미만의 경우 초과근무를 제외하더라도 주

당 평균 52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졸은 50.4시간, 대졸 이상은 46.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44시간인 응답자의 비중이 38.7%로 타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6-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정규근로시간 유무와 근로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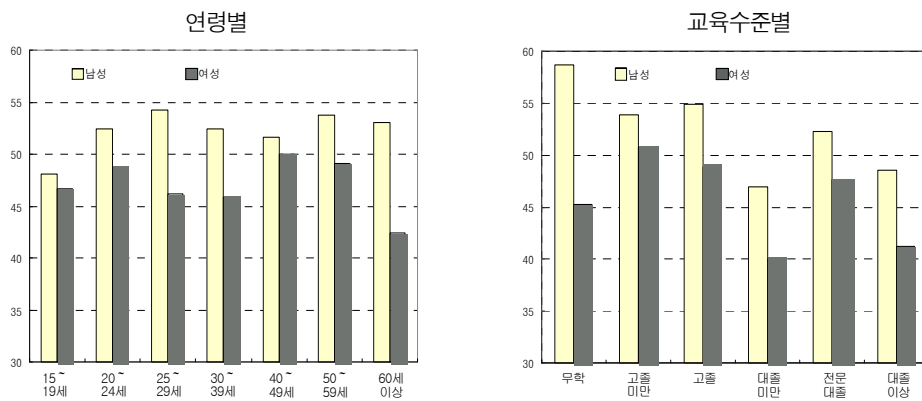
(단위 : 명, %)

		1차년도 <sup>1)</sup> (1998년)	2차년도 <sup>2)</sup> (1999년)	고용형태 <sup>3)</sup>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08(100.0)	3,853(100.0)	2,682(100.0)	1,159(100.0)
정규 근로시간	유	3,180( 79.3)	3,189( 82.8)	2,465( 91.9)	714( 61.6)
	무	828( 20.7)	664( 17.2)	217( 8.1)	445( 38.4)
주당 정규 근로시간 <sup>4)</sup>	1~18시간	107( 2.7)	118( 3.1)	20( 0.7)	96( 8.3)
	19~35시간	256( 6.4)	261( 6.8)	47( 1.8)	213( 18.4)
	36~43시간	484( 12.1)	399( 10.4)	202( 7.5)	196( 16.9)
	44시간	829( 20.7)	755( 19.6)	686( 25.6)	66( 5.7)
	45~54시간	1,270( 31.7)	1,119( 29.0)	883( 32.9)	231( 19.9)
	55~70시간	699( 17.4)	813( 21.1)	554( 20.7)	259( 22.3)
	71시간이상	340( 8.5)	387( 10.0)	289( 10.8)	98( 8.5)
	모름/무응답	23( 0.6)	1( 0.0)	1( 0.0)	-
	평균(시간)	49.6	50.6	52.6	46.2

주 : 1) 정규근로시간 유무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정규근로시간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  
 3) 고용형태가 무응답인 12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진 응답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계산함.

[그림 6-1] 주당 평균 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산업별 정규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공익설비업, 농림어업 부문이 약 55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광공업, 건설업 및 금융 및 부동산업 종사자의 평균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50시간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서비스업이 45.5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부문 종사자의 61.1%는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이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의 평균 근로시간이 57.3시간으로 타직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직 근로자 가운데 44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관리직은 서비스직에 비해 무려 11.5시간이 짧은 45.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은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44시간인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4~54시간 사이에 70% 이상의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민간기업의 정규근로시간이 타기업형태에 비해 6.2~9.4시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민간기업의 경우 70%에 근접하고 있어 이 비중이 28%에 불과한 정부기관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기업형태는 외국인 회사로서 평균 43.1시간으로 조사되었으나, 민간기업을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시간)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근로 시간(시간)
전 체		3,852(100.0)	3.1	6.8	10.4	19.6	29.0	21.1	10.0	50.6
성 별	남 성	2,311(100.0)	1.9	4.4	8.1	21.9	28.6	22.5	12.5	52.6
	여 성	1,541(100.0)	4.7	10.3	13.8	16.1	29.7	19.1	6.3	47.6
연 령	15~19세	113(100.0)	11.5	5.3	7.1	10.6	34.5	22.1	8.8	47.2
	20~24세	408(100.0)	2.9	4.9	11.5	16.9	33.8	24.8	5.1	50.0
	25~29세	584(100.0)	1.7	3.8	11.3	25.3	29.6	18.8	9.4	51.0
	30~39세	1,199(100.0)	2.8	6.8	9.6	20.2	30.4	21.2	8.9	50.3
	40~49세	926(100.0)	2.4	7.8	9.0	20.1	28.4	22.6	9.8	50.9
	50~59세	464(100.0)	2.6	7.1	12.5	17.7	25.2	19.2	15.7	52.3
	60세 이상	158(100.0)	9.5	16.5	13.9	10.1	15.2	15.8	19.0	48.0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546(100.0)	2.9	4.2	8.4	18.5	28.4	25.3	12.3	52.8
	기 혼 유배우	1,714(100.0)	1.3	4.2	8.1	23.4	28.9	21.5	12.6	52.7
	기 혼 무배우	51(100.0)	13.7	13.7	3.9	9.8	21.6	23.5	13.7	47.1
	여 성									
	미 혼	516(100.0)	4.1	5.8	13.2	20.0	34.7	18.4	3.9	47.4
기 혼 유배우	878(100.0)	5.0	12.1	13.6	15.5	29.0	17.4	7.4	47.5	
기 혼 무배우	147(100.0)	5.4	15.6	17.0	6.1	16.3	31.3	8.2	49.1	
교 육 수 준	무 학	89(100.0)	5.6	15.7	19.1	10.1	15.7	23.6	10.1	47.9
	고 졸 미만	931(100.0)	4.2	10.3	11.3	7.0	26.6	25.2	15.4	52.4
	고 졸	1,522(100.0)	1.8	5.9	8.5	16.2	31.1	25.1	11.4	52.6
	대 졸 미만	191(100.0)	10.5	9.4	8.9	20.9	29.3	16.2	4.7	44.4
	전 문 대 졸	336(100.0)	0.3	2.7	8.9	27.4	37.5	17.3	6.0	50.4
	대 졸 이상	783(100.0)	3.2	4.3	12.9	38.7	25.8	11.0	4.1	46.4

주 :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4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제외하면 기업형태간 평균 근로시간이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근로시간의 분포에서 공기업과 정부기관 종사자의 과반수가 44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별 정규근로시간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이 47.9시간으로 가장 짧은 반면, 50~99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체는 가장 긴 54.3시간으로 조사되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이 55시간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이 4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5>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근로 시간(시간)
전 체		3,852(100.0)	3.1	6.8	10.4	19.6	29.0	21.1	10.0	50.6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6(100.0)	6.5	19.6	10.9	2.2	10.9	28.3	21.7	54.7
	광공업	1,087(100.0)	1.5	3.5	6.5	20.9	38.2	23.6	5.9	50.9
	건설업	397(100.0)	3.0	13.9	10.6	8.3	23.9	29.7	10.6	50.6
	공익설비업	270(100.0)	0.4	3.3	5.9	20.7	30.7	22.6	16.3	54.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7(100.0)	3.3	7.0	8.5	6.5	24.2	33.5	16.9	55.8
	금융 및 부동산업	500(100.0)	3.2	6.4	10.0	26.6	31.2	12.0	10.6	49.5
	공공서비스업	886(100.0)	5.4	8.1	17.8	29.5	22.8	9.4	7.0	45.5
직업 <sup>2)</sup>	전문관리직	951(100.0)	4.9	5.0	12.9	32.4	28.7	12.4	3.6	45.8
	사무직	566(100.0)	0.9	2.5	8.5	34.6	36.2	13.3	4.1	48.6
	서비스직	541(100.0)	1.8	7.2	8.9	5.9	21.3	35.9	19.0	57.3
	농림어업직	33(100.0)	6.1	27.3	12.1	-	12.1	27.3	15.2	49.2
	생산직	1,739(100.0)	3.1	8.7	10.1	12.0	29.7	23.8	12.7	51.8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09(100.0)	2.2	5.9	8.0	15.0	32.5	25.1	11.3	52.5
	외국인회사	29(100.0)	-	10.3	44.8	17.2	20.7	6.9	-	43.1
	공기업	137(100.0)	-	2.9	13.9	50.4	27.0	5.1	0.7	45.7
	법인단체	150(100.0)	6.0	4.0	17.3	30.0	32.0	6.7	4.0	44.9
	정부기관	416(100.0)	1.0	5.0	17.8	48.3	15.4	6.5	6.0	46.3
	기 타	272(100.0)	13.6	21.0	12.1	3.3	15.1	21.7	13.2	45.4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965(100.0)	2.1	5.5	9.0	17.2	32.4	23.2	10.7	52.0
	1~4인	489(100.0)	5.1	9.2	11.0	4.7	23.7	31.1	15.1	53.3
	5~9인	382(100.0)	2.1	7.3	7.9	8.6	38.2	24.9	11.0	52.8
	10~49인	856(100.0)	1.2	5.6	6.0	17.8	35.5	22.7	11.3	52.6
	50~99인	240(100.0)	0.8	2.5	7.1	21.3	28.8	24.2	15.4	54.3
	100~499인	404(100.0)	1.0	1.7	8.2	20.3	36.4	21.3	11.1	52.8
500인 이상	594(100.0)	2.2	4.7	13.6	28.5	30.1	17.3	3.5	47.9	

주: 주당 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4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모름/무응답인 39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7명은 분석에서 제외.

### 제 3 절 초과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3,189명(82.8%)에 대해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는 3,189명 가운데 32.5%(1,037명)로 나타나, 전년도 조사결과인 40.0%(1,269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 별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38.7%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보다 크게 낮은 11.2%만이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인 응답자가 임금근로자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가운데 12.6%는 주당 16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74.5%에 이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주당 10시간 이하의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8.5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도(8.9시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6-6>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1차년도 <sup>1)</sup> (1998년)	2차년도 <sup>2)</sup> (1999년)	고용형태 <sup>3)</sup>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3,170(100.0)	3,189(100.0)	2,465(100.0)	714(100.0)
초과근로를 안함		1,901(60.0)	2,152( 67.5)	1,512( 61.3)	634( 88.8)
초과근로를 함		1,269(40.0)	1,037( 32.5)	953( 38.7)	80( 11.2)
주당 초과 근로 시간	1~4시간	343(27.0)	356( 34.3)	319( 33.5)	36( 45.0)
	5~6시간	246(19.4)	206( 19.9)	189( 19.8)	16( 20.0)
	7~10시간	327(25.8)	214( 20.6)	200( 21.0)	13( 16.3)
	11~15시간	170(13.4)	127( 12.2)	118( 12.4)	8( 10.0)
	16시간 이상	151(11.9)	127( 12.2)	120( 12.6)	7( 8.8)
	모름/무응답	32( 2.5)	7( 0.7)	7( 0.7)	-
	평균(시간)	8.9	8.5	8.6	8.2

- 주: 1)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84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71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고용형태가 무응답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한편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과근로를 하는 응답자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전년도 조사와 비슷한 수준(54.1%)을 보였다. 초과급여는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79.8%)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17.0%에 달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1.4%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하여, 정규직(2.7%)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과급여의 수준은 월평균 10만원 이하가 59.1%, 11만~20만원 이하가 2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당 초과급여로 환산하여 보면, 1.5천~5천원 미만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1차년도 <sup>1)</sup> (1998년)	2차년도 (1999년)	고용형태 <sup>2)</sup>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1,268(100.0)	1,037(100.0)	953(100.0)	80(100.0)
초과급여가 없음		582(45.9)	472(45.5)	425(44.6)	45(56.3)
초과급여가 있음		686(54.1)	565(54.5)	528(55.4)	35(43.8)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504(73.6)	451(79.8)	421(79.7)	28(80.0)
	일정금액	153(22.3)	93(16.5)	90(17.0)	3(8.6)
	기준없음	26(3.8)	18(3.2)	14(2.7)	4(11.4)
	모름/무응답	2(0.3)	3(0.5)	3(0.6)	-
월평균 초과급여	10만원 이하	366(53.4)	334(59.1)	307(58.1)	26(74.3)
	11만~20만원	189(27.6)	141(25.0)	135(25.6)	5(14.3)
	21만~30만원	57(8.3)	54(9.6)	53(10.0)	1(2.9)
	31만원 이상	44(6.4)	26(4.6)	26(4.9)	-
	모름/무응답	30(4.8)	10(1.8)	7(1.3)	31(8.6)
	평균(만원)	14.2	13.1	13.3	8.7
시간당 초과급여 <sup>3)</sup>	1.5천원 미만	95(13.8)	84(14.9)	78(14.8)	6(17.1)
	1.5천~3천원 미만	188(27.4)	145(25.7)	134(25.4)	10(28.6)
	3천~5천원 미만	193(28.1)	155(27.4)	146(27.7)	9(25.7)
	5천~1만원 미만	119(17.3)	123(21.8)	117(22.2)	5(14.3)
	1만원 이상	52(7.6)	45(8.0)	43(8.1)	2(5.7)
	모름/무응답	39(5.7)	13(2.3)	10(1.9)	3(8.6)
	평균(천원)	4.6	4.6	4.6	3.7

주 : 1) 초과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고용형태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시간당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근로시간) 계산에 사용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임.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공업(45.0%)이었으며, 주당 초과근무시간 역시 9.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설업, 공익설비업 부문의 초과근무시간도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농림어업을 제외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20%로 가장 낮았다.

<표 6-8>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초과근로시간

(단위 : 명, %)

		전 체	초과근로를 한다		초과근로를 안한다
			주당평균초과근로 시간(시간)		
전 체		3,189(100.0)	1,037(32.5)	8.5	2,152( 67.5)
산 업 <sup>1)</sup>	농림어업	21(100.0)	3(14.3)	5.7	18( 85.7)
	광공업	940(100.0)	423(45.0)	9.2	517( 55.0)
	건설업	254(100.0)	66(26.0)	8.8	188( 74.0)
	공익설비업	230(100.0)	82(35.7)	8.6	148( 64.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36(100.0)	107(20.0)	7.6	429( 80.0)
	금융 및 부동산업	418(100.0)	139(33.3)	8.4	279( 66.7)
	공공서비스업	783(100.0)	214(27.3)	7.7	569( 72.7)
직 업 <sup>2)</sup>	전문관리직	822(100.0)	344(41.8)	7.5	478( 58.2)
	사무직	538(100.0)	202(37.5)	7.9	336( 62.5)
	서비스직	464(100.0)	81(17.5)	7.7	383( 82.5)
	농림어업직	14(100.0)	-	-	14(100.0)
	생산직	1,330(100.0)	401(30.2)	9.9	929( 69.8)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331(100.0)	751(32.2)	8.8	1,580( 67.8)
	외국인회사	29(100.0)	13(44.8)	5.8	16( 55.2)
	공기업	135(100.0)	55(40.7)	7.5	80( 59.3)
	법인단체	144(100.0)	45(31.3)	7.6	99( 68.8)
	정부기관	402(100.0)	155(38.6)	8.4	247( 61.4)
	기 타	122(100.0)	10(8.2)	4.6	112( 91.8)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526(100.0)	833(33.0)	8.6	1,693( 67.0)
	1~4인	372(100.0)	47(12.6)	5.5	325( 87.4)
	5~9인	306(100.0)	55(18.0)	5.8	251( 82.0)
	10~49인	731(100.0)	255(34.9)	8.3	476( 65.1)
	50~99인	217(100.0)	73(33.6)	10.0	144( 66.4)
	100~499인	369(100.0)	167(45.3)	9.8	202( 54.7)
	500인 이상	531(100.0)	236(44.4)	9.0	295( 55.6)

주: 초과근로가 무응답인 71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21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26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663명은 분석에서 제외.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평균 7.5~7.9시간대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생산직의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9.9시간의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과근로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정규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전문관리직(41.8%)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또한 37.5%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관리직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년도에 49.5%로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법인단체와 민간회사가 초과근로를 한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낮았다. 반면 외국인 회사는 종사자 중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법인이나 민간 회사에 비해 약 13%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비교적 짧았으며, 민간회사와 정부기관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에서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법정 정규-초과근무시간이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규근무시간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6-5 참조).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50~99인 이하, 100~499인 이하인 사업체에서 1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미만 사업체는 주당 6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는 우선 근로소득인 임금에 대해 지급방식과 결정방식, 성과급제의 유무 및 형태, 그리고 임금수준을 살펴본다. 아울러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비교하고 있다.

### 제 1 절 임 금

#### 1. 임금지급 및 결정방식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인 92.2%는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수시로 지급받는다는 응답과 매일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3.6%, 2.6%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임금을 매일 지급받는 응답자의 비중이 미미한 증가를 보였을 뿐,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임금지급 주기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녀 모두 한 달에 한 번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높고, 반대로 수시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결정방식을 보면 월급제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78.4%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당제가 10.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급제와 연봉제는 각각 3.9%, 2.8%에 그치고 있다. 임금결정방식의 분포에서도 두드러지는 남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연

봉제 응답자는 남성이 3.9%인 데 반해 여성은 1.2%에 불과하며, 반대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6.8%가 실적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반면 남성은 2.0%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표 7-1>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3,853(100.0)	2,311(100.0)	1,542(100.0)
임금 지급 주기	한 달	3,553( 92.2)	2,139( 92.6)	1,414( 91.7)
	보름/주	43( 1.1)	24( 1.0)	19( 1.2)
	매일	101( 2.6)	42( 1.8)	59( 3.8)
	수시	140( 3.6)	96( 4.2)	44( 2.9)
	기타	16( 0.4)	10( 0.4)	6( 0.4)
임금 결정 방식	연봉계약제	108( 2.8)	90( 3.9)	18( 1.2)
	월 급	3,020( 78.4)	1,864( 80.7)	1,156( 75.0)
	주급/격주	15( 0.4)	5( 0.2)	10( 0.6)
	일당	401( 10.4)	242( 10.5)	159( 10.3)
	시간급제	88( 2.3)	33( 1.4)	55( 3.6)
	도급제	54( 1.4)	23( 1.0)	31( 2.0)
	실적급	152( 3.9)	47( 2.0)	105( 6.8)
	기 타	15( 0.4)	7( 0.3)	8( 0.5)

주: 임금지급 주기 및 임금결정방식이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성과급제

본인의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직장에서 임금결정시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과급제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2.5%로 전년도 조사에 비해 4.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11.4%, 여성 임금근로자의 14.1%가 임금결정에 성과급제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과급제의 유형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개인성과급제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가 적용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481명 가운데 75.5%가 개인성과급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성과급제가 16.6%, 회사성과급제가 6.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과급제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개인성과급제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낮은 반면, 집단성과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여성의 약 3배에 이르는 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3,853(100.0)	2,311(100.0)	1,542(100.0)
성과급제가 없다	3,274( 85.0)	1,985( 85.9)	1,289( 83.6)
과급제가 있다	481( 12.5)	263( 11.4)	218( 14.1)
개인성과급제 <sup>1)</sup>	363( 75.5)	175( 66.5)	188( 86.2)
집단(팀, 부서)성과급제	80( 16.6)	62( 23.6)	18( 8.3)
회사성과급제	33( 6.9)	25( 9.5)	8( 3.7)
해당사항 없음	5( 1.0)	1( 0.4)	4( 1.8)
모름	98( 2.5)	63( 2.7)	35( 2.3)

주 : 1) 개인성과급제라고 답한 응답자 중 집단성과급제와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명이고, 회사성과급제와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이며, 이 모두를 다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임.

### 3. 임금수준

1999년 한국노동패널에서 임금근로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sup>12)</sup>은 103.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111.2만원과 비교하면 7.4% 감소한 결과이다(표 7-7 참조). 50만원 단위로 월평균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150만원 이상의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년대비 4.7%포인트 감소한 반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약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임금 근로자는 시간당 평균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도(5.4천원)에 비해 역시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23.5만원이며, 150만원 이상의 비중이 29%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58.5%에 불과한 72.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0.1%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80.1%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점차 증가하다가 40대 116.0만원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특히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남성의 월평균 임금액은 40대에 145만원까지 상승하였다가, 50대 123.5만원, 60세 이상은 88.1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84.2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

12) 본 절에서의 임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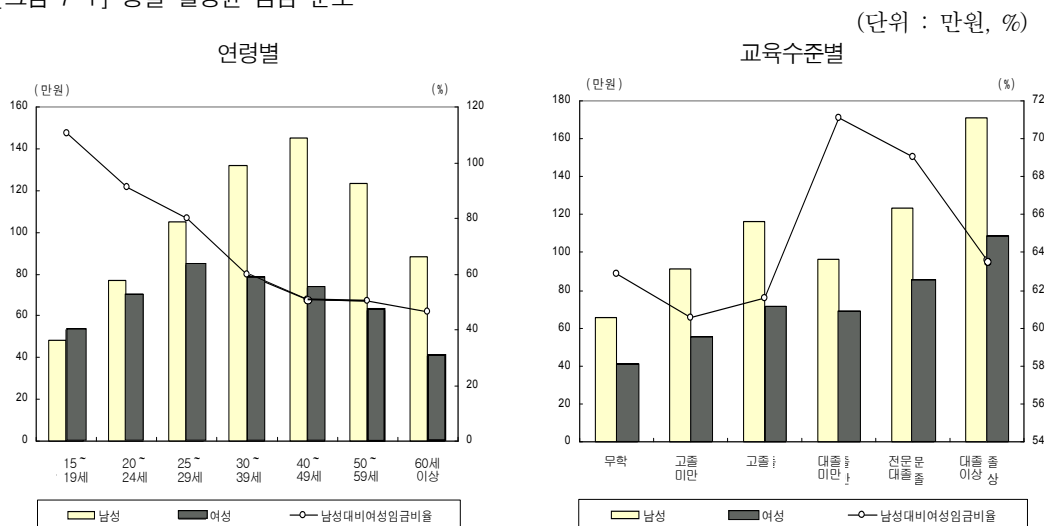
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그림 7-1]과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30대에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며,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남성의 50%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혼 유배우자가 미혼 및 기혼 무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 유배우자간의 임금 차이는 미미하나, 기혼 무배우자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각 혼인상태별로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미혼 여성이 8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혼 유배우자가 55.2로 가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월평균 임금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된다. 즉 임금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월평균 152.5만원을 받는 반면, 고졸은 99.4만원, 고졸 미만은 73.8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교육수준별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대졸 미만, 전문대졸 여성의 임금수준이 71.1, 6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졸은 63.6, 고졸은 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공익설비업 부문으로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122.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이 112.5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년도 조사에서 124.8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냈던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4.2%가 감소한 107.1만원으로 조사되어,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임금근로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임금수준 하락은 전체 평균임금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임금 하락은 월평균

[그림 7-1] 성별 월평균 임금 분포



60만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사업 확대와 함께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설업 역시 전년대비 8.7%의 비교적 큰 하락폭을 보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공공서비스업이 6,000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익설비업 부문이 각각 5.5천원, 5.4천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여 비교할 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

		전 체	임금을 받는다					평균 임금 (만원)	임금을 받지 않는다 <sup>1)</sup>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 체		3,853(100.0)	476(12.4)	1,559(40.5)	1,009(26.2)	452(11.7)	324(8.4)	103.0	33(0.9)	
성 별	남 성	2,311(100.0)	129( 5.6)	671(29.0)	823(35.6)	381(16.5)	290(12.5)	123.5	17(0.7)	
	여 성	1,542(100.0)	347(22.5)	888(57.6)	186(12.1)	71( 4.6)	34( 2.2)	72.2	16(1.0)	
연 령	15~19세	113(100.0)	48(42.5)	57(50.4)	6( 5.3)	-	-	51.6	2(1.8)	
	20~24세	408(100.0)	41(10.0)	293(71.8)	63(15.4)	5( 1.2)	-	72.2	6(1.5)	
	25~29세	584(100.0)	32( 5.5)	277(47.4)	213(36.5)	45( 7.7)	14( 2.4)	96.9	3(0.5)	
	30~39세	1,199(100.0)	114( 9.5)	358(29.9)	377(31.4)	226(18.8)	117( 9.8)	115.2	7(0.6)	
	40~49세	927(100.0)	89( 9.6)	333(35.9)	235(25.4)	138(14.9)	124(13.4)	116.0	8(0.9)	
	50~59세	464(100.0)	81(17.5)	185(39.9)	104(22.4)	31( 6.7)	59(12.7)	104.5	4(0.9)	
	60세 이상	158(100.0)	71(44.9)	56(35.4)	11( 7.0)	7( 4.4)	10( 6.3)	66.2	3(1.9)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564(100.0)	58(10.6)	257(47.1)	177(32.4)	41( 7.5)	6( 1.1)	91.3	7(1.3)
		기 혼 유배우	1,714(100.0)	62( 3.6)	398(23.2)	628(36.6)	335(19.5)	283(16.5)	134.6	8(0.5)
		기 혼 무배우	51(100.0)	9(17.6)	16(31.4)	18(35.3)	5( 9.8)	1( 2.0)	89.7	2(3.9)
	여 성	미 혼	516(100.0)	61(11.8)	354(68.6)	77(14.9)	15( 2.9)	3( 0.6)	73.8	6(1.2)
		기 혼 유배우	878(100.0)	225(25.6)	455(51.8)	106(12.1)	56( 6.4)	30( 3.4)	74.3	6(0.7)
		기 혼 무배우	148(100.0)	61(41.2)	79(53.4)	3( 2.0)	-	1( 0.7)	53.1	4(2.7)
교 육 수 준	무 학	89(100.0)	49(55.1)	37(41.6)	2( 2.2)	-	-	46.0	1(1.1)	
	고졸 미만	931(100.0)	214(23.0)	475(51.0)	177(19.0)	39( 4.2)	14( 1.5)	73.8	12(1.3)	
	고 졸	1,523(100.0)	127( 8.3)	673(44.2)	465(30.5)	175(11.5)	70( 4.6)	99.4	13(0.9)	
	대졸 미만	191(100.0)	50(26.2)	64(33.5)	49(25.7)	12( 6.3)	12( 6.3)	85.9	4(2.1)	
	전문대졸	336(100.0)	12( 3.6)	154(45.8)	94(28.0)	49(14.6)	25( 7.4)	107.9	2(0.6)	
	대졸 이상	783(100.0)	24( 3.1)	156(19.9)	222(28.4)	177(22.6)	203(25.9)	152.5	1(0.1)	

주: 월평균 임금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1)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조사시점 현재 수령액이 없거나, 모름/무응답인 응답자가 포함됨.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관리직(141.9만원)이며,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서비스직(82.8만원)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사무직의 임금이 10.0% 감소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며, 생산직과 전문관리직이 각각 7.9%, 7.0%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직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전문관리직(7.6천), 사무직(5천원)의 순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4>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

		전 체	임금을 받는다					평균 임금 (만원)	임금을 받지 않는다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 체		3,853(100.0)	476(12.4)	1,559(40.5)	1,009(26.2)	452(11.7)	324(8.4)	103.0	33(0.9)
산 업 <sup>1)</sup>	농림어업	46(100.0)	20(43.5)	14(30.4)	9(19.6)	1( 2.2)	1( 2.2)	62.7	1(2.2)
	광공업	1,087(100.0)	124(11.4)	441(40.6)	314(28.9)	128(11.8)	67( 6.2)	100.7	13(1.2)
	건설업	397(100.0)	35( 8.3)	169(42.6)	119(30.0)	46(11.6)	21( 5.3)	101.0	7(1.8)
	공익설비업	270(100.0)	9( 3.3)	79(29.3)	103(38.1)	48(17.8)	29(10.7)	122.1	2(0.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7(100.0)	99(15.1)	320(48.7)	151(23.0)	47( 7.2)	34( 5.2)	90.0	6(0.9)
	금융 및 부동산업	501(100.0)	46( 9.2)	211(42.1)	115(23.0)	64(12.8)	64(12.8)	112.5	1(0.2)
	공공서비스업	886(100.0)	141(15.9)	320(36.1)	196(22.1)	118(13.3)	108(12.2)	107.1	3(0.3)
직 업 <sup>2)</sup>	전문관리직	952(100.0)	46( 4.8)	243(25.5)	259(27.2)	195(20.5)	206(21.6)	141.9	3(0.3)
	사무직	566(100.0)	28( 4.9)	265(46.8)	137(24.2)	78(13.8)	53( 9.4)	107.5	5(0.9)
	서비스직	541(100.0)	95(17.6)	287(53.0)	100(18.5)	38( 7.0)	18( 3.3)	82.8	3(0.6)
	농림어업직	33(100.0)	17(51.5)	9(27.3)	6(18.2)	-	-	51.9	1(3.0)
	생산직	1,739(100.0)	289(16.6)	747(43.0)	502(28.9)	137( 7.9)	43( 2.5)	86.9	21(1.2)
기 업 체 종 류 <sup>3)</sup>	민간회사	2,810(100.0)	308(11.0)	1,254(44.6)	751(26.7)	289(10.3)	179( 6.4)	99.2	29(1.0)
	외국인회사	29(100.0)	1( 3.4)	4(13.8)	10(34.5)	7(24.1)	7(24.1)	161.8	-
	공기업	137(100.0)	6( 4.4)	35(25.5)	33(24.1)	30(21.9)	32(23.4)	141.5	1(0.7)
	법인단체	150(100.0)	7( 4.7)	48(32.0)	39(26.0)	27(18.0)	29(19.3)	134.8	-
	정부기관	416(100.0)	52(12.5)	90(21.6)	117(28.1)	88(21.2)	68(16.3)	125.0	1(0.2)
	기 타	272(100.0)	94(34.6)	110(40.4)	53(19.5)	8( 2.9)	5( 1.8)	66.5	2(0.7)
	소 계	2,966(100.0)	284( 9.6)	1,272(42.9)	808(27.2)	339(11.4)	236( 8.0)	104.2	27(0.9)
사 업 체 규 모 <sup>4)</sup>	1~4인	489(100.0)	99(20.2)	261(53.4)	107(21.9)	13( 2.7)	4( 0.8)	72.7	5(0.9)
	5~9인	382(100.0)	43(11.3)	207(54.2)	88(23.0)	28( 7.3)	9( 2.4)	86.0	7(1.8)
	10~49인	856(100.0)	82( 9.6)	376(43.9)	249(29.1)	88(10.3)	49( 5.7)	100.4	12(1.4)
	50~99인	240(100.0)	16( 6.7)	96(40.0)	74(30.8)	29(12.1)	25(10.4)	113.3	-
	100~499인	405(100.0)	21( 5.2)	161(39.8)	121(29.9)	64(15.8)	38( 9.4)	114.5	-
	500인 이상	594(100.0)	23( 3.9)	171(28.8)	169(28.5)	117(19.7)	111(18.7)	136.0	3(0.5)

주: 월평균 임금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임금수준의 계산방식은 앞의 <표 7-3>와 동일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39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7명은 분석에서 제외.



기업체 종류별 임금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73.7%가 소속되어 있는 민간회사를 제외하면 모든 기업형태의 임금수준이 전체 월평균 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임금수준은 민간기업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임금수준이 각각 16.4%, 9.8%의 현저한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법인단체가 9.1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과 공기업이 각각 8.5천원, 6.9천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수준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136.0만원으로 4인 이하 사업체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5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하락폭이 비교적 컸으며, 50인~99인 이하 규모에서는 임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당 임금

(단위 : 명, %)

		전 체	1,700원 미만	1,700원이상 3,400원미만	3,400원이상 5,100원미만	5,100원이상 7,500원미만	7,500원이상 10,000원미만	10,000원 이상	평균시간당 임금(천원)	
전 체		3,812(100.0)	242( 6.3)	1,314(34.5)	934(24.5)	737(19.3)	315( 8.3)	270( 7.1)	5.0	
성 별	남 성	2,289(100.0)	85( 3.7)	523(22.8)	624(27.3)	593(25.9)	250(10.9)	214( 9.3)	5.7	
	여 성	1,523(100.0)	157(10.3)	791(51.9)	310(20.4)	144( 9.5)	65( 4.3)	56( 3.7)	3.8	
연 령	15~19세	110(100.0)	25(22.7)	64(58.2)	10( 9.1)	5( 4.5)	2( 1.8)	4( 3.6)	3.1	
	20~24세	402(100.0)	15( 3.7)	243(60.4)	100(24.9)	31( 7.7)	5( 1.2)	8( 2.0)	3.6	
	25~29세	579(100.0)	19( 3.3)	176(30.4)	220(38.0)	118(20.4)	31( 5.4)	15( 2.6)	4.5	
	30~39세	1,191(100.0)	52( 4.4)	290(24.3)	308(25.9)	314(26.4)	146(12.3)	81( 6.8)	5.4	
	40~49세	917(100.0)	39( 4.3)	300(32.7)	194(21.2)	182(19.8)	98(10.7)	104(11.3)	5.5	
	50~59세	458(100.0)	48(10.5)	177(38.6)	89(19.4)	70(15.3)	25( 5.5)	49(10.7)	5.4	
	60세 이상	155(100.0)	44(28.4)	64(41.3)	13( 8.4)	17(11.0)	8( 5.2)	9( 5.8)	3.7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537(100.0)	24( 4.5)	214(39.9)	172(32.0)	92(17.1)	25( 4.7)	10( 1.9)	4.1
		기혼 유배우	1,703(100.0)	56( 3.3)	292(17.1)	439(25.8)	496(29.1)	219(12.9)	201(11.8)	6.2
		기혼 무배우	49(100.0)	5(10.2)	17(34.7)	13(26.5)	5(10.2)	6(12.2)	3( 6.1)	5.8
	여 성	미 혼	509(100.0)	27( 5.3)	256(50.3)	146(28.7)	54(10.6)	10( 2.0)	16( 3.1)	3.9
		기혼 유배우	871(100.0)	101(11.6)	441(50.6)	152(17.5)	84( 9.6)	53( 6.1)	40( 4.6)	4.0
		기혼 무배우	143(100.0)	29(20.3)	94(65.7)	12( 8.4)	6( 4.2)	2( 1.4)	-	2.6
교 육 수 준	무 학	88(100.0)	25(28.4)	53(60.2)	8( 9.1)	2( 2.3)	-	-	2.3	
	고졸 미만	917(100.0)	108(11.8)	463(50.5)	205(22.4)	104(11.3)	22( 2.4)	15( 1.6)	3.5	
	고 졸	1,508(100.0)	78( 5.2)	538(35.7)	436(28.9)	305(20.2)	90( 6.0)	61( 4.0)	4.5	
	대졸 미만	187(100.0)	16( 8.6)	68(36.4)	38(20.3)	37(19.8)	16( 8.6)	12( 6.4)	4.8	
	전문대졸	334(100.0)	7( 2.1)	109(32.6)	99(29.6)	69(20.2)	33( 9.9)	17( 5.1)	4.9	
	대졸 이상	778(100.0)	8( 1.0)	83(10.7)	148(19.0)	220(28.3)	154(19.8)	165(21.2)	7.9	

주: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8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임.

<표 7-6>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시간당 임금

(단위 : 명, %)

		전 체	1,700원 미만	1,700원이상 3,400원미만	3,400원이상 5,100원미만	5,100원이상 7,500원미만	7,500원이상 10,000원미만	10,000원 이상	평균시간당 임금(천원)
전 체		3,812(100.0)	242( 6.3)	1,314(34.5)	934(24.5)	737(19.3)	315( 8.3)	270( 7.1)	5.0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5(100.0)	12(26.7)	25(55.6)	4( 8.9)	2( 4.4)	2( 4.4)	-	2.7
	광공업	1,074(100.0)	81( 7.5)	373(34.7)	297(27.7)	196(18.2)	79( 7.4)	48( 4.5)	4.5
	건설업	390(100.0)	9( 2.3)	114(29.2)	114(29.2)	111(28.5)	27( 6.9)	15( 3.8)	4.8
	공익설비업	267(100.0)	13( 4.9)	69(25.8)	71(26.6)	64(24.0)	26( 9.7)	24( 9.0)	5.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1(100.0)	50( 7.7)	330(50.7)	138(21.2)	88(13.5)	22( 3.4)	23( 3.5)	3.9
	금융 및 부동산업	496(100.0)	40( 8.1)	126(25.4)	128(25.8)	94(19.0)	55(11.1)	53(10.7)	5.5
	공공서비스업	880(100.0)	37( 4.2)	271(30.8)	181(20.6)	180(20.5)	104(11.8)	107(12.2)	6.0
직업 <sup>2)</sup>	전문관리직	945(100.0)	6( 0.6)	132(14.0)	208(22.0)	253(26.8)	164(17.4)	182(19.3)	7.6
	사무직	559(100.0)	14( 2.5)	179(32.0)	147(26.3)	133(23.8)	51( 9.1)	35( 6.3)	5.0
	서비스직	537(100.0)	50( 9.3)	308(57.4)	98(18.2)	49( 9.1)	16( 3.0)	16( 3.0)	3.6
	농림어업직	32(100.0)	9(28.1)	19(59.4)	1( 3.1)	2( 6.3)	1( 3.1)	-	2.6
	생산직	1,718(100.0)	163( 9.5)	669(38.9)	477(27.8)	295(17.2)	79( 4.6)	35( 2.0)	4.0
기업체 종류 <sup>3)</sup>	민간회사	2,777(100.0)	185( 6.7)	1,054(38.0)	723(26.0)	506(18.2)	180( 6.5)	129( 4.6)	4.5
	외국인회사	29(100.0)	-	3(10.3)	4(13.8)	8(27.6)	7(24.1)	7(24.1)	8.5
	공기업	136(100.0)	2( 1.5)	21(15.4)	28(20.6)	32(23.5)	26(19.1)	27(19.9)	6.9
	법인단체	150(100.0)	2( 1.3)	30(20.0)	30(20.0)	36(24.0)	20(13.3)	32(21.3)	9.1
	정부기관	411(100.0)	11( 2.7)	101(24.6)	76(18.5)	101(24.6)	65(15.8)	57(13.9)	6.1
	기 타	270(100.0)	38(14.1)	95(35.2)	65(24.1)	44(16.3)	13( 4.8)	15( 5.6)	4.3
사업체 규모 <sup>4)</sup>	소 계	2,935(100.0)	173( 5.9)	1,038(35.4)	756(25.8)	564(19.2)	219( 7.5)	185( 6.3)	4.9
	1~4인	484(100.0)	53(11.0)	251(51.9)	112(23.1)	53(11.0)	10( 2.1)	5( 1.0)	3.5
	5~9인	375(100.0)	20( 5.3)	158(42.1)	120(32.0)	61(16.3)	8( 2.1)	8( 2.1)	3.9
	10~49인	843(100.0)	56( 6.6)	296(35.1)	239(28.4)	164(19.5)	56( 6.6)	32( 3.8)	4.5
	50~99인	240(100.0)	10( 4.2)	91(37.9)	47(19.6)	55(22.9)	18( 7.5)	19( 7.9)	5.1
	100~499인	403(100.0)	21( 5.2)	127(31.5)	106(26.3)	84(20.8)	34( 8.4)	31( 7.7)	5.7
500인 이상	590(100.0)	13( 2.2)	115(19.5)	132(22.4)	147(24.9)	93(15.8)	90(15.3)	6.5	

주 :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8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시간당 임금의 계산방식은 앞의 <표 7-5>와 동일함.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1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39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77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근로소득의 변화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1998년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공식적인 임금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시기였다. 노동부가 발표한 「매월노동통계」에 따르면, 199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427천원으로, 1997년의 1,463천원에 비하여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속화됨에 따라 1999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2.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7>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소득의 변화

(단위 : 천원, 만원, %)

		월평균 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천원)			
		1998년 <sup>1)</sup>	1999년 <sup>2)</sup>	증감률	1998년 <sup>1)</sup>	1999년 <sup>2)</sup>	증감률	
전 체		111.2	103.0	-7.4	5.4	5.0	-7.4	
성별	남 성	130.8	123.5	-5.6	6.1	5.7	-6.6	
	여 성	77.7	72.2	-7.1	4.2	3.8	-9.5	
연령	15~19세	58.2	51.6	-11.3	2.6	3.1	19.2	
	20~24세	75.8	72.2	-4.7	3.9	3.6	-7.7	
	25~29세	101.7	96.9	-4.7	4.7	4.5	-4.3	
	30~39세	122.3	115.2	-5.8	5.8	5.4	-6.9	
	40~49세	125.6	116.0	-7.6	6.1	5.5	-9.8	
	50~59세	113.7	104.5	-8.1	5.4	5.4	0.0	
	60세 이상	87.5	66.2	-24.3	5.1	3.7	-27.5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96.0	91.3	-4.9	4.3	4.1	-4.7
		기혼 유배우	141.5	134.6	-4.9	6.6	6.2	-6.1
		기혼 무배우	107.1	89.7	-16.2	6.1	5.8	-4.9
	여 성	미 혼	78.6	73.8	-6.1	4.0	3.9	-2.5
		기혼 유배우	81.2	74.3	-8.5	4.5	4.0	-11.1
		기혼 무배우	57.3	53.1	-7.3	3.3	2.6	-21.2
교육 수준	무 학	53.2	46.0	-13.5	2.7	2.3	-14.8	
	고졸 미만	76.9	73.8	-4.0	3.7	3.5	-5.4	
	고 졸	104.7	99.4	-5.1	4.9	4.5	-8.2	
	대졸 미만	105.4	85.9	-18.5	5.1	4.8	-5.9	
	전문대졸	115.1	107.9	-6.3	5.4	4.9	-9.3	
	대졸 이상	162.5	152.5	-6.2	8.1	7.9	-2.5	

주 :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의는 앞의 <표 7-3> 및 <표 7-5> 참조.

- 1) 1998년 임금근로자 4,012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을 응답한 3,966명, 시간당 임금의 집계 가능한 3,902명에 대한 자료임.
- 2) 1999년 임금근로자 3,901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을 응답한 3,820명, 시간당 임금의 집계 가능한 3,812명에 대한 자료임.
- 3) 1998년 응답자 가운데 혼인상태가 모름/무응답인 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반면 1999년 중 조사가 이루어진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차년도(1998년) 조사에 비해 오히려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7.1%가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은 무려 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여성의 임금수준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학력별로는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무학, 대졸 미만 집단에서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차년도 임금근로자를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한 후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미취업 상태로 있었던 응답자가 매우 낮은 임금수준으로 2차년도에 대거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2차년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표 7-8>에 나타나 있듯이, 지난 조사 이후 미취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응답자들은 2차년도 임금근로자의 24%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2차년도 근로소득은 월평균 6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운데 60%에 이르는 응답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하여,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임금근로자의 구성을 보면 1차년도에도 임금근로자였던 응답자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2차년도 월평균 임금수준은 116.3만원으로 전년도(114.8만원)에 비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8> 2차년도 임금근로자의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별 근로소득

(단위 : 명, %)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2차년도 근로소득	전 체	2차년도 근로소득	
			응답수	월평균 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천원>)
전 체		3,901[100.0]	3,820	103.0(5.0)
임금근로자		2,767[ 70.9]	2,739	116.3(5.5)
비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120[ 3.1]	106	87.5(4.2)
	가족종사자	22[ 0.6]	21	75.2(3.6)
미취업자		926[ 23.7]	895	66.1(3.5)
신규 조사자 <sup>1)</sup>		66[ 1.7]	59	83.1(4.4)

주 : 1) 신규 조사자는 2차년도에 만 15세가 된 응답자 및 원표본이지만 1차년도에 조사가 누락되어 2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용 설문에 답한 응답자를 말하며, 결혼 및 합가 등의 이유로 원표본가구에 추가된 가구원은 제외됨. 신규 조사자 가운데 50명은 1차년도 조사시 미취업자였으나, 개인용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417명의 일부임.

<표 7-9> 2차년도 임금근로자의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별 고용형태

(단위 : 명, %)

2차년도 고용형태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전 체		3,841(100.0)	2,682(69.8)	1,159(30.2)
임금근로자		2,748(100.0)	2,194(79.8)	554(20.2)
비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99(100.0)	48(48.5)	51(51.5)
	가족종사자	20(100.0)	10(50.0)	10(50.0)
미취업자		911(100.0)	383(42.0)	528(58.0)
신규 조사자		63(100.0)	47(74.6)	16(25.4)

주 : 2차년도 고용형태가 무응답인 6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제 2 절 사회보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에게 직장을 통하여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의 52.4%를 차지하여 3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50.1%, 47.8%로 나타났다. 각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인구학적 특성과 기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대 사회보험 모두 남성, 20대 후반,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가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가입률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23~2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녀 모두 직장의료보험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각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증가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20대 후반 이후 가입자의 비율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20~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가입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정규근로자가 많은 20세 미만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31~32%에 머물고 있으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의 이 비중은 16% 내외에 그치고 있다. 직장의

료보험의 경우에도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입률은 타연령층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비해서는 높은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직장의료보험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연령층에서는 3대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가입률이 5~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인 응답자의 각 사회보험 가입률이 52%를 상회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 경우 그 가입률은 약 20%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

		전 체	국민연금 <sup>1)</sup>		직장의료보험 <sup>2)</sup>		고용보험 <sup>3)</sup>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전 체		3,853(100.0)	1,929(50.1)	1,881(48.8)	2,019(52.4)	1,797(46.6)	1,843(47.8)	1,910(49.6)	
성 별	남 성	2,311[60.0]	1,370(59.3)	919(39.8)	1,433(62.0)	859(37.2)	1,295(59.3)	954(41.3)	
	여 성	1,542[40.0]	559(36.3)	962(62.4)	586(38.0)	938(60.8)	548(35.5)	956(62.0)	
연 령	15~19세	113[ 2.9]	35(31.0)	70(61.9)	37(32.7)	68(60.2)	36(31.9)	68(60.2)	
	20~24세	408[10.6]	217(53.2)	187(45.8)	216(52.9)	191(46.8)	214(52.5)	183(44.9)	
	25~29세	584[15.2]	337(57.7)	235(40.2)	347(59.4)	227(38.9)	340(58.2)	224(38.4)	
	30~39세	1,199[31.1]	645(53.8)	544(45.4)	668(55.7)	523(43.6)	608(50.7)	565(47.1)	
	40~49세	927[24.1]	444(47.9)	477(51.5)	461(49.7)	459(49.5)	413(44.6)	490(52.9)	
	50~59세	464[12.0]	226(48.7)	238(51.3)	236(50.9)	227(48.9)	206(44.4)	253(54.5)	
	60세 이상	158[ 4.1]	25(15.8)	130(82.3)	54(34.2)	102(64.6)	26(16.5)	127(80.4)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546[23.6]	286(52.4)	244(44.7)	290(53.1)	242(44.3)	288(52.7)	236(43.2)
		기혼 유배우	1,714[74.2]	1,069(62.4)	639(37.3)	1,125(65.6)	584(34.1)	994(58.0)	681(39.7)
		기혼 무배우	51[ 2.2]	15(29.4)	36(70.6)	18(35.3)	33(64.7)	13(25.5)	37(72.5)
	여 성	미 혼	516[33.5]	272(52.7)	235(45.5)	273(52.9)	238(46.1)	271(52.5)	230(44.6)
		기혼 유배우	878[56.9]	273(31.1)	595(67.8)	294(33.5)	572(65.1)	260(29.6)	596(67.9)
		기혼 무배우	148[ 9.6]	14( 9.5)	132(89.2)	19(12.8)	128(86.5)	17(11.5)	130(87.8)
교 육 수 준	무 학	89[ 2.3]	12(13.5)	77(28.4)	15(16.9)	73(82.0)	12(13.5)	76(85.4)	
	고졸 미만	931[24.2]	289(31.0)	631(69.2)	301(32.3)	618(66.4)	285(30.6)	629(67.6)	
	고 졸	1,523[39.5]	757(49.7)	742(12.6)	783(51.4)	719(12.6)	745(48.9)	732(48.1)	
	대졸 미만	191[ 5.0]	74(38.7)	114(35.1)	81(42.4)	108(56.5)	74(38.7)	114(59.7)	
	전문대졸	336[ 8.7]	234(69.6)	101(30.1)	242(72.0)	94(28.0)	227(67.6)	104(31.0)	
	대졸 이상	783[20.3]	563(71.9)	216(27.6)	597(76.2)	185(23.6)	500(63.9)	255(32.6)	

주 : 각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각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1)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 43명(1.1%)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 2)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37명(1.0%)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 3)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100명(2.6%)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고졸의 경우 각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약 50%대에 이르고 있으나,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67.6~72%까지 상승하고 있다. 대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 가입률은 각각 71.9%와 7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공익설비업 부문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가입률이 70%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설비업 부문 종사자의 77.4%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도 각각 75.2%, 72.2%에 이르고 있다. 금융 및 부동산업과 광공업의 각 사회보험 가입률이 60~66%로 공익설비업 부문에 이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30% 안팎의 종사자만이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 종사자 가운데 76.0%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73.1%, 고용보험 가입자가 70.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비중이 25%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65%를 상회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도 거의 60%에 육박하여 사무직 종사자에 이어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생산직 종사자 가운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외국인 회사와 공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종사자의 70%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 회사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 혹은 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100~499인 규모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 임금근로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

	전 체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전 체	3,853[100.0]	1,929(50.1)	1,881(48.8)	2,019(52.4)	1,797(46.6)	1,843(47.8)	1,910(49.6)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6[ 1.2]	10(21.7)	34(73.9)	10(21.7)	34(73.9)	7(15.2)	33(71.7)
	광공업	1,087[28.3]	667(61.4)	405(37.3)	677(62.3)	397(36.5)	664(61.1)	396(36.4)
	건설업	397[10.3]	112(28.2)	280(70.5)	110(27.7)	283(71.3)	110(27.7)	278(70.0)
	공익설비업	270[ 7.0]	203(75.2)	63(23.3)	209(77.4)	59(21.9)	195(72.2)	68(2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57[17.1]	190(28.9)	459(69.9)	190(28.9)	460(70.0)	201(30.6)	447(68.0)
	금융 및 부동산업	501[13.0]	315(62.9)	185(36.9)	330(65.9)	169(33.7)	301(60.1)	193(38.5)
	공공서비스업	886[23.0]	428(48.3)	450(50.8)	489(55.2)	390(44.0)	361(40.7)	490(55.3)
직업 <sup>2)</sup>	전문관리직	952[24.8]	619(65.0)	325(34.1)	653(68.6)	294(30.9)	560(58.8)	358(37.6)
	사무직	566[14.8]	414(73.1)	149(26.3)	430(76.0)	134(23.7)	399(70.5)	160(28.3)
	서비스직	541[14.1]	135(25.0)	399(73.8)	140(25.9)	393(72.6)	144(26.6)	387(71.5)
	농림어업직	33[ 0.9]	3( 9.1)	28(84.8)	2( 6.1)	29(87.9)	2( 6.1)	28(84.8)
	생산직	1,739[45.4]	745(42.8)	971(55.8)	779(44.8)	940(54.1)	728(41.9)	967(55.6)
기업체종류 <sup>3)</sup>	민간회사	2,810[73.7]	1,380(49.1)	1,393(49.6)	1,411(50.2)	1,367(48.6)	1,387(49.4)	1,358(48.3)
	외국인회사	29[ 0.8]	26(89.7)	3(10.3)	25(86.2)	4(13.8)	26(89.7)	3(10.3)
	공기업	137[ 3.6]	112(81.8)	23(16.8)	113(82.5)	23(16.8)	109(79.6)	26(19.0)
	법인단체	150[ 3.9]	105(70.0)	45(30.0)	119(79.3)	30(20.0)	90(60.0)	52(34.7)
	정부기관 <sup>5)</sup>	416[10.9]	269(64.7)	145(34.9)	315(75.7)	99(23.8)	201(48.3)	192(46.2)
	기 타	272[ 7.1]	26( 9.6)	244(89.7)	25( 9.2)	246(90.4)	22( 8.1)	249(91.5)
소 계	2,966[100.0]	1,552(52.3)	1,376(46.4)	1,592(53.7)	1,341(45.2)	1,533(51.7)	1,362(45.9)	
사업체규모 <sup>4)</sup>	1~4인	489[16.5]	35(11.0)	447(91.4)	40( 8.2)	441(90.2)	53(10.8)	425(86.9)
	5~9인	382[12.9]	100(26.2)	270(70.7)	99(25.9)	274(71.7)	108(28.3)	263(68.8)
	10~49인	856[28.9]	438(51.2)	409(47.8)	459(53.6)	391(45.7)	420(49.1)	418(48.8)
	50~99인	240[ 8.1]	186(77.5)	50(20.8)	193(80.4)	43(17.9)	177(73.8)	54(22.5)
	100~499인	405[13.7]	337(83.2)	65(16.0)	337(83.2)	64(15.8)	325(80.2)	69(17.0)
	500인 이상	594[20.0]	456(76.8)	135(22.7)	464(78.1)	128(21.5)	450(75.8)	133(22.4)

주 : 각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각 사회보험별 가입 여부가 불확실한 응답자의 비중은 앞의 <표 7-10> 참조.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4-6>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22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앞의 <표 4-9>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39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887명은 분석에서 제외.
- 5)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제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기관 종사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결과 모두 평균 가입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제도에 대한 면접원 및 응답자의 이해부족으로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제 3 절 노동조합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표 7-11>과 같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75.8%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더 높고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중도 더 높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의 가입 여부는 그 비중에 있어서 비슷하고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노조 가입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노동조합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4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다.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보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고 그에 가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유무 및 가입 여부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남성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사업체 규모가 큰 업체로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규모업체나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교육수준별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련된 분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의 유무는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체일수록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특이한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증가하지만, 반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비중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표 7-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의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있다	가입	미가입 <sup>1)</sup>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3,901(100.0)	757(19.7)	460(11.8)	297(7.6)	2,955(75.8)	189(4.8)	
성 별	남 성	2,342(100.0)	554(23.7)	358(15.3)	196(8.4)	1,680(71.7)	108(4.6)	
	여 성	1,559(100.0)	203(13.0)	102(6.5)	101(6.5)	1,275(81.8)	81(5.2)	
연 령	15~19세	117(100.0)	15(12.8)	11(9.4)	4(3.4)	86(73.5)	16(13.7)	
	20~24세	417(100.0)	78(18.8)	34(8.2)	44(10.6)	303(72.7)	36(8.6)	
	25~29세	586(100.0)	114(19.5)	68(11.6)	46(7.9)	446(76.1)	26(4.4)	
	30~39세	1,206(100.0)	276(22.9)	193(16.0)	83(6.9)	892(74.0)	38(3.2)	
	40~49세	938(100.0)	192(20.5)	113(12.1)	79(8.4)	709(75.6)	37(3.9)	
	50~59세	477(100.0)	75(15.8)	38(8.0)	37(7.8)	375(78.6)	27(5.7)	
	60세 이상	160(100.0)	7(4.4)	3(1.9)	4(2.5)	144(90.0)	9(5.6)	
혼 인 상 태	남성	미 혼	546(100.0)	87(15.9)	56(10.3)	31(5.7)	423(77.5)	36(6.6)
		기 혼 유배우	1,713(100.0)	460(26.9)	298(17.4)	162(9.5)	1,215(70.9)	38(2.2)
		기 혼 무배우	51(100.0)	7(13.7)	4(7.8)	3(5.9)	41(80.4)	3(5.9)
	여성	미 혼	516(100.0)	99(19.2)	48(9.3)	51(9.9)	391(75.8)	26(5.0)
		기 혼 유배우	877(100.0)	103(11.7)	54(6.2)	49(5.6)	748(85.3)	26(3.0)
		기 혼 무배우	148(100.0)	1(0.7)	-	1(0.7)	135(91.2)	12(8.1)
교 육 수 준	무 학	90(100.0)	2(2.2)	1(1.1)	1(1.1)	83(93.2)	5(5.6)	
	고졸 미만	947(100.0)	95(10.2)	78(8.2)	17(1.8)	795(84.0)	57(6.0)	
	고 졸	1,540(100.0)	281(18.5)	195(12.7)	86(5.6)	1,187(77.1)	72(4.7)	
	대졸 미만	198(100.0)	41(21.5)	24(12.1)	17(8.6)	144(72.3)	13(6.6)	
	전문대졸	340(100.0)	72(21.4)	38(11.2)	34(10.0)	250(73.5)	14(5.3)	
	대졸 이상	786(100.0)	266(33.9)	124(15.8)	142(18.1)	496(63.1)	24(3.1)	

주 :1) 미가입이라 함은 설문지에서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고 있지 않다'와 '가입자격은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를 합한 것임.

## 정규-비정규 근로실태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고용의 증가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도 1998년 23.7%로 나타났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1999년에는 30.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이 장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및 일자리 적합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정규-비정규 근로실태를 살펴본다.

## 제 1 절 근로시간

정해진 정규근무시간의 유무, 초과근로 여부 및 주당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응답내용은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의 92%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8.4%에 이르는 응답자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규직이 38.7%, 비정규직이 11.2%로 고용형태에 따라 그 비중에 차이가 난다.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주당 9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52.9시간이며, 정규직 근로자는 55.6시간, 비정규직

13)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응답자에게 종사상 지위(상용, 임시, 일용)나 근무시간형태(전일제, 시간제)와는 별도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직접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이란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한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근로자는 46.7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4시간 증가하였는데, 항목별로 보면 정규근로시간은 증가한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미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모두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에 비해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시간을 보면 남성 정규직 근로자가 주당 총 57.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44.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시간 격차는 여성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각각 정규직 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을 100으로 보았을 때,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0.5,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7.4로 나타나 정규직에 비해 약 10%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초과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보다 성별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주당 약 9시간을 초과로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약 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1> 고용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시간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차년도 (’98)	총 근로시간	52.4	54.2	46.4	56.0	48.7	50.5	43.9
	정규근로시간	49.6	50.8	45.6	51.9	47.8	48.5	43.3
	초과근로시간	8.9	9.0	7.4	9.7	8.8	6.9	6.0
2차년도 (’99)	총 근로시간	52.9	55.6	46.7	57.4	49.5	52.2	44.2
	정규근로시간	50.6	52.6	46.2	53.9	48.8	50.1	43.8
	초과근로시간	8.5	8.6	8.2	9.2	9.0	7.0	7.1

주 : 총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수치이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한 수치임.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총 근로시간과 정규근로시간은 동일한 값을 가짐.

## 제 2 절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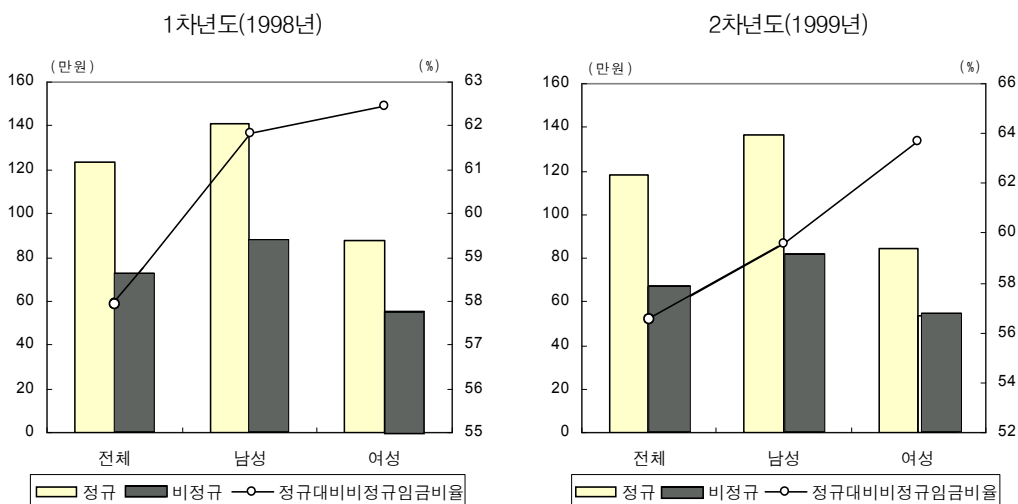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는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에 비해 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8년의 1차 조사에 비해 1999년 조사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은 118.5만원이며, 시간당 5.4천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6.5%에 해당하는 67만원이며, 시간당 임금은 72.2%에 해당하는 3.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1998년)도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57.9%, 77.2% 수준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6.3%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이보다 다소 낮은 4%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의 경우 무려 11.4%가 감소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감소율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9.6%이며,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이보다 다소 높은 6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1]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 격차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우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조사에 비해 다소 축소된 반면, 남성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단위 : 만원, 천원)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소득			
		전 체	정규	비정규	남 성		여 성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차 (’98)	월평균 임금(만원)	111.2	123.4	71.5	141.0	87.2	87.9	54.9
	시간당 임금(천원)	5.4	5.7	4.4	6.3	5.0	4.3	3.8
2차 (’99)	월평균 임금(만원)	103.0	118.5	67.0	136.8	81.5	84.2	53.6
	시간당 임금(천원)	5.0	5.4	3.9	6.1	4.4	4.1	3.4

주 :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총 근로시간) 계산에 사용한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임.

### 제 3 절 사회보험

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 명 중 한 명 정도만이 직장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월부터 임시직 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도 각종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3차년도 조사부터는 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 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직장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70~77%에 이르고 있지만 여성 정규직의 경우 이 비중은 남성에 비해 거의 20%포인트 낮은 53~58%대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수혜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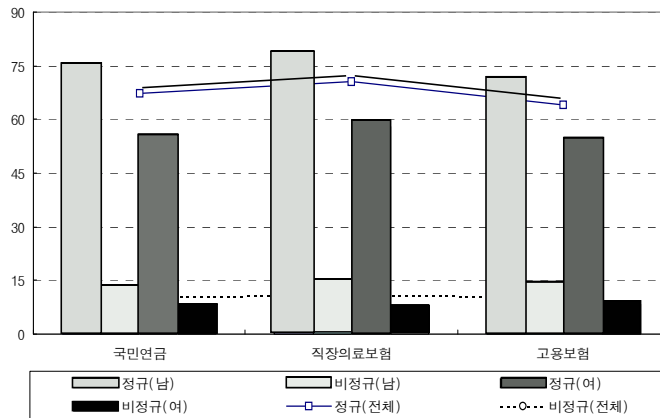
<표 8-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명,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성별-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전 체		3,841(69.8)	2,682(69.8)	1,159(30.2)	1,748(45.5)	557(14.5)	934(24.3)	602(15.7)
국민 연금	가 입	1,923(50.1)	1,803(67.2)	120(10.4)	1,291(73.9)	74(13.3)	512(54.8)	46( 7.6)
	미가입	1,875(48.8)	852(31.8)	1,023(88.3)	445(25.5)	473(84.9)	407(43.6)	550(91.4)
	모름	43( 1.1)	27( 1.0)	16( 1.4)	12( 0.7)	10( 1.8)	15( 1.6)	6( 1.0)
직장 의료 보험	가 입	2,013(52.4)	1,887(70.4)	126(10.9)	1,347(77.1)	81(14.5)	540(57.8)	45( 7.5)
	미가입	1,791(46.6)	774(28.9)	1,017(87.7)	391(22.4)	467(83.8)	383(41.0)	550(91.4)
	모름	37( 1.0)	21( 0.8)	16( 1.4)	10( 0.6)	9( 1.6)	11( 1.2)	7( 1.2)
고용 보험	가 입	1,838(47.9)	1,718(64.1)	120(10.4)	1,221(69.9)	70(12.6)	497(53.2)	50( 8.3)
	미가입	1,903(49.5)	883(32.9)	1,020(88.0)	478(27.3)	474(85.1)	405(43.4)	546(90.7)
	모름	100( 2.6)	81( 3.0)	19( 1.6)	49( 2.8)	13( 2.3)	32( 3.4)	6( 1.0)

[그림 8-2] 고용형태 및 성별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



## 제 4 절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자신의 교육 혹은 기술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하향취업자의 비중은 정규직 근로자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즉 현재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교육(기술)수준이 자신의 교육(기술)수준에 비해 낮다는 응답자는 정규직의 경우 18.6%(17.2%)이나, 비정규직인 경우 37.3%(34.7%)까지 상승한다. 기술수준과 교육수준의 부적합도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교육수준 간의 부적합도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약 41%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교육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하여 불일치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고용형태별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단위 : 명, %)

		고용형태별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성별-고용형태별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전 체		3,841(69.8)	2,682(69.8)	1,159(30.2)	1,748(45.5)	557(14.5)	934(24.3)	602(15.7)
교육 수준 대비 <sup>1)</sup>	낮다	928(24.2)	497(18.6)	431(37.3)	335(19.2)	227(40.8)	162(17.4)	204(33.9)
	맞다	2,863(74.6)	2,145(80.1)	718(62.1)	1,388(79.5)	325(58.5)	757(81.2)	393(65.4)
	높다	45( 1.2)	37( 1.4)	8( 0.7)	24( 1.4)	4( 0.7)	13( 1.4)	4( 0.7)
기술 수준 대비 <sup>2)</sup>	낮다	862(22.5)	460(17.2)	402(34.7)	313(17.9)	206(37.1)	147(15.8)	196(32.6)
	맞다	2,932(76.5)	2,186(81.7)	746(64.5)	1,411(80.9)	344(61.9)	775(83.2)	402(66.9)
	높다	39( 1.0)	30( 1.1)	9( 0.8)	20( 1.1)	6( 1.1)	10( 1.1)	3( 0.5)

주 : '낮다, 맞다, 높다'라 함은 응답자가 보유한 교육(기술)수준과 비교한 일자리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임.

1) 교육수준 적합도가 모름/무응답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

2) 기술수준 적합도가 모름/무응답인 8명은 분석에서 제외.



## 제 5 절 직업만족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미흡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기술수준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및 기술과의 불일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 근무환경 등 9개 항목에 관한 일자리 만족도 수준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수준과 복지후생 정도를 제외한 6개의 항목에서 보통(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조직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제외한 전체 항목에서의 평균적인 만족도가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8-5> 고용형태별 직업만족도

		고용형태별 일자리 만족도			성별-고용형태별 일자리 만족도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차 년도 (’98)	임 금	2.6	2.7	2.3	2.6	2.2	2.7	2.4
	취업안정성	3.0	3.2	2.3	3.1	2.2	3.3	2.4
	일의 내용	3.2	3.3	2.9	3.4	2.9	3.3	2.9
	근무환경	3.0	3.1	2.7	3.1	2.6	3.2	2.9
	발전가능성	2.9	3.0	2.5	3.0	2.5	3.0	2.6
	인간관계	3.5	3.5	3.3	3.5	3.3	3.5	3.3
	인사고과의 공정성	2.9	3.0	2.7	3.0	2.6	3.0	2.8
	복지후생정도	2.7	2.8	2.3	2.8	2.2	2.8	2.3
	2차 년도 (’99)	임 금	2.6	2.7	2.4	2.6	2.3	2.7
취업안정성		2.9	3.2	2.4	3.2	2.3	3.3	2.5
일의 내용		3.2	3.3	2.9	3.3	2.9	3.4	3.0
근무환경		3.1	3.2	2.9	3.1	2.7	3.3	3.0
근무시간		3.0	3.1	2.9	3.0	2.8	3.2	3.1
발전가능성		2.9	3.0	2.6	3.0	2.5	3.0	2.7
인간관계		3.4	3.5	3.3	3.5	3.2	3.5	3.3
인사고과의 공정성		2.9	3.0	2.7	3.0	2.6	3.0	2.7
복지후생정도		2.7	2.8	2.4	2.8	2.4	2.8	2.4

주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의 5개 척도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환산하여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그 가운데에서도 임금수준, 복지후생 정도, 그리고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2.4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만족도(3.2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의 만족수준이 다소 높았다. 한편 정규-비정규직 간 만족도의 차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규-비정규직 간 만족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는 임금수준, 취업안정성, 복지후생 등에 대한 만족수준이 적어도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제 1 절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본 절에서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이 있어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평소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류한 다음 1차년도와 2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비교해 본 결과, 고용주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약간 증가했으나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음은 2차년도에 조사한 내용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별 분포를 다루고자 한다. 비임금근로자 집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 비중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32.4%를 차지한다.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고졸 수준이 각각 38.8%, 38.4%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52.9%로 가장 높고 고용주 23.5%, 가족종사자 23.6%를 차지한다.

다음은 비임금근로자 집단을 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63.0%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50.7%로 가장 높다.

<표 9-1> 1·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1998년)	2,415(100.0)	519(21.5)	1,367(56.6)	529(21.9)
2차(1999년)	2,201(100.0)	517(23.5)	1,164(52.9)	520(23.6)

성별에 따른 혼인 여부에서도 남성의 경우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10대와 20대 초반의 경우는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나, 나머지 연령대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경우,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은 반면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산업별 종사상 지위를 보면 동일한 산업의 경우 광공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 집단은 고용주의 비중이 높으나 나머지 산업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익설비업과 농림어업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용주의 경우 종업원 수가 1~4인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201(100.0)	517(23.5)	1,164(52.9)	520(23.6)	
성 별	남 성	1,290(100.0)	420(32.6)	812(63.0)	58(4.5)	
	여 성	911(100.0)	97(10.7)	352(38.6)	462(50.7)	
연 령	15~19세	2(100.0)	-	-	2(100.0)	
	20~24세	20(100.0)	3(15.0)	6(30.0)	11(55.0)	
	25~29세	98(100.0)	25(25.5)	47(48.0)	26(26.5)	
	30~39세	597(100.0)	182(30.5)	269(45.1)	146(24.5)	
	40~49세	714(100.0)	196(27.5)	365(51.1)	153(21.4)	
	50~59세	466(100.0)	84(18.0)	274(58.8)	108(23.2)	
	60세 이상	304(100.0)	27(8.9)	203(66.8)	74(24.3)	
혼인상태	남 성	미 혼	96(100.0)	26(27.1)	49(51.0)	21(21.9)
		기혼 유배우	1,161(100.0)	384(33.1)	740(63.7)	37(3.2)
		기혼 무배우	33(100.0)	10(30.3)	23(69.7)	-
	여 성	미 혼	30(100.0)	10(33.3)	11(36.7)	9(30.0)
		기혼 유배우	768(100.0)	717(10.0)	249(32.4)	442(57.6)
		기혼 무배우	113(100.0)	10(8.9)	92(81.4)	11(9.7)
교육수준	무 학	122(100.0)	3(2.5)	77(63.1)	42(34.4)	
	고졸 미만	853(100.0)	85(10.0)	513(60.1)	255(29.9)	
	고 졸	845(100.0)	234(27.7)	434(51.4)	177(21.0)	
	대졸 미만	43(100.0)	12(27.9)	21(48.8)	10(23.3)	
	전문대졸	104(100.0)	41(39.4)	46(44.2)	17(16.4)	
	대졸 이상	234(100.0)	142(60.7)	73(31.2)	19(8.1)	

<표 9-3>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201(100.0)	517(23.5)	1,164(52.9)	520(23.6)
산 업 <sup>1)</sup>	농림어업	483(100.0)	20(4.1)	291(60.3)	172(35.6)
	광공업	269(100.0)	117(43.5)	90(33.5)	62(23.1)
	건설업	101(100.0)	42(41.6)	53(52.5)	6( 5.9)
	공익설비업	109(100.0)	17(15.6)	89(81.7)	3( 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14(100.0)	214(23.4)	475(52.0)	225(24.6)
	금융 및 부동산업	100(100.0)	36(36.0)	50(50.0)	14(14.0)
	공공서비스업	215(100.0)	62(28.8)	116(54.0)	37(17.2)
사업체 규모 <sup>2)</sup>	0인	1,552(100.0)	-	1,164(75.0)	388(25.0)
	1~4인	495(100.0)	388(78.4)	-	107(21.6)
	5~9인	83(100.0)	63(75.9)	-	20(24.1)
	10인 이상	60(100.0)	56(93.3)	-	4( 6.7)

주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1명은 분석에서 제외.

## 제 2 절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1차년도와 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1.3%포인트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고용주에 비해 가족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더 불규칙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질문한 월평균 근로일수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 26.5일, 26.7일로 그다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차년도 조사내용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을 구분하고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77.5%이며 근로시간이 규칙적일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는 27일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집단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고용주는 근로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경우 세 집단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27일 이상을 일한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고용주의 경우 24~26일 일한다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4> 1·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비교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 (98년) <sup>1)</sup>	규칙적	2,154(89.2)	479(92.3)	1,174(85.9)	501(94.7)
	월평균근로일수(일)	26.5	26.3	26.3	26.9
	불규칙적	260(10.8)	40(7.7)	192(14.1)	28(5.3)
2차 (99년) <sup>2)</sup>	규칙적	1,709(77.9)	445(87.4)	861(74.0)	403(77.5)
	월평균근로일수(일)	26.7	26.2	26.7	27.3
	불규칙적	484(22.1)	64(12.6)	303(26.0)	117(22.5)

주 : 월평균 근로일수는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1) 1차년도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와 월평균 근로일수에 각각 모름/무응답 1명, 9명은 분석에서 제외.

2) 2차년도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와 월평균 근로일수에 각각 모름/무응답 8명, 5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196(100.0)	514(100.0)	1,162(100.0)	520(100.0)	
근 로 시 간	불규칙적	484(22.0)	64(12.5)	303(26.1)	117(22.5)	
	규칙적	1,704(77.5)	442(86.0)	859(73.9)	403(77.5)	
	월평균 근로 일수	1~14일	20(0.9)	4(0.8)	13(1.1)	3(0.6)
		15~23일	165(7.5)	39(7.6)	98(8.4)	28(5.4)
		24~26일	640(29.1)	234(45.5)	279(24.0)	127(24.4)
		27일이상	879(40.0)	165(32.1)	469(40.4)	245(47.1)
	모름/무응답		8(0.4)	8(1.6)	-	-

주 : 근로시간의 규칙성/불규칙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규칙적이라고 답변했으나 월평균 근로일수가 모름/무응답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

다음은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로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근로일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9-6>에서 우선 산업별 분포를 보면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46.0%이며 규칙적인 경우가 54.0%로 비슷한 수준이며 근로시간이 규칙적일 경우에 월평균 근로일수는 24~26일 일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근로

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변한 비중이 86.0%인데, 그 중 월평균 근로일수는 27일 이상이라고 답변한 비중이 가장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해 월평균 근로일수가 비교적 긴 편에 속하는 산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 규모 면에서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가 27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일수가 조금 줄어 24~26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6>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근로일수

(단위 : 명, %)

	전 체	규칙적	월평균 근로일수				불규칙적	
			1~14일	15~23일	24~26일	27일 이상		
전 체	2,188(100.0)	1,704(77.9)	20(0.9)	165(7.5)	640(29.3)	879(40.2)	484(22.1)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83(100.0)	281(58.2)	2(0.4)	27(5.6)	70(14.5)	182(37.7)	202(41.8)
	광공업	268(100.0)	216(80.6)	1(0.4)	14(5.2)	152(56.7)	49(18.3)	52(19.4)
	건설업	100(100.0)	54(54.0)	1(1.0)	6(6.0)	34(34.0)	13(13.0)	46(46.0)
	공익설비업	109(100.0)	92(84.4)	3(2.8)	38(34.9)	36(33.0)	15(13.8)	17(1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12(100.0)	784(86.0)	4(0.4)	35(3.8)	241(26.4)	504(55.3)	128(14.0)
	금융 및 부동산업	100(100.0)	89(89.0)	2(2.0)	8(8.0)	44(44.0)	35(35.0)	11(11.0)
	공공서비스업	214(100.0)	187(87.4)	7(3.3)	37(17.3)	63(29.4)	80(37.4)	27(12.6)
사업체 규모 <sup>2)</sup>	0인	1,550(100.0)	1,146(73.9)	13(0.8)	116(7.5)	358(23.1)	659(42.5)	404(26.1)
	1~4인	494(100.0)	437(88.5)	2(0.4)	39(7.9)	202(40.9)	194(39.3)	57(11.5)
	5~9인	83(100.0)	68(81.9)	4(4.8)	7(8.4)	39(47.0)	18(21.7)	15(18.1)
	10인 이상	58(100.0)	51(87.9)	1(1.7)	3(5.2)	41(70.7)	6(10.3)	7(12.1)

주 : 근로시간의 규칙성이 모름/무응답인 1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를 볼 수 없으나 고용주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주당 3.5시간이 증가한 반면, 가족종사자의 경우 주당 2.3시간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범주로 분류하면, 주당 71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답변한 비중이 30.9%로 가장 높으며 비임금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임금근로자 집단을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구해 본 결과 고용주는 주당 62.3시간으로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1·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근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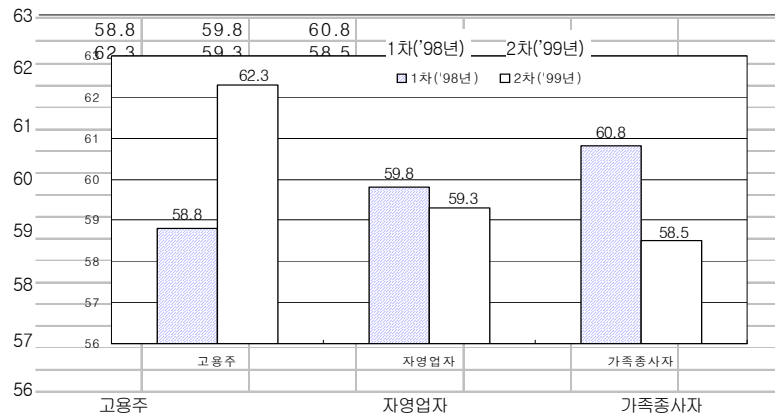
(단위 : 시간, 명)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1998년)	59.8(2,378)	58.8(516)	59.8(1,340)	60.8(522)
2차(1999년)	59.8(2,185)	62.3(504)	59.3(1,161)	58.5(520)

주 : ( )는 응답자의 수임.

[그림 9-1] 1·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표9-8>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201(100.0)	517(100.0)	1,164(100.0)	520(100.0)
주당 평균근로시간(시간)		59.8	62.3	59.3	58.5
주당근로시간	1~18시간	91(4.1)	11(2.1)	69(5.9)	11(2.1)
	19~35시간	282(12.8)	26(5.0)	148(12.7)	108(20.8)
	36~43시간	173(7.9)	29(5.6)	88(7.6)	56(10.8)
	44시간	35(1.6)	21(4.1)	9(0.8)	5(1.0)
	45~54시간	320(14.5)	110(21.3)	158(13.6)	52(10.0)
	55~70시간	605(27.5)	149(28.8)	331(28.4)	125(24.0)
	71시간 이상	679(30.9)	158(30.6)	358(30.8)	163(31.4)
	모름/무응답	16(0.7)	13(2.5)	3(0.3)	-



비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주당 5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59.6시간, 여성이 60.2시간으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총 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 52.9시간에 비해 긴 편이다. 연령별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연령층은 40대로서 63.1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기혼 여성은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그 다음이 미혼 남성으로 주당 59.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수준이 61.5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반면, 대졸 이상은 55.1시간으로 무학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2,201(100.0)	4.1	12.8	7.9	1.6	14.5	27.5	30.9	0.7	59.8
성 별	남 성	1,290(100.0)	4.2	10.2	7.2	2.1	17.8	28.5	29.2	0.9	59.6
	여 성	911(100.0)	4.1	16.5	8.8	0.9	10.0	26.0	33.3	0.6	60.2
연 령	15~19세	2(100.0)	-	50.0	-	-	-	-	50.0	-	56.5
	20~24세	20(100.0)	10.0	35.0	20.0	-	10.0	15.0	5.0	5.0	40.0
	25~29세	98(100.0)	5.1	14.3	8.2	3.1	6.1	27.6	33.7	2.0	59.8
	30~39세	597(100.0)	2.5	9.4	7.0	2.2	15.9	28.3	34.3	0.3	62.4
	40~49세	714(100.0)	3.9	8.4	4.6	1.5	15.6	29.6	35.7	0.7	63.1
	50~59세	466(100.0)	4.9	13.7	9.0	1.1	15.2	25.8	29.6	0.6	59.1
	60세 이상	304(100.0)	5.9	26.3	14.5	1.0	11.5	24.7	15.1	1.0	49.3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96(100.0)	2.1	13.5	8.3	1.0	17.7	26.0	30.2	1.0	59.7
	기혼 유배우	1,161(100.0)	4.3	9.9	7.2	2.2	17.8	28.5	29.2	0.9	59.6
	기혼 무배우	33(100.0)	6.1	12.1	6.1	-	15.2	36.4	24.2	-	57.7
	여 성										
	미 혼	30(100.0)	6.7	26.7	3.3	-	10.0	20.0	26.7	6.7	54.6
기혼 유배우	768(100.0)	3.9	16.2	9.5	1.0	9.6	25.3	34.2	0.3	60.4	
기혼 무배우	113(100.0)	4.4	15.9	5.3	-	12.4	32.7	28.3	0.9	60.1	
교 육 수 준	무 학	122(100.0)	4.1	33.6	10.7	-	9.0	26.2	14.8	1.6	48.7
	고졸 미만	853(100.0)	4.2	14.1	9.0	0.2	11.0	27.6	33.3	0.6	61.1
	고 졸	845(100.0)	3.9	9.1	6.0	2.0	16.2	28.6	33.4	0.7	61.5
	대졸 미만	43(100.0)	7.0	16.3	4.7	2.3	16.3	23.3	27.9	2.3	55.4
	전문대졸	104(100.0)	2.9	7.7	9.6	1.9	16.4	31.7	29.8	-	60.6
	대졸 이상	234(100.0)	4.7	12.4	8.6	5.6	23.1	22.7	22.2	0.9	55.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사업체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산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장시간 근로하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주당 67.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는 1~4인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가 63.2시간으로 가장 길다.

<표 9-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주당평균근로 시간(시간)
전 체		2,201(100.0)	4.1	12.8	7.9	1.6	14.5	27.5	30.9	0.7	59.8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83(100.0)	6.2	28.2	13.5	0.2	12.6	25.7	13.7	0.0	49.3
	광공업	269(100.0)	2.2	9.7	6.3	5.2	27.1	27.1	21.9	0.4	56.3
	건설업	101(100.0)	10.9	11.9	4.0	4.0	28.7	24.8	12.9	3.0	49.1
	공익설비업	109(100.0)	5.5	0.9	9.2	0.0	26.6	28.4	29.4	0.0	6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14(100.0)	2.3	7.7	5.0	0.9	9.4	30.5	43.9	0.3	67.8
	금융 및 부동산업	100(100.0)	5.0	7.0	10.0	8.0	18.0	20.0	32.0	0.0	57.3
	공공서비스업	215(100.0)	5.6	13.5	9.8	0.0	11.2	24.7	34.9	0.5	59.3
사업체 규모 <sup>2)</sup>	0인	1,552(100.0)	5.0	15.1	8.7	0.8	12.2	26.9	31.0	0.2	59.0
	1~4인	495(100.0)	1.4	7.5	6.1	2.8	17.8	30.3	33.7	0.4	63.2
	5~9인	83(100.0)	6.0	8.4	3.6	4.8	30.1	19.3	26.5	1.2	57.5
	10인 이상	60(100.0)	0.0	6.7	6.7	6.7	28.3	35.0	13.3	3.3	55.4

주 :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1명은 분석에서 제외.

### 제 3 절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다룬다. 단, 여기서 고려하게 될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의미하며 월평균 근로소득과 시간당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비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4만 8,000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고용주의 경우 44만 9,000원이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2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간당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종사상 지위에 구분 없이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근로소득으로 환산하여 보았다.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근로소득은 6,200원으로 1998년 6,800원에 비해 8.8% 하락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이 24%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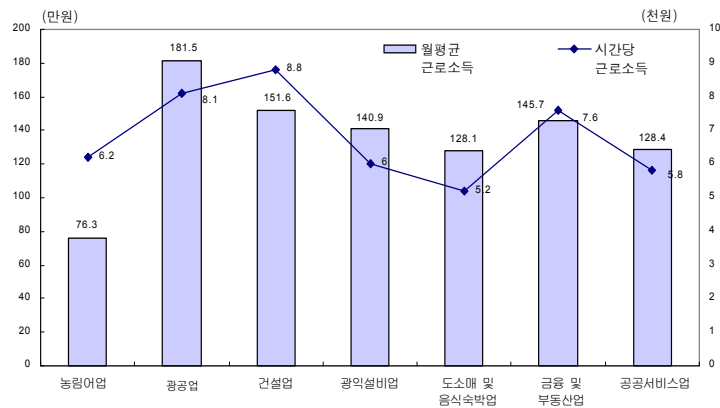
<표 9-11> 1·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비교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월평균(만, 명)	시간당(천, 명)	월평균(만, 명)	시간당(천, 명)	월평균(만, 명)	시간당(천, 명)
1차('98년)	133.3(1,475)	6.8(1,455)	232.2(369)	11.8(367)	100.2(1,106)	5.2(1,088)
2차('99년)	128.5(1,419)	6.2(1,418)	187.3(435)	9.1(434)	102.5( 984)	4.9( 984)

주 : ( )값은 응답자의 수입.

시간당 근로소득(=월평균 근로소득/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

[그림 9-2] 비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월평균 근로소득 및 시간당 근로소득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범주화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6.0%에 해당하는 50만~100만원 이하이다.

한편 적자를 본다고 답한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9.4%를 차지하며,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종사자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23.8%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0.9%가 가족종사자이며 이는 1998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3.7만원으로 여성의 월평균 근로소득 84.9만원이 비해 58.8만원이 높으며, 남성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1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에 따른 월평균 근로소득은 40대에서 152.4만원으로 가장 근로소득 수준이 높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이 하락하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가장 높은 근로소득을 얻는 집단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 남성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145.8만원이다. 또한 여성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가족종사자 비중이 50.9%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95.7%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

		전 체	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	150만~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근로소득 (만원)	적 자	가족 종사자	
전 체		2,187(100.0)	251(11.5)	349(16.0)	337(15.4)	211(9.7)	313(14.3)	128.5	206(9.4)	520(23.8)	
성 별	남 성	1,280(100.0)	130(10.2)	215(16.8)	260(20.3)	178(13.9)	284(22.2)	143.7	155(12.1)	58(4.5)	
	여 성	907(100.0)	121(13.3)	134(14.8)	77(8.5)	33(3.6)	29(3.2)	84.9	51(5.6)	462(50.9)	
연 령	15~19세	2(100.0)	-	-	-	-	-	-	-	2(100.0)	
	20~24세	18(100.0)	3(16.7)	2(11.1)	-	-	-	33.0	2(11.1)	11(61.1)	
	25~29세	96(100.0)	11(11.5)	21(21.9)	15(15.6)	6(6.3)	7(7.3)	105.1	10(10.4)	26(27.1)	
	30~39세	596(100.0)	28(4.7)	77(12.9)	115(19.3)	76(12.8)	90(15.1)	144.4	64(10.7)	146(24.5)	
	40~49세	710(100.0)	47(6.6)	103(14.5)	114(16.1)	86(12.1)	145(20.4)	152.4	62(8.7)	153(21.6)	
	50~59세	464(100.0)	54(11.6)	99(21.3)	71(15.3)	36(7.8)	56(12.1)	117.9	40(8.6)	108(23.3)	
	60세 이상	301(100.0)	108(35.9)	47(15.6)	22(7.3)	7(2.3)	15(5.0)	64.6	28(9.3)	74(24.6)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94(100.0)	9(9.6)	11(11.7)	16(17.0)	9(9.6)	7(7.5)	112.8	21(22.3)	21(22.3)
		기혼 유배우	1,153(100.0)	117(10.2)	193(16.7)	237(20.6)	167(14.5)	271(23.5)	145.8	131(11.4)	37(3.2)
		기혼 무배우	33(100.0)	4(12.1)	11(33.3)	7(21.2)	2(6.1)	6(18.2)	124.7	3(9.1)	0(0.0)
	여 성	미 혼	28(100.0)	3(10.7)	6(21.4)	4(14.3)	3(10.7)	1(3.6)	95.9	2(7.1)	9(32.1)
		기혼 유배우	766(100.0)	78(10.2)	100(13.1)	61(8.0)	26(3.4)	25(3.3)	92.5	34(4.4)	442(57.7)
		기혼 무배우	113(100.0)	40(35.4)	28(24.8)	12(10.6)	4(3.5)	3(2.7)	59.8	15(13.3)	11(9.7)
교 육 수 준	무 학	120(100.0)	54(45.0)	13(10.8)	1(0.8)	-	1(0.8)	32.3	9(7.5)	42(35.0)	
	고졸 미만	848(100.0)	117(13.8)	168(19.8)	123(14.5)	63(7.4)	58(6.8)	98.1	64(7.6)	255(30.1)	
	고 졸	841(100.0)	63(7.5)	126(15.0)	152(18.1)	97(11.5)	138(16.4)	142.3	88(10.5)	177(21.1)	
	대졸 미만	43(100.0)	2(4.7)	11(25.6)	6(14.0)	2(4.7)	7(16.3)	139.6	5(11.6)	10(23.3)	
	전문대졸	103(100.0)	4(3.9)	14(13.6)	18(17.5)	14(13.6)	26(25.2)	154.5	10(9.7)	17(16.5)	
	대졸 이상	232(100.0)	11(4.7)	17(7.3)	37(16.0)	35(15.1)	83(35.8)	196.3	30(12.9)	19(8.2)	

주 : 월평균 근로소득이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사업체 특성과 월평균 근로소득 간의 분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 비교하여 보면,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다.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이다.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했을 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평균 근로소득은 증가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과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9-13>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

		전 체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근로소득 (만원)	적 자	가족 종사자
전 체		2187(100.0)	251(11.5)	349(16.0)	337(15.4)	211(9.7)	313(14.3)	128.5	206(9.4)	520(23.8)
산업 <sup>1)</sup>	농림어업	483(100.0)	127(26.3)	71(14.7)	32(6.6)	17(3.5)	25(5.2)	76.3	39(8.1)	172(35.6)
	광공업	268(100.0)	14(5.2)	23(8.6)	42(15.7)	33(12.3)	66(24.6)	181.5	28(10.5)	62(23.1)
	건설업	99(100.0)	7(7.1)	17(17.2)	25(25.3)	13(13.1)	19(19.2)	151.6	12(12.1)	6(6.1)
	공익설비업	109(100.0)	2(1.8)	17(15.6)	30(27.5)	32(29.4)	20(18.4)	140.9	5(4.6)	3(2.8)
	도소매및음식숙박업	913(100.0)	75(8.2)	166(18.2)	148(16.2)	79(8.7)	133(14.6)	128.1	87(9.5)	225(24.6)
	금융및부동산업	100(100.0)	9(9.0)	9(9.0)	19(19.0)	13(13.0)	20(20.0)	145.7	16(16.0)	14(14.0)
	공공서비스업	213(100.0)	17(8.0)	46(21.6)	41(19.3)	24(11.3)	29(13.6)	128.4	19(8.9)	37(17.4)
사업체 규모 <sup>2)</sup>	0인	1,552(100.0)	239(15.4)	292(18.8)	235(15.1)	135(8.7)	118(7.6)	102.5	145(9.3)	388(25.0)
	1~4인	494(100.0)	9(1.8)	53(10.7)	91(18.4)	56(11.3)	127(25.7)	170.9	51(10.3)	107(21.7)
	5~9인	81(100.0)	1(1.2)	1(1.2)	6(7.4)	12(14.8)	34(42.0)	234.6	7(8.6)	20(24.7)
	10인이상	57(100.0)	1(1.8)	2(3.5)	5(8.8)	8(14.0)	34(59.7)	254.9	3(5.3)	4(7.0)

주 : 월평균 근로소득이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앞의 <표 4-6>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 구직활동

## 제 1 절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 1. 구직활동 여부와 취업 가능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와 지난 1개월 이내의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하였다.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482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8.5%이며, 지난 주에 일자리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105명으로 1.9%이다. 대부분의 미취업자(89.6%)가 지난 주는 물론 지난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를 포함하여 지난 1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구직자로 정의하였다. 지난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중은 21.8%에서 10.4%로 11.4%포인트 감소하였다. 남성의 감소 폭이 더욱 커, 남성의 경우는 14.2%포인트, 여성은 9.8%포인트 감소하였다. 현재의 인구특성별 구직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자의 비중은 성별 차이를 보여서 남성이 17.0%로 여성(6.6%)보다 10.4%포인트가 높다. 성별 구직자 비중의 차이는 연령별 구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남성은 20대 초반에 17.7%이던 구직자의 비중이 30대에서 48.6%, 40대에서 46.7%로 증가한 후 50대에 들어 하락한다. 반면 여성은 20대 초반에 19.3%로 가장 높게 오르고 20대 후반에는 5.6%로 떨어지며 다시 30대에 들어 9.2%로 증가한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혼 유배우자 중의 구직자 비중이 23.6%로 미혼자나 기혼 무배우자에 비해 가장 높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미혼자의 구직자 비중이 10.1%로 가장 높으며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는 5.6%에 달한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구직자의 비중은 전문대졸자의 경우가 남녀 모두 가장 높다. 남성은 고졸자와 대졸 이상의 순이나 여성의 경우 구직자의 비중은 대졸 미만자가 고졸자의 경우보다 높다.

<표 10-1> 성별 미취업자의 지난 주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지난 주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안함	전 체	지난 주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안함
1차년도		2,516 (100.0)	645 (25.6)	141 (5.6)	1,730 (68.8)	4,352 (100.0)	530 (12.2)	184 (4.2)	3,638 (83.6)
2차년도		2,038 (100.0)	294 (14.4)	54 (2.6)	1,690 (82.9)	3,625 (100.0)	188 (5.2)	51 (1.4)	3,386 (93.4)
연령	15~19세	656 (100.0)	23 (3.5)	8 (1.2)	625 (95.3)	591 (100.0)	11 (1.9)	9 (1.5)	571 (96.6)
	20~24세	259 (100.0)	35 (13.5)	11 (4.2)	213 (82.2)	337 (100.0)	52 (15.4)	13 (3.9)	272 (80.7)
	25~29세	187 (100.0)	44 (23.5)	7 (3.7)	136 (72.7)	340 (100.0)	16 (4.7)	3 (0.9)	321 (94.4)
	30~39세	148 (100.0)	64 (43.2)	8 (5.4)	76 (51.4)	662 (100.0)	51 (7.7)	10 (1.5)	601 (90.8)
	40~49세	137 (100.0)	58 (42.3)	6 (4.4)	73 (53.3)	483 (100.0)	32 (6.6)	7 (1.4)	444 (91.9)
	50~59세	191 (100.0)	42 (22.0)	7 (3.7)	142 (74.3)	405 (100.0)	14 (3.5)	6 (1.5)	385 (95.1)
	60세 이상	460 (100.0)	28 (6.1)	7 (1.5)	425 (92.4)	807 (100.0)	12 (1.5)	3 (0.4)	792 (98.1)
혼인 상태	미 혼	1,157 (100.0)	116 (10.0)	30 (2.6)	1,011 (87.4)	1,004 (100.0)	76 (7.6)	25 (2.5)	903 (89.9)
	기혼 유배우	792 (100.0)	168 (21.2)	19 (2.4)	605 (76.4)	2,087 (100.0)	93 (4.5)	22 (1.1)	1,972 (94.5)
	기혼 무배우	89 (100.0)	10 (11.2)	5 (5.6)	74 (83.1)	534 (100.0)	19 (3.6)	4 (0.7)	511 (95.7)
교육 수준	무 학	108 (100.0)	5 (4.6)	1 (0.9)	102 (94.4)	473 (100.0)	10 (2.1)	2 (0.4)	461 (97.5)
	고졸 미만	913 (100.0)	78 (8.5)	15 (1.6)	820 (89.8)	1,337 (100.0)	57 (4.3)	13 (1.0)	1,267 (94.8)
	고 졸	402 (100.0)	128 (31.8)	18 (4.5)	256 (63.7)	1,089 (100.0)	77 (7.1)	11 (1.0)	1,001 (91.9)
	대졸 미만	380 (100.0)	22 (5.8)	10 (2.6)	348 (91.6)	346 (100.0)	24 (6.9)	14 (4.0)	308 (89.0)
	전문대졸	53 (100.0)	18 (34.0)	2 (3.8)	33 (62.3)	150 (100.0)	12 (8.0)	5 (3.3)	133 (88.7)
	대졸 이상	182 (100.0)	43 (23.6)	8 (4.4)	131 (72.0)	230 (100.0)	8 (3.5)	6 (2.6)	216 (93.9)

지난 주와 지난 1개월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경우, 지난 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지난 주에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구직자 중 88.6%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보다 4.8%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지난 주에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2.8%이며, 여성은 그보다 낮은 82.4%이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중이 낮고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연령층의 경우 구직자의 비중은 가장 높으나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87.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간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의 경우 구직자 중 지난 주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92.3%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고졸 미만자로 90.2%이다.

<표 10-2> 미취업자의 지난 주 취업 가능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없었다	
1차년도		1,500 (100.0)	1,257 (83.8)	243 (16.2)	
2차년도		587 (100.0)	520 (88.6)	67 (11.4)	
성별	남 성	348 (100.0)	323 (92.8)	25 ( 7.2)	
	여 성	239 (100.0)	197 (82.4)	42 (17.6)	
연령	15~19세	51 (100.0)	41 (80.4)	10 (19.6)	
	20~24세	111 (100.0)	97 (87.4)	14 (12.6)	
	25~29세	70 (100.0)	69 (98.6)	1 ( 1.4)	
	30~39세	133 (100.0)	115 (86.5)	18 (13.5)	
	40~49세	103 (100.0)	93 (90.3)	10 ( 9.7)	
	50~59세	69 (100.0)	65 (94.2)	4 ( 5.8)	
	60세 이상	50 (100.0)	40 (80.0)	10 (20.0)	
혼인 상태	남성	미 혼	146 (100.0)	136 (93.2)	10 ( 6.8)
		기혼유배우	187 (100.0)	175 (93.6)	12 ( 6.4)
		기혼무배우	15 (100.0)	12 (80.0)	3 (20.0)
	여성	미 혼	101 (100.0)	85 (84.2)	16 (15.8)
		기혼유배우	115 (100.0)	91 (79.1)	24 (20.9)
		기혼무배우	23 (100.0)	21 (91.3)	2 ( 8.7)
교육 수준	무 학	18 (100.0)	14 (77.8)	4 (22.2)	
	고졸 미만	163 (100.0)	147 (90.2)	16 ( 9.8)	
	고 졸	234 (100.0)	216 (92.3)	18 ( 7.7)	
	대졸 미만	70 (100.0)	54 (77.1)	16 (22.9)	
	전문대졸	37 (100.0)	33 (89.2)	4 (10.8)	
	대졸 이상	65 (100.0)	56 (86.2)	9 (13.8)	



지난 주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지난 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  
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된 이유를 질문하였다. 67명 중 22.4%가 학업을 주된 이유  
로 들었고 13.4%는 자녀양육을, 14.9%는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답하였다.

<표 10-3>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빈도(명)	비중(%)
전 체	67	100.0
학업 때문에	15	22.4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9	13.4
가사일 때문에	7	10.4
은퇴하여서(나이가 많아서)	7	10.4
건강문제로	10	14.9
당분간 쉬고 싶어서	4	6.0
기 타	15	22.4

## 2.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지난 1개월간 한 번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73명으로 미취업자 5,663명 중 10.1%이다. 인구특성을 살펴보면,  
비구직자 중 취업 가능자는 남성(38.0%)보다 여성(62.0%)이,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21.8%)  
이 많았다. 성별 혼인상태는 여성 기혼 유배우자(40.5%)가,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38.0%)가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 취업을 원하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22.7%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24.3%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이라고 답하였  
다. 인구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56.0%가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여성은 그보다 낮은 41.4%가 이에 해당된  
다. 이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20대 후반에는 31.8%이나 60대에는 74.4%로 증가한  
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 유배우자의 경우 39.8%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하였고,  
26.0%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교  
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구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 대졸 이상자  
의 경우는 34.5%이지만 고졸 미만의 경우 56.9%로 증가한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노동시장에 실업자로 남아 있기보다  
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서는 비중이 높아진다.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는 각각 11.0%

와 8.7%에 달한다. 남성의 경우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 0.9%에 불과하고 가사일을 돌보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그 비중은 17.2%와 14.1%에 달한다. 연령별로 20대 후반의 경우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3%이고 이 비중은 30대에는 32.8%로 증가한다. 30대의 경우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15.2%, 40대에는 15.6%이다. 여성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 24.6%가 자녀양육 때문에, 19.8%가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일을 찾으려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34.0%가 학업을 들었다. 이는 구직의사와 취업의사가 모두 없는 응답자의 32.0%가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인구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업을 주된 이유로 든 경우는 15~19세와 20~24세의 연령층에서 각각 96.2%와 76.3%로 높다.

<표 10-4> 미취업자의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전 체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여성, 고령자, 장애인 차별	구직결과를 기다림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	가사일 때문	건강상 이유로	기 타	
전 체		100.0 (573)	22.7 (130)	24.3 (139)	5.9 (34)	4.7 (27)	1.9 (11)	11.0 (63)	8.7 (50)	6.3 (36)	14.5 (83)	
성별	남 성	218	24.8	31.2	7.8	5.5	2.3	0.9	-	9.6	17.9	
	여 성	355	21.4	20.0	4.8	4.2	1.7	17.2	14.1	4.2	12.4	
연령	15~19세	49	12.2	16.3	22.4	-	-	4.1	-	4.1	40.8	
	20~24세	67	19.4	20.9	10.4	-	6.0	3.0	6.0	6.0	28.4	
	25~29세	69	10.1	21.7	8.7	1.4	4.3	20.3	4.3	7.2	21.7	
	30~39세	125	20.8	12.8	1.6	-	0.8	32.8	15.2	4.0	12.0	
	40~49세	96	26.0	29.2	5.2	4.2	1.0	2.1	15.6	5.2	11.5	
	50~59세	77	29.9	27.3	2.6	6.5	2.6	2.6	10.4	15.6	2.6	
	60세 이상	90	33.3	41.1	1.1	18.9	-	-	1.1	3.3	1.1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88	21.6	20.5	13.6	-	5.7	-	-	9.1	29.5
		기혼유배우	123	26.0	39.8	3.3	8.9	-	1.6	-	9.8	10.6
		기혼무배우	7	42.9	14.3	14.3	14.3	-	-	-	14.3	-
	여 성	미 혼	89	18.0	25.8	14.6	1.1	4.5	-	-	3.4	28.1
		기혼 유배우	232	23.3	16.4	1.7	3.0	0.9	24.6	4.5	3.0	7.3
		기혼 무배우	34	17.6	29.4	-	20.6	-	11.8	19.8	14.7	5.9
교육 수준	무 학	27	14.8	40.7	3.7	22.2	-	-	7.4	11.1	-	
	고졸 미만	181	24.9	32.0	8.3	7.7	1.7	2.8	6.1	5.5	11.0	
	고 졸	218	24.3	22.0	3.7	1.8	0.9	17.0	11.9	8.3	10.1	
	대졸 미만	49	16.3	10.2	16.3	-	6.1	4.1	2.0	4.1	40.8	
	전문대졸	37	21.6	21.6	-	-	2.7	32.4	5.4	-	16.2	
	대졸 이상	61	19.7	14.8	3.3	4.9	3.3	11.5	13.1	4.9	24.6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이유로 든 경우는 각각 16.1%와 11.5%이다. 이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0.5%만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이유로 든 반면 여성은 17.0%가 자녀양육을, 23.8%가 가사일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연령별로는 자녀양육의 경우 20대 후반이 44.3%이고, 30대는 50.2%로 가장 높다. 가사일의 경우 40대 연령층에서 비중이 57.2%로 가장 높다.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부담은 30대 연령층의 경우 취업의사를 저하시키는 주된 이유로 80.3%를 차지하여 30대 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 여성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 67.8%가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주된 부담요인으로 꼽고 있다.

은퇴하여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는 19.0%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67.0%가 이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건강문제로 일을 앓으려는 경우가 24.0%에 달한다.

<표 10-5> 미취업자의 취업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

		전 체	학업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일때문	가사일 때문에	은퇴하여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 문제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 타	
전 체		100.0 (4,503)	34.0 (1,529)	11.5 (520)	16.1 (724)	19.0 (857)	13.3 (597)	2.0 (90)	4.1 (186)	
성별	남 성	1,472	55.6	0.3	0.2	19.4	15.7	3.2	5.7	
	여 성	3,031	23.5	17.0	23.8	18.9	12.1	1.4	3.4	
연령	15~19세	1,147	96.2	0.2	0.2	-	0.4	0.4	2.6	
	20~24세	418	76.3	4.5	4.3	-	3.8	3.1	7.9	
	25~29세	388	23.5	44.3	12.4	-	4.1	5.2	10.6	
	30~39세	552	1.8	50.2	30.1	0.2	8.9	3.1	5.8	
	40~49세	421	1.2	7.4	57.2	1.4	23.8	2.9	6.2	
	50~59세	450	-	2.0	38.4	21.1	31.3	3.6	3.6	
	60세 이상	1,127	0.1	0.9	6.7	67.0	24.0	0.6	0.7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923	87.6	0.1	0.1	-	3.6	1.7	6.8
		기혼 유배우	482	1.9	0.6	0.2	52.3	34.9	5.8	4.4
		기혼 무배우	67	-	-	1.5	49.3	44.8	4.5	-
	여 성	미 혼	814	86.4	0.1	1.8	0.1	3.3	3.1	5.2
		기혼 유배우	1,740	0.4	29.2	38.6	14.7	13.2	0.7	3.2
		기혼 무배우	477	0.2	1.5	7.1	66.0	23.1	1.0	1.0
교육 수준	무 학	536	-	0.9	5.4	67.7	25.0	0.2	0.7	
	고졸 미만	1,906	44.3	3.1	14.2	18.9	16.6	0.9	1.9	
	고 졸	1,039	7.5	31.5	30.7	9.3	10.0	3.8	7.2	
	대졸 미만	607	88.6	1.8	1.8	0.5	2.3	1.3	3.6	
	전문대졸	129	11.6	37.2	27.1	3.1	5.4	3.9	11.6	
	대졸 이상	286	18.9	24.1	21.0	10.1	7.3	7.0	11.5	

### 3. 구직활동 방법과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미취업자는 구직을 위해 평균 1.9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48.1%이며 2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25.4%이다.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사용하는 구직활동 방법을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미취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직방법은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60.2%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가족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14.6%이며,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는 8.7%로, 83.5%가 개인적 관계망을 이용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표 10-6>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방법

(단위 : 명, %)

		전체	학교, 학원, 스승의 소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직업 안내소	사설직업 안내소	신문, TV 등의 구인광고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족을 통해서	인터넷 등 전산망	기타	
1차년도		1,500	9.8	57.0	11.3	5.3	53.3	32.1	12.8	6.7	2.6	
2차년도		520	8.7	60.2	13.7	2.7	50.0	26.9	14.6	9.0	3.7	
성별	남성	323	7.1	63.2	13.6	3.1	46.7	31.0	14.2	9.3	3.7	
	여성	197	11.2	55.3	13.7	2.0	55.3	20.3	15.2	8.6	3.6	
연령	15~19세	41	29.3	51.2	2.4	0.0	61.0	24.4	14.6	14.6	0.0	
	20~24세	97	16.5	63.9	8.2	2.1	60.8	17.5	17.5	14.4	1.0	
	25~29세	69	17.4	53.6	13.0	2.9	55.1	20.3	11.6	24.6	1.4	
	30~39세	115	1.7	61.7	7.8	3.5	58.3	22.6	18.3	7.0	5.2	
	40~49세	93	2.2	66.7	17.2	4.3	43.0	36.6	14.0	1.1	2.2	
	50~59세	65	0.0	56.9	29.2	1.5	40.0	47.7	9.2	1.5	4.6	
	60세 이상	40	2.5	57.5	22.5	2.5	12.5	20.0	12.5	0.0	15.0	
혼인상태	남성	미혼	136	14.0	62.5	5.1	2.2	53.7	18.4	12.5	16.2	1.5
		기혼 유배우	175	2.3	62.9	20.0	4.0	40.6	40.6	14.9	4.6	5.1
		기혼 무배우	12	-	75.0	16.7	-	58.3	33.3	25.0	-	8.3
	여성	미혼	85	22.4	50.6	14.1	2.4	68.2	23.5	18.8	17.6	1.2
		기혼 유배우	91	4.8	60.4	12.1	1.1	50.5	17.6	11.0	2.2	3.3
		기혼 무배우	21	8.7	52.4	19.0	4.8	23.8	19.0	19.0	-	14.3
교육수준	무학	14	0.0	57.1	14.3	7.1	14.3	21.4	7.1	0.0	28.6	
	고졸 미만	147	4.8	64.6	17.7	1.4	40.1	30.6	16.3	0.7	3.4	
	고졸	216	3.2	64.4	10.6	1.9	60.2	24.1	12.0	4.2	2.8	
	대졸 미만	54	35.2	48.1	16.7	7.4	55.6	27.8	16.7	27.8	0.0	
	전문대졸	33	15.2	66.7	15.2	6.1	60.6	18.2	30.3	21.2	0.0	
	대졸 이상	56	12.5	41.1	10.7	1.8	33.9	33.9	10.7	26.8	7.1	

주 : 520명 중의 비중으로 복수응답임.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50.0%이며,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경우는 26.9%이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13.7%이고 사설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인터넷 등의 전산망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는 9.0%에 달한다.

구직활동 방법을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친구 및 친지를 통한 방법과 일자리를 직접 찾아다니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와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비슷한 비중로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으며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방법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학교나 학원, 스승의 추천을 이용하는 비중과 신문 등의 광고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 등의 전산망을 통한 구직활동 방법은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구직방법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자의 경우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한 방법과 신문 등의 구인광고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으나, 대졸 또는 전문대졸과 대졸 미만자의 경우 학교나 학원, 스승의 추천을 통한 방법과 인터넷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구직기간은 평균 24.5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1~4주 사이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고, 9주 이상 24주 미만인 경우도 23.5%에 달한다. 평균 구직기간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구직기간은 평균 28.4주인 반면, 여성은 그보다 짧은 17.9주이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기간은 늘어나, 20~24세 연령층의 경우 19.0주인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평균 34.0주로 늘어난다.

<표 10-7> 미취업자의 구직기간

(단위 : 명, %)

		전 체	1~4주	5~8주	9~24주	25~48주	49주 이상	평균구직기간(주)
전 체		100.0 (396)	27.8 (110)	14.1 (56)	23.5 (93)	20.5 (81)	14.1 (56)	24.5
성별	남 성	249	25.7	12.9	23.3	19.3	18.9	28.4
	여 성	147	31.3	16.3	23.8	22.4	6.1	17.9
연령	15~19세	34	52.9	26.5	5.9	11.8	2.9	9.8
	20~24세	76	36.8	21.1	15.8	14.5	11.8	19.0
	25~29세	60	23.3	11.7	25.0	25.0	15.0	25.7
	30~39세	79	27.8	10.1	27.8	20.3	13.9	23.6
	40~49세	70	18.6	11.4	24.3	25.7	20.0	32.2
	50~59세	46	26.1	8.7	34.8	10.9	19.6	26.2
	60세 이상	31	9.7	12.9	29.0	38.7	9.7	34.0

주 : 구직활동기간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2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를 합하여 어려움의 항목에 대한 동의 비중을 구하였다. 구직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89.2%의 미취업 구직자가 동의하였다.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는 인구특성에 관계 없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취업 또는 창업 정보의 부족에 대해서 76.0%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 또는 창업 정보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는 데 60.2%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인구특성별로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연령층이,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연령층이 제시된 일자리의 수입을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미취업자의 구직시 어려움의 정도

(단위 : 명, %)

		전체	일자리 부족	취업창업 정보부족	학력기술 기능부족	경험 부족	제시된 수입이 적음	근무환경 시간 부적합	나이가 많음	사업자금 부족	여성이기 때문 <sup>1)</sup>	
1차년도		1,500	93.4	80.0	52.4	51.8	58.4	48.9	36.9	49.6	46.6	
2차년도		520	89.2	76.0	40.4	49.0	60.2	37.1	39.8	54.2	42.1	
성별	남 성	323	90.4	76.2	35.9	43.0	57.0	31.6	39.3	56.7	-	
	여 성	197	87.3	75.6	47.7	58.9	65.5	46.2	40.6	50.3	42.1	
연령	15~19세	41	80.5	87.8	53.7	78.0	63.4	39.0	4.9	36.6	14.3	
	20~24세	97	85.6	72.2	36.1	66.0	66.0	41.2	9.3	38.1	30.9	
	25~29세	69	94.2	72.5	34.8	52.2	63.8	40.6	17.4	60.9	57.9	
	30~39세	115	87.8	76.5	40.9	42.6	61.7	42.6	38.3	60.9	33.3	
	40~49세	93	88.2	67.7	40.9	36.6	61.3	39.8	57.0	59.1	58.8	
	50~59세	65	93.8	83.1	41.5	36.9	52.3	23.1	80.0	67.7	58.8	
	60세 이상	40	97.5	85.0	42.5	40.0	42.5	20.0	87.5	47.5	70.0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136	84.6	75.7	42.6	61.0	63.2	43.4	17.6	52.2	-
		기혼 유배우	175	94.9	76.0	29.1	28.0	51.4	21.7	54.3	57.7	-
		기혼 무배우	12	91.7	83.3	58.3	58.3	66.7	41.7	66.7	91.7	-
	여 성	미 혼	85	90.6	75.3	34.1	67.1	74.1	40.0	17.6	42.4	35.3
		기혼 유배우	91	83.5	74.7	58.2	51.6	56.0	52.7	57.1	54.9	47.3
		기혼 무배우	21	90.5	81.0	57.1	57.1	71.4	42.9	61.9	61.9	47.6
교육 수준	무 학	14	85.7	71.4	57.1	64.3	42.9	21.4	100.0	35.7	55.6	
	고졸 미만	147	94.6	80.3	54.4	42.9	52.4	31.3	49.0	53.7	45.8	
	고졸	216	86.6	76.9	39.8	50.9	63.0	35.2	38.0	56.9	45.5	
	대졸 미만	54	92.6	75.9	31.5	68.5	72.2	63.0	18.5	40.7	22.2	
	전문대졸	33	87.9	72.7	27.3	51.5	54.5	39.4	27.3	60.6	13.3	
	대졸 이상	56	83.9	64.3	17.9	33.9	66.1	37.5	35.7	58.9	80.0	

주 : 항목에 동의(‘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 편이다’)하는 경우의 비중임.

1) 여성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함.

경험과 학력, 기술, 기능 등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경험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42.1%가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에 동의하였다. 1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에 동의하는 정도가 약간 낮아졌다.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경우 93.4%가 동의하고 있었고 2차년도에 들어서는 89.2%로 약간 낮아졌다. 학력과 기술, 기능 등의 부족의 동의 정도는 12.0%가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자금의 부족과 일자리에서 제시하는 수입이 적다는 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1차년도에 비해 높아졌다.

#### 4.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그리고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의 23.7%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17.5%는 금융 및 부동산산업에, 16.7%는 공공서비스업을 희망하였다. 광공업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16.2%이며 건설업에는 13.5%가 종사하기 원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은 단지 0.8%만이 원하고 있다.

희망하는 산업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희망 비중이 각각 20.1%와 19.8%로 비슷하고, 광공업을 희망하는 비중도 16.7%로 높다. 반면 여성의 경우 희망하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9.4%)이 가장 많고, 공공서비스업(25.9%), 그리고 금융 및 부동산업(19.3%)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령층에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업 분야의 희망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40대 희망자가 34.4%로 가장 높은 반면, 금융 및 부동산업은 20대 후반과 30대의 희망 비중이 높다. 광공업을 희망하는 경우 30~40대 장년층의 희망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건설업은 50대의 희망 비중이 24.6%로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 미혼자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25.7%로 가장 많지만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는 건설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미혼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공공서비스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고, 기혼 유배우자 역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지만 광공업을 원하는 경우도 20.9%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 학력자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25.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설업으로 20.4%가 희망하고 있다.

고졸자의 경우 역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가장 많이 원하지만, 건설업보다는 광공업을 희망 비중이 더욱 높다.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자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광공업보다는 금융서비스업의 희망 비중이 높다.

구직중인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생산직이 41.7%로 가장 많다. 다음이 서비스직으로 22.5%이고, 전문관리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17.5%이다. 희망하는 직업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과반수인 50.8%가 생산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7.5%가 전문관리직을, 17.0%가 서비스직을 원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가장 많은 31.5%가 서비스직을 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6.9%는 생산직을, 24.9%는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어 남성과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늘어나, 20세 초반의 경우 20.6%만이 생산직을 희망하는 반면, 50대에서는 66.2%가 생산직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전문관리직과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20대 초반의 경우 29.9%가 사무직을, 26.8%가 전문관리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50대로 가면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의 희망 비중은 각각 7.7%와 6.2%로 낮아진다.

<표 10-9>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산업

(단위 : 명, %)

		전 체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 설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분류 불가	
전 체		100.0 (520)	0.8 (4)	16.2 (84)	13.5 (70)	4.6 (24)	23.7 (123)	17.5 (91)	16.7 (87)	7.1 (37)	
성별	남 성	323	0.9	16.7	19.8	6.8	20.1	16.4	11.1	8.0	
	여 성	197	0.5	15.2	3.0	1.0	29.4	19.3	25.9	5.6	
연령	15~19세	41	-	7.3	7.3	2.4	43.9	17.1	17.1	4.9	
	20~24세	97	1.0	13.4	9.3	2.1	22.7	22.7	22.7	6.2	
	25~29세	69	1.4	15.9	13.0	4.3	17.4	33.3	4.3	10.1	
	30~39세	115	0.9	23.5	8.7	6.1	25.2	11.3	13.9	10.4	
	40~49세	93	-	20.4	15.1	5.4	34.4	5.4	11.8	7.5	
	50~59세	65	1.5	13.8	24.6	7.7	12.3	18.5	21.5	-	
	60세 이상	40	-	5.0	22.5	2.5	5.0	22.5	35.0	7.5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136	-	17.6	13.2	7.4	25.7	17.6	9.6	8.8
		기혼 유배우	175	1.7	16.0	24.0	6.9	15.4	15.4	13.1	7.4
		기혼 무배우	12	-	16.7	33.3	-	25.0	16.7	-	8.3
	여 성	미 혼	85	1.2	7.1	3.5	1.2	21.2	32.9	25.9	7.1
		기혼 유배우	91	-	20.9	3.3	1.1	36.3	11.0	22.0	5.5
		기혼 무배우	21	-	23.8	-	-	33.3	-	42.9	-
교육 수준	무 학	14	-	14.3	14.3	-	14.3	-	57.1	-	
	고졸 미만	147	-	15.6	20.4	6.1	25.9	9.5	15.6	6.8	
	고 졸	216	0.5	20.4	11.1	4.6	26.9	18.1	12.0	6.5	
	대졸 미만	54	3.7	7.4	7.4	5.6	18.5	20.4	33.3	3.7	
	전문대졸	33	-	15.2	9.1	-	15.2	30.3	18.2	12.1	
	대졸 이상	56	1.8	10.7	12.5	3.6	17.9	30.4	10.7	12.5	

주 : <표 4-6> 참조.



성별 혼인상태별로는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와 상관 없이 생산직의 희망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여성은 혼인상태별로 희망하는 직업에 차이가 현저하여, 미혼인 경우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45.9%에 이르지만 기혼자의 경우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11.0%로 낮아지고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희망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자와 고졸자의 경우 생산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61.9%와 44.4%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희망 비중이 높아, 대졸 이상자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희망 비중이 48.2%, 사무직은 17.9%에 달한다.

<표 10-10>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직업

(단위 : 명, %)

		전 체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직	분류 불가	
전 체		100.0 (520)	17.5 (91)	14.0 (73)	22.5 (117)	0.8 ( 4)	41.7 (217)	3.5 (18)	
성별	남 성	323	19.8	7.4	17.0	0.9	50.8	4.0	
	여 성	197	13.7	24.9	31.5	0.5	26.9	2.5	
연령	15 ~ 19세	41	19.5	19.5	31.7	-	26.8	2.4	
	20 ~ 24세	97	26.8	29.9	19.6	1.0	20.6	2.1	
	25 ~ 29세	69	26.1	21.7	13.0	1.4	34.8	2.9	
	30 ~ 39세	115	17.4	7.8	28.7	0.9	38.3	7.0	
	40 ~ 49세	93	15.1	4.3	31.2	-	45.2	4.3	
	50 ~ 59세	65	7.7	6.2	18.5	1.5	66.2	-	
	60세 이상	40	-	10.0	5.0	-	82.5	2.5	
혼인 상태	남성	미 혼	136	23.5	8.8	19.1	-	42.6	5.9
		기혼 유배우	175	18.3	5.7	15.4	1.7	56.0	2.9
		기혼 무배우	12	-	16.7	16.7	-	66.7	-
	여성	미 혼	85	25.9	45.9	21.2	1.2	5.9	-
		기혼 유배우	91	5.5	11.0	39.6	-	38.5	5.5
		기혼 무배우	21	-	-	38.1	-	61.9	-
교육 수준	무 학	14	-	-	14.3	-	85.7	-	
	고졸 미만	147	4.1	3.4	25.2	-	61.9	5.4	
	고 졸	216	9.7	18.5	23.1	0.5	44.4	3.7	
	대졸 미만	54	50.0	14.8	18.5	3.7	13.0	-	
	전문대졸	33	30.3	30.3	24.2	-	12.1	3.0	
	대졸 이상	56	48.2	17.9	17.9	1.8	12.5	1.8	

주 : <표 4-6> 참조.

구직중인 미취업자의 70.0%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원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원하는 경우는 17.1%이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12.7%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71.8%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15.5%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고 있다. 여성 역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다. 반면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의 희망 비중은 8.1%로 남성보다 7.4%포인트 낮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젊은 층과 30대 이상의 장년층에 차이가 있어, 20대인 경우 대다수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반면, 30대로 들어서면서 고용주 및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22.6%로 증가한다. 또한 50대 이상으로 가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

<표 10-11>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단위 : %, 명)

		전 체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전 체		100.0 (520)	70.0 (364)	17.1 ( 89)	12.7 ( 66)	0.2 ( 1)	
성별	남 성	323	71.8	12.4	15.5	0.3	
	여 성	197	67.0	24.9	8.1	-	
연령	15~19세	41	61.0	34.1	4.9	-	
	20~24세	97	82.5	12.4	5.2	-	
	25~29세	69	88.4	5.8	4.3	1.4	
	30~39세	115	61.7	15.7	22.6	-	
	40~49세	93	68.8	11.8	19.4	-	
	50~59세	65	61.5	20.0	18.5	-	
	60세 이상	40	57.5	42.5	-	-	
혼인 상태	남성	미 혼	136	81.6	11.0	7.4	-
		기혼 유배우	175	64.6	13.1	21.7	0.6
		기혼 무배우	12	66.7	16.7	16.7	-
	여성	미 혼	85	80.0	15.3	4.7	-
		기혼 유배우	91	56.0	33.0	11.0	-
		기혼 무배우	21	61.9	28.6	9.5	-
교육 수준	무 학	14	50.0	50.0	-	-	
	고졸 미만	147	67.3	21.8	10.9	-	
	고 졸	216	70.4	13.0	16.2	0.5	
	대졸 미만	54	63.0	31.5	5.6	-	
	전문대졸	33	81.8	3.0	15.2	-	
	대졸 이상	56	80.4	7.1	12.5	-	

성별 혼인상태별로는, 남성 미혼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81.6%이나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 이는 64.6%로 감소하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21.7%로 높아진다. 여성의 경우 역시 미혼자의 81.6%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나,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33.0%로 높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 대졸 및 전문대졸자의 대부분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원하고 있다. 고졸자의 경우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원하는 비중이 높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원하는 경우는 무학과 고졸 미만의 학력자, 그리고 대졸 미만의 학력자에게서 높는데, 이는 고졸 미만 학력자의 경우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졸 미만 학력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0-12>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단위 : %, 명)

		전 체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00.0 (453)	83.2 (377)	16.8 (76)	
성 별	남 성	272	91.5	8.5	
	여 성	181	70.7	29.3	
연 령	15~19세	39	69.2	30.8	
	20~24세	92	82.6	17.4	
	25~29세	65	92.3	7.7	
	30~39세	89	76.4	23.6	
	40~49세	75	90.7	9.3	
	50~59세	53	84.9	15.1	
	60세 이상	40	82.5	17.5	
혼인상태	남성	미 혼	126	88.1	11.9
		기혼 유배우	136	94.9	5.1
		기혼 무배우	10	90.0	10.0
	여성	미 혼	81	81.5	18.5
		기혼유배우	81	58.0	42.0
		기혼무배우	19	78.9	21.1
교육수준	무 학	14	71.4	28.6	
	고졸 미만	131	84.0	16.0	
	고 졸	180	86.1	13.9	
	대졸 미만	51	56.9	43.1	
	전문대졸	28	96.4	3.6	
	대졸 이상	49	93.9	6.1	
희망하는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자	364	94.2	5.8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89	38.2	61.8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를 질문하였다. 83.2%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16.8%이다. 희망 근로시간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8.5%인 반면, 여성은 29.3%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한다. 특히 여성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 반수에 가까운 42.0%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도 시간제 근로의 희망 비중은 남성보다 높은 18.5%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연령층과 50세 이상의 경우 시간제 근로 희망 비중이 높다. 30대의 경우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23.6%로 갑자기 높아지는데, 이는 30대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49.4%로 높고, 그 중 45.5%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미만자의 시간제 근로 희망 비중이 43.1%로 가장 높는데, 이는 대졸 미만자의 경우 학생인구가 많고 따라서 학업과 병행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희망하는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인 94.2%(343명)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61.8%가 시간제 근로를 원하고 있다. 구직중인 미취업자 520명 중 66.0%가 전일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31.6%는 학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일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22.4%이며, 아이를 돌보기 때문인 경우는 17.1%이다. 한편 '전일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6.6%이다. 시간제 근로를 택한 이유는 성별로 차이가 나, 여성의 경우 주된 이유가 가사 또는 자녀양육 때문인 경우가 과반수이다.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에서의 최저소득은 남성은 평균 122.6만원, 여성은 76.1만원으로, 여성의 희망임금 수준은 남성의 62.1%이다. 이는 1차년도와 미취업자 희망 최저소득과 비교하면 남성 미취업자의 경우 1차년도 희망 최저소득은 115.9만원에서 2차년도에는 6.7만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76.1만원에서 0.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희망임금 차이는 연령과 혼인상태, 교육수준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희망임금이 124.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성별 임금격차도 가장 높아 66.7만원에 이른다.

<표 10-13> 미취업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76 (100.0)	23 (100.0)	53 (100.0)
아이를 돌보려고	13 (17.1)	-	13 (24.5)
가사일 때문에	17 (22.4)	-	17 (32.1)
학업을 위하여	24 (31.6)	11 (47.8)	13 (24.5)
전일제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서	5 ( 6.6)	5 (21.7)	-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1 ( 1.3)	1 (4.3)	-
건강 등 개인사정	13 (17.1)	4 (17.4)	9 (17.0)
기 타	3 ( 3.9)	2 (8.7)	1 ( 1.9)

대졸 이상자의 경우 남성의 희망임금은 158.3만원인 반면 여성은 104.0만원이고 고졸자의 경우 남성 127.0만원과 여성 80.6만원이다. 희망하는 고용형태별 임금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14.4만원인 반면,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196.2만원을 희망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남성 전일제 근로 희망자의 평균 최저 희망임금은 112.5만원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2.7만원이다.

<표 10-14> 미취업자의 희망 최저소득

(단위 :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1차년도		93.8	115.9	76.9
2차년도		105.0	122.6	76.1
연령	15~19세	73.6	78.3	64.6
	20~24세	85.3	101.8	72.7
	25~29세	107.6	118.8	77.6
	30~39세	124.0	151.9	85.2
	40~49세	122.5	146.9	80.1
	50~59세	111.2	123.1	77.6
	60세 이상	74.8	84.0	47.0
혼인 상태	미 혼	92.2	103.0	74.9
	기혼 유배우	119.3	140.2	79.0
	기혼 무배우	75.3	87.9	68.1
교육 수준	무 학	65.0	88.0	52.2
	고졸 미만	91.2	106.3	68.6
	고 졸	110.5	127.0	80.6
	대졸 미만	77.1	98.0	56.3
	전문대졸	119.1	123.9	113.3
	대졸 이상	148.6	158.3	104.0
희망하는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자	99.8	114.4	74.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66.3	79.1	55.9
	고용주/자영업자	185.5	196.2	151.9
희망하는 근로시간형태	전일제근로	100.3	112.5	76.4
	시간제근로	58.6	72.7	52.5

## 제 2 절 취업자의 구직활동

### 1. 앞으로의 계획과 구직활동 여부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할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취업자 중 77.8%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10.7%이며,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갖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이다. 현재의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로 바꾸기 원하는 경우는 5.1%이고,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5.0%에 달한다. 1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기 원하는 비중과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하는 비중은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일자리로 바꾸기 원하는 비중 역시 5.0%포인트 감소하여 1998년 조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각각 77.5%와 78.4%로 비슷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하는 경우가 11.7%로 여성보다 약간 높다. 여성 취업자의 6.8%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하여 노동시장 퇴출 의사가 남성보다 높다.

현재의 직업을 계속하기 원하는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20대 초반의 경우 73.7%가 현재의 일을 계속하기 원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그 비중은 81.0%로 높아진다.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싶은 비중은 30대에 11.4%, 40대에 13.1%로 높아지다가 50대부터는 다소 감소하기 시작한다. 반면 현재의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은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높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경우 9.5%에 달한다. 15~19세 연령층에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11.8%로 높은 이유는 15~19세 연령층의 경우 현재 학교에 휴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인구가 대부분(86.0%)이며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조건도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72.6%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과 대졸 이상자의 경우 현재 일을 지속하기 원하는 비중이 다른 학력집단보다 높다. 무학의 경우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10.4%이고, 다른 일자리로 바꾸기를 원하는 비중은 0.5%로 낮아,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의 경우 역시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높지만, 다른 일자리로 바꾸기 원하는 비중은 전문대졸의 경우 8.6%로 대졸 미만자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취업자의 현재 직업특성별 현재 일자리 지속 여부를 알아보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기 원하는 비중이 87.0%로 가장 높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68.1%만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바라고 있고 15.0%는 현재의 일자리에 더하여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은 전직 희망자도 9.1%로 다른 종사상 지위 중 가장 높다.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경우 71.8%는 계속 그대로 일하기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18.1%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경우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어하는 전직의사는 2.7%로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낮다.

<표 10-15> 취업자의 인구특성별 앞으로의 계획

(단위 : %, 명)

		전 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1차년도		100.0 (6,425)	73.5 (4,724)	8.9 (571)	4.7 (305)	2.8 (177)	10.1 (648)	
2차년도		100.0 (6,102)	77.8 (4,750)	10.7 (651)	5.0 (303)	1.4 (86)	5.1 (312)	
성별	남 성	3,632	77.5	11.7	3.7	1.6	5.5	
	여 성	2,470	78.4	9.1	6.8	1.1	4.6	
연령	15~19세	119	73.9	2.5	11.8	0.8	10.9	
	20~24세	437	73.7	5.3	7.6	2.3	11.2	
	25~29세	684	78.1	7.9	3.9	2.2	7.9	
	30~39세	1,803	77.1	11.4	3.8	1.8	5.9	
	40~49세	1,652	77.6	13.1	4.5	1.1	3.7	
	50~59세	943	80.3	11.8	4.5	1.0	2.5	
	60세 이상	464	81.0	8.4	9.5	-	1.1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654	74.0	9.2	5.5	2.4	8.9
		기 혼 유배우	2,893	78.5	12.1	3.3	1.5	4.7
		기 혼 무배우	85	70.6	20.0	3.5	1.2	4.7
	여 성	미 혼	552	79.3	3.8	6.3	2.0	8.5
		기 혼 유배우	1,652	78.7	10.4	6.5	1.0	3.5
		기 혼 무배우	266	74.4	12.0	9.8	-	3.8
교육	무 학	212	83.0	10.4	6.1	-	0.5	
	고졸 미만	1,800	77.6	13.0	5.4	0.7	3.3	
	고 졸	2,385	76.7	11.5	5.0	1.2	5.7	
	대졸 미만	241	71.0	8.3	9.5	2.5	8.7	
	전문대졸	444	79.7	6.1	2.9	2.7	8.6	
	대졸 이상	1,020	80.7	7.3	3.7	2.6	5.7	

주 : 앞으로의 계획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산업별로 살펴보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은 건설업이 22.0%로 가장 높다. 공익설비업의 경우 82.6%가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10.3%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여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기 원하는 비중이 92.9%로 높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어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 부문보다 높고,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비중도 높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해당자의 5.3%가 다른 일자리로 바꾸길 원하고 7.4%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하여 일자리를 바꾸려는 의사가 다른 산업보다 높다.

<표 10-16> 취업자의 현재 직업특성별 취업자의 앞으로의 계획

(단위 : %, 명)

		전 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전 체		100.0 (6,102)	77.8 (4750)	10.7 (651)	5.0 (303)	1.4 (86)	5.1 (312)
종사상 지위 <sup>1)</sup>	정규직 임금근로자	2,682	87.0	3.4	2.8	1.5	5.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159	68.0	15.0	6.2	1.6	9.1
	자영업자/고용주	1,681	71.8	18.1	6.4	1.0	2.7
	가족종사자	520	74.8	13.8	8.1	1.3	1.9
산업 <sup>2)</sup>	농림어업	530	84.2	6.4	7.5	0.4	1.5
	광공업	1,356	82.1	9.1	2.6	1.3	4.9
	건설업	500	69.2	22.0	2.4	1.6	4.8
	공익설비업	380	82.6	10.3	1.3	1.8	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82	73.0	12.8	7.4	1.5	5.3
	금융 및 부동산업	602	78.2	8.1	4.3	2.3	7.0
	공공서비스업	1,103	80.2	7.8	5.3	1.3	5.4
직업 <sup>3)</sup>	전문관리직	1,213	81.3	9.6	3.2	1.7	4.2
	사무직	619	84.0	3.7	3.7	1.9	6.6
	서비스직	1,436	72.1	12.3	8.6	1.5	5.6
	농림어업직	515	84.7	6.0	7.6	0.4	1.4
	생산직	2,258	77.1	13.2	3.1	1.2	5.4
월평균 소득 <sup>4)</sup>	50만원 미만	957	68.3	14.9	9.0	1.9	5.9
	50만 ~ 100만원 미만	1,915	78.1	8.3	5.0	1.3	7.4
	100만 ~ 150만원 미만	1,352	80.5	10.1	3.4	1.3	4.7
	150만 ~ 200만원 미만	664	85.1	9.3	1.8	1.8	2.0
	200만원 이상	634	83.6	11.4	1.7	1.1	2.2

주 : 1) 취업형태의 분류가 불가능한 임금근로자 6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산업이 분류 불가인 1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4-6> 참조.

3) 직업이 군인인 8명과 분류 불가인 1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4-6> 참조.

4) 월평균 소득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60명과 가족종사자인 520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직업별 분포에서는 전문관리직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거나 또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하는 비중이 90.9%로 높다. 또한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은 비중도 4.2%로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사무직의 경우 계속 그대로 일하기 원하는 비중은 84.0%로 높지만 다른 일자리로 바꾸기 원하는 비중도 6.6%로 다른 직업 부문에 비해 높다.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일을 완전히 그만두길 원하는 비중이 8.6%로 다른 직업 부문에 비해 가장 높고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어하는 비중도 5.6%로 사무직 다음으로 높으며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낮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원하는 비중이 높다.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와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은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응답자 중 구직자는 41.8%이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58.5%이다. 1차년도와 비교시, 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인 경우가 22.7%로 가장 많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11.6%이다. 기능, 교육수준, 능력이 부족하여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9.4%이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3.4%이다.

<표 10-17> 취업자의 구직 여부와 비구직 이유

		빈도(명)	비중(%)
전 체		398 [824]	100.0 [100.0]
구하고 있다		165 [288]	41.8 [ 34.9]
구하고 있지 않다		233 [536]	58.5 [ 65.1]
비 구 직 이 유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53	22.7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27	11.6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22	9.4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8	3.4
	구직결과를 기다림	7	3.0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5	2.1
	가사일 때문에	4	1.7
	건강상 이유로	5	2.1
	기 타	102	43.8

주 : [ ] 안은 1차년도의 구직 여부에 관한 내용이며, 구직 여부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구직활동 방법과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직활동 방법을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취업중 구직자의 60.6%가 친구, 친지의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한 방법은 38.8%가 사용하고 있고,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21.2%에 달한다. 미취업자의 구직활동과 비교해 볼 때, 각각의 구직방법을 이용하는 비중이 미취업자보다 전체적으로 낮아 미취업자만큼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가 사용하는 구직방법의 수는 평균 1.9가지인 반면, 취업자는 그보다 적은 평균 1.6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1가지 방법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64.8%이고, 2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17.0%이다. 취업자의 구직기간은 평균 20.9주로 미취업자의 구직기간인 24.5주보다 짧다. 구직기간이 1주 이상 4주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10-18> 취업자의 구직방법

		빈도(명)	비중(%)
구직방법 <sup>1)</sup>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13	7.9
	친구, 친지의 소개	99	60.6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17	10.3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1	0.6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64	38.8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35	21.2
	가족을 통해서	13	7.9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해서	16	9.7
	기 타	6	3.6

주 : 구직활동중인 165명 중의 비중으로 복수응답임.

<표 10-19> 취업자의 구직기간

		빈도(명)	비중(%)
전 체		165	100.0
구직기간 <sup>2)</sup>	1~4주	30	27.8
	5~8주	20	18.5
	9~24주	26	24.1
	25~48주	22	20.4
	49주 이상	10	9.3
	평균(주)	20.9	

주 : 구직기간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5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구직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취업중인 구직자의 78.8%가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데, 73.3%는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64.9%는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고 하였다. 미취업자가 구직시 겪는 어려움과 비교하여 보면, 일자리의 부족이나 취업 또는 창업 정보의 부족에 대해서는 미취업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에 대해서는 취업중인 구직자가 더욱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표 10-20> 취업자의 구직시 어려움

(단위 : 명, %)

	전 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 런 편이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모름/ 무응답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65	31.5	47.3	17.6	3.6	-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165	12.1	61.2	24.8	1.8	-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165	5.5	30.3	52.1	12.1	-
경험이 부족하다	165	8.5	39.4	38.2	13.3	0.6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165	9.7	55.2	31.5	3.0	0.6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안 맞는다	165	6.1	37.6	46.1	9.7	0.6
나이가 너무 많다	165	15.2	24.8	35.2	24.8	-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65	23.0	30.9	19.4	16.4	10.3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sup>1)</sup>	48	16.7	47.9	33.3	2.1	-

주 : 1) 여성인 48명만 분석에 포함함.

### 3.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취업중인 구직자가 희망하는 새로운 일자리의 산업으로는 25.5%가 개인서비스업을 원하고 있다. 다음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으로 19.4%이며, 공공서비스업은 17.6%이다. 희망하는 산업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23.9%가 개인서비스업을 희망하고 다음으로 17.9%가 광공업을 원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주로 개인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을 희망하고 있다. 희망하는 일의 종류(직업)로는 생산직이 가장 많고 다음이 서비스직, 전문관리직의 순이다. 남성의 경우는 41.9%가 생산직을, 다음으로 전문관리직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직을 원하고 있다.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의 산업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이 같은 경우는 44.9%이며,<sup>14)</sup> 현재의 직업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는 50.9%로, 취업자의 반수 정도는 현재의 산업 및 직업과 동일한 분야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현재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과 같이 분류하여(표 4-6 참조)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10-21> 성별 취업자가 희망하는 산업과 직업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65 (100.0)	117 (100.0)	48 (100.0)
희망하는 산업	농림어업	2 ( 1.2)	2 ( 1.7)	-
	광공업	32 (19.4)	21 (17.9)	11 (22.9)
	건설업	18 (10.9)	18 (15.4)	- ( 2.1)
	공익설비업	9 ( 5.5)	8 ( 6.8)	1 (29.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2 (25.5)	28 (23.9)	14 (12.5)
	금융 및 부동산업	26 (15.8)	20 (17.1)	6 (29.2)
	공공서비스	29 (17.6)	15 (12.8)	14 ( 4.2)
	분류불가	7 ( 4.2)	5 ( 4.3)	2
희망하는 직업	전문관리직	37 (22.4)	29 (24.8)	8 (16.7)
	사무직	20 (12.1)	11 ( 9.4)	9 (18.8)
	서비스직	40 (24.2)	22 (18.8)	18 (37.5)
	농림어업직	2 ( 1.2)	2 ( 1.7)	-
	생산직	62 (37.6)	49 (41.9)	13 (27.1)
	분류불가	4 ( 2.4)	4 ( 3.4)	-

주 : <표 4-6> 참조.

취업중인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60.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13.9%이며,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26.1%이다. 남성의 경우 61.5%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29.1%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 현재의 종사상 지위별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67.9%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25.0%는 비임금근로자를 원하고 있다.

<표 10-22> 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전 체		165 (100.0)	99 (60.0)	23 (13.9)	43 (26.1)
성별	남 성	117 (100.0)	72 (61.5)	11 ( 9.4)	34 (29.1)
	여 성	48 (100.0)	27 (56.3)	12 (25.0)	9 (18.8)
현재의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56 (100.0)	38 (67.9)	4 ( 7.1)	14 (25.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65 (100.0)	39 (60.0)	13 (20.0)	13 (20.0)
	고용주/자영업자	26 (100.0)	8 (30.8)	5 (19.2)	13 (50.0)
	가족종사자	9 (100.0)	7 (77.8)	-	2 (22.2)

주 : 1) 취업형태의 분류가 불가능한 임금근로자 9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단지 20.0%만이 새로운 일자리에선 현재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60.0%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다.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비임금근로자는 반수가 새로운 일자리에선 비임금근로자로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구직중인 취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에선 종사상 지위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는 전일제 근로가 84.4%를 차지한다.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92.8%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 희망하는 일자리에선 최저임금은 147.1만원이며 남성은 162.1만원, 여성은 109.9만원이다. 취업자의 희망 임금수준은 미취업자의 경우보다 40.1% 높은 액수이다.

<표 10-23> 취업자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22 (100.0)	83 (100.0)	39 (100.0)
전일제 근로	103 (84.4)	77 (92.8)	26 (66.7)
시간제 근로	19 (15.6)	6 ( 7.2)	13 (33.3)
희망 최저임금(만원)	147.1	162.1	109.9

## 직업훈련

## 제 1 절 직업훈련 경험 여부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은 직업을 구하거나 일(직무)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훈련을 의미한다. 실직자 재취업 훈련이나 기능사 양성훈련, 사업체 내 업무능력 향상훈련 등이 이에 속하며, 취미나 일반교양을 위해 받는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1998년 제 2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이후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이후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는 경우는 25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이다.<sup>15)</sup>

직업훈련의 경험 여부를 현재의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초기인 25~29세 연령층의 경험률이 4.0%로 가장 높다. 직업훈련 경험률은 교육수준별로 크게 차이가 나, 무학의 경우 지난 조사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반면, 대졸 이상자는 직업훈련 경험률이 5.4%로 학력집단 중 가장 높다. 이는 대졸 이상자의 65.8%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며,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실업자의 5.9%가 지난 조사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임금근로자는 3.3%, 비임금근로자는 1.0%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신규 진입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직업훈련 경험 중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1998년 6월 이후에 받은 직업훈련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는 1,170명으로 전체 응답자 11,765명 중 9.9%이다.

직업훈련 유경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약간 많다. 남성의 경우 30대 연령층(33.6%)과 기혼 유배우자(67.1%), 고졸(40.0%)과 대졸 이상(34.3%) 학력자와 임금근로자(57.1%)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훈련을 경험한 연령층이 낮아 20대 인구가 45.3%로 가장 많고, 기혼 유배우자(41.9%)보다는 미혼자의 경험률(49.6%)이 좀더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집단(45.3%)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남성과 달리 임금근로자(40.2%)보다 비경제활동인구(42.7%)의 비중이 더 높다.

<표 11-1> 지난 조사 이후 받은 직업훈련 경험 유무

(단위 : 명, %)

		전 체	받아본 경험이 있다	현재 받고 있다	받아본 경험이 없다
전 체		11,765 (100.0)	206 (1.8)	51 (0.4)	11,508 (97.8)
성별	남 성	5,670 (100.0)	118 (2.1)	22 (0.4)	5,530 (97.5)
	여 성	6,095 (100.0)	88 (1.4)	29 (0.5)	5,978 (98.1)
연령	15~19세	1,366 (100.0)	12 (0.9)	9 (0.7)	1,345 (98.5)
	20~24세	1,033 (100.0)	29 (2.8)	10 (1.0)	994 (96.2)
	25~29세	1,211 (100.0)	36 (3.0)	12 (1.0)	1,163 (96.0)
	30~39세	2,613 (100.0)	71 (2.7)	12 (0.5)	2,530 (96.8)
	40~49세	2,272 (100.0)	42 (1.8)	7 (0.3)	2,223 (97.8)
	50~59세	1,539 (100.0)	13 (0.8)	1 (0.1)	1,525 (99.1)
	60세 이상	1,731 (100.0)	3 (0.2)	-	1,728 (99.8)
혼인 상태	미 혼	3,367 (100.0)	72 (2.1)	30 (0.9)	3,265 (97.0)
	기혼 유배우	7,424 (100.0)	125 (1.7)	18 (0.2)	7,281 (98.1)
	기혼 무배우	974 (100.0)	9 (0.9)	3 (0.3)	962 (98.8)
교육 수준	무 학	793 (100.0)	-	-	793 (100.0)
	고졸 미만	4,050 (100.0)	16 (0.4)	7 (0.2)	4,027 (99.4)
	고 졸	3,876 (100.0)	85 (2.2)	24 (0.6)	3,767 (97.2)
	대졸 미만	967 (100.0)	12 (1.2)	4 (0.4)	951 (98.3)
	전문대졸	647 (100.0)	23 (3.6)	9 (1.4)	615 (95.1)
	대졸 이상	1,432 (100.0)	70 (4.9)	7 (0.5)	1,355 (94.6)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3,901 (100.0)	121 (3.1)	6 (0.2)	3,774 (96.7)
	비임금근로자	2,201 (100.0)	22 (1.0)	1 (0.0)	2,178 (99.0)
	실업자	436 (100.0)	22 (5.0)	4 (0.9)	410 (94.0)
	비경제활동인구	5,227 (100.0)	41 (0.8)	40 (0.8)	5,146 (98.5)

<표 11-2> 직업훈련 유경험자의 인구특성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257 (100.0)	140 (100.0)	117 (100.0)
연령	15 ~ 19세	21 ( 8.2)	12 ( 8.6)	9 ( 7.7)
	20 ~ 24세	39 (15.2)	8 ( 5.7)	31 (26.5)
	25 ~ 29세	48 (18.7)	26 (18.6)	22 (18.8)
	30 ~ 39세	83 (32.3)	47 (33.6)	36 (30.8)
	40 ~ 49세	49 (19.1)	33 (23.6)	16 (13.7)
	50 ~ 59세	14 ( 5.4)	12 ( 8.6)	2 ( 1.7)
	60세 이상	3 ( 1.2)	2 ( 1.4)	1 ( 0.9)
혼인 상태	미 혼	102 (39.7)	44 (31.4)	58 (49.6)
	기혼 유배우	143 (55.6)	94 (67.1)	49 (41.9)
	기혼 무배우	12 ( 4.7)	2 ( 1.4)	10 ( 8.5)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3 ( 8.9)	16 (11.4)	7 ( 6.0)
	고 졸	109 (42.4)	56 (40.0)	53 (45.3)
	대졸 미만	16 ( 6.2)	6 ( 4.3)	10 ( 8.5)
	전문대졸	32 (12.5)	14 (10.0)	18 (15.4)
	대졸 이상	77 (30.0)	48 (34.3)	29 (24.8)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127 (49.4)	80 (57.1)	47 (40.2)
	비임금근로자	23 ( 8.9)	14 (10.0)	9 ( 7.7)
	실업자	26 (10.1)	15 (10.7)	11 ( 9.4)
	비경제활동인구	81 (31.5)	31 (22.1)	50 (42.7)

## 제 2 절 직업훈련을 받은 이유와 직업훈련의 내용

지난 조사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그 이유와 직업훈련의 내용, 수강기관과 비용부담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직업훈련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을 답하도록 하였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유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인 경우가 42.8%로 가장 많고, 취업을 위해 받는 경우가 30.4%,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인 경우가 17.9%를 차지한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유를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7%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반면, 여성은 35.0%가 취업을 위해 받았다. 이는 직업훈련을 받은 남성 중 57.1%가 임금근로자인 반면, 여성은 42.7%가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가 많지만 30~40대로 갈수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받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60% 이상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은 반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과반수 정도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표 11-3> 직업훈련을 받은 이유

(단위 : 명, %)

		전 체	창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 타
전 체		100.0 (257)	6.6 (17)	30.4 (78)	42.8 (110)	17.9 (46)	2.3 ( 6)
성별	남 성	140	5.0	26.4	50.7	16.4	1.4
	여 성	117	8.5	35.0	33.3	19.7	3.4
연령	15~19세	21	-	38.1	9.5	52.4	-
	20~24세	39	-	51.3	28.2	20.5	-
	25~29세	48	4.2	39.6	29.2	25.0	2.1
	30~39세	83	7.2	22.9	56.6	9.6	3.6
	40~49세	49	14.3	20.4	57.1	6.1	2.0
	50~59세	14	14.3	14.3	42.9	21.4	7.1
	60세 이상	3	-	-	66.7	33.3	-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3	17.4	26.1	26.1	21.7	8.7
	고 졸	109	10.1	34.9	30.3	22.9	1.8
	대졸 미만	16	-	37.5	18.8	43.8	-
	전문대졸	32	-	50.0	43.8	6.3	-
	대졸 이상	77	2.6	15.6	70.1	9.1	2.6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127	0.8	21.3	61.4	14.2	2.4
	비임금근로자	23	26.1	-	60.9	8.7	4.3
	실업자	26	3.8	50.0	23.1	23.1	-
	비경제활동인구	81	11.1	46.9	14.8	24.7	2.5

직업훈련의 내용은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25.7%)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음식조리/미용/관광 등의 서비스 분야(16.0%)이다. 직업훈련의 내용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컴퓨터·정보통신 분야가 2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계·장비 분야(11.4%), 사무관리분야(7.9%)의 순이다. 반면 여성은 서비스 분야(30.8%)가 가장 많고 다음이 컴퓨터·정보통신 분야(25.6%)의 순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직업훈련의 내용이 서비스와 컴퓨터·정보통신의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 11-4> 직업훈련의 내용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257 (100.0)	140 (100.0)	117 (100.0)
농림어업, 광업분야	4 ( 1.6)	4 ( 2.9)	-
섬유분야 (섬유가공, 디자인 등)	2 ( 0.8)	1 ( 0.7)	1 ( 0.9)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6 ( 2.3)	6 ( 4.3)	-
금속분야 (금속가공, 열처리 등)	2 ( 0.8)	2 ( 1.4)	-
기계장비분야 (기계가공, 선반, 조립, 설계 등)	16 ( 6.2)	16 (11.4)	-
건설분야 (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7 ( 2.7)	6 ( 4.3)	1 ( 0.9)
전기·전자분야 (기계설비, 제어, 전기공사 등)	10 ( 3.9)	9 ( 6.4)	1 ( 0.9)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66 (25.7)	36 (25.7)	30 (25.6)
서비스분야 (음식조리, 미용, 관광 등)	41 (16.0)	5 ( 3.6)	36 (30.8)
사무관리분야 (재무, 경영, 사무지원 등)	14 ( 5.4)	11 ( 7.9)	3 ( 2.6)
의료분야 (물리치료, 간호 등)	9 ( 3.5)	-	9 ( 7.7)
운송장비 제조분야 (자동차, 조선 등)	9 ( 3.5)	9 ( 6.4)	-
산업응용분야 (인쇄, 출판, 광학분야 등)	5 ( 1.9)	1 ( 0.7)	4 ( 3.4)
공예분야 (귀금속, 가구, 자수 등)	1 ( 0.4)	1 ( 0.7)	-
기 타	65 (25.3)	33 (23.6)	32 (27.4)

직업훈련의 수강기관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3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사업내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체 부설기관으로 20.6%이다.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도 18.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남성의 경우는 사업내 및 사업체 부설기관이 두 번째로 많은 반면, 여성은 사업체보다는 사설학원에서 수강한 비중이 더욱 많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비중이 높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32.3%가 사업내 훈련기관을 이용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사설학원과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이용률이 44.4%로 높으며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29.6%에 이른다. 직업훈련을 받는 이유별로는,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경우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우는 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사업내 및 사업체 부설기관을 이용하였다.

직업훈련의 비용 부담자를 모두 답하게 하였다. 직업훈련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다. 스스로 벌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3.2%이며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가 부담하는 경우는 16.0%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29.2%에 달한다.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20.2%이다.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48.0%가

<표 11-5> 직업훈련의 수강기관

(단위 : 명, %)

		전 체	사설 학원	인정 직업 훈련원	공공 직업훈련 기관	사업내 및 사업체 부설 직업훈련기관	(전문) 대학 부설 기관	기 타
전 체		100.0 (257)	18.7 (48)	8.2 (21)	31.5 (81)	20.6 (53)	10.1 (26)	10.9 (28)
성별	남 성	140	10.7	7.1	30.7	27.9	10.0	13.6
	여 성	117	28.2	9.4	32.5	12.0	10.3	7.7
연령	15 ~ 19세	21	23.8	19.0	42.9	-	4.8	9.5
	20 ~ 24세	39	46.2	5.1	20.5	17.9	10.3	-
	25 ~ 29세	48	27.1	4.2	35.4	20.8	8.3	4.2
	30 ~ 39세	83	12.0	10.8	27.7	28.9	9.6	10.8
	40 ~ 49세	49	-	8.2	32.7	20.4	16.3	22.4
	50 ~ 59세	14	14.3	-	42.9	7.1	7.1	28.6
	60세 이상	3	-	-	66.7	33.3	-	-
교육 수준	고졸 미만	23	21.7	8.7	43.5	4.3	4.3	17.4
	고졸	109	21.1	7.3	36.7	20.2	3.7	11.0
	대졸 미만	16	31.3	25.0	18.8	6.3	18.8	-
	전문대졸	32	25.0	3.1	31.3	18.8	15.6	6.3
	대졸이상	77	9.1	7.8	23.4	29.9	16.9	13.0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127	11.8	5.5	24.4	32.3	12.6	13.4
	비임금근로자	23	26.1	-	26.1	8.7	13.0	26.1
	실업자	26	11.5	30.8	30.8	11.5	11.5	3.8
	비경제활동인구	81	29.6	7.4	44.4	8.6	4.9	4.9
직업 훈련 받은 이유	창업을 위해	17	29.4	-	41.2	5.9	11.8	11.8
	취업을 위해	78	24.4	15.4	35.9	7.7	12.8	3.8
	업무능력 향상	110	10.0	6.4	19.1	39.1	11.8	13.6
	자격증 취득	46	28.3	4.3	47.8	6.5	2.2	10.9
	기 타	6	-	-	50.0	-	-	50.0

정부로부터, 34.6%가 사업체로부터 비용을 부담받았으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8.1%이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52.1%가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정부의 부담률은 60% 정도로 늘어난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유별로는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57.7%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였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받는 경우 역시 정부가 비용부담을 한 경우가 46.4%이고, 사업체가 비용부담을 한 경우는 38.2%이다.

<표 11-6> 직업훈련의 비용 부담자

(단위 : 명, %)

		스스로 벌어서	부모님, 가족, 친지	기업체	정 부	기 타
전 체		13.2	16.0	20.2	50.6	1.2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11.0	7.1	34.6	48.0	-
	비임금근로자	39.1	13.0	8.7	30.4	8.7
	실업자	7.7	23.1	7.7	61.5	-
	비경제활동인구	11.1	28.4	4.9	56.8	1.2
직업 훈련을 받은 이유	창업을 위해	41.2	17.6	5.9	29.4	5.9
	취업을 위해	11.5	25.6	7.7	57.7	-
	업무능력 향상	12.7	2.7	38.2	46.4	0.9
	자격증 취득	8.7	32.6	6.5	52.2	-
	기타	-	-	-	83.3	16.7

주 : 전체 257명에 대한 비중으로 복수응답임.

직업훈련의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이며, 대체로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훈련기간은 길어진다. 20~24세 연령집단의 직업훈련기간은 평균 5.1개월이나 40대의 경우 2.4개월로 줄어든다. 직업훈련을 받는 이유별로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5.9개월로 가장 긴 반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2.1개월로 가장 짧다.

<표 11-7> 직업훈련기간

		응답자수	평균 직업훈련기간(일)	평균 직업훈련기간(개월)
전 체		250	123.9	4.1
연 령	15~19세	21	317.5	10.1
	20~24세	36	155.3	5.1
	25~29세	46	124.6	4.1
	30~39세	82	108.7	3.6
	40~49세	48	71.7	2.4
	50~59세	14	38.3	1.3
	60세 이상	3	32.3	1.1
직업훈련 받는 이유	창업을 위해	17	154.4	5.1
	취업을 위해	75	178.7	5.9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08	63.8	2.1
	자격증 취득을 위해	44	165.1	5.4
	기 타	6	133.0	4.4

주 :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는 예정된 직업훈련기간임.

### 제 3 절 직업훈련 희망 여부와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내용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새로운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 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2.1%가 앞으로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비중은 여성(13.0%)이 남성(11.2%)보다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의 희망률이 높으며,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있는 25~29세 연령층의 희망률은 21.1%에 달한다. 직업훈련 희망률은 40대에 들어 9.7%로 떨어지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1.3%로 매우 낮아진다.

<표 11-8> 직업훈련 희망 여부

(단위 : 명, %)

		전 체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전 체		11,765 (100.0)	1,425 (12.1)	10,340 (87.9)
성별	남 성	5,670 (100.0)	635 (11.2)	5,035 (88.8)
	여 성	6,095 (100.0)	790 (13.0)	5,305 (87.0)
연령	15~19세	1,366 (100.0)	126 ( 9.2)	1,240 (90.8)
	20~24세	1,033 (100.0)	181 (17.5)	852 (82.5)
	25~29세	1,211 (100.0)	256 (21.1)	955 (78.9)
	30~39세	2,613 (100.0)	536 (20.5)	2,077 (79.5)
	40~49세	2,272 (100.0)	220 ( 9.7)	2,052 (90.3)
	50~59세	1,539 (100.0)	84 ( 5.5)	1,455 (94.5)
	60세 이상	1,731 (100.0)	22 ( 1.3)	1,709 (98.7)
교육 수준	무 학	793 (100.0)	3 ( 0.4)	790 (99.6)
	고졸 미만	4,050 (100.0)	255 ( 6.3)	3,795 (93.7)
	고 졸	3,876 (100.0)	600 (15.5)	3,276 (84.5)
	대졸 미만	967 (100.0)	152 (15.7)	815 (84.3)
	전문대졸	647 (100.0)	136 (21.0)	511 (79.0)
	대졸 이상	1,432 (100.0)	279 (19.5)	1,153 (80.5)
경제 활동 상태	임 금	3,901 (100.0)	638 (16.4)	3,263 (83.6)
	비임금	2,201 (100.0)	197 ( 9.0)	2,004 (91.0)
	실업자	436 (100.0)	106 (24.3)	330 (75.7)
	비경제활동	5,227 (100.0)	484 ( 9.3)	4,743 (90.7)
직업훈련 경험유무	받은 경험이 있다	206 (100.0)	111 (53.9)	95 (46.1)
	현재 받고 있다	51 (100.0)	21 (41.2)	30 (58.8)
	받은 경험이 없다	11,508 (100.0)	1,293 (11.2)	10,215 (88.8)

교육수준별로도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비중이 높아져, 직업훈련 희망률은 전문대졸자의 경우 21.0%, 대졸 이상자의 경우는 19.5%이다. 현재 실업자의 경우 직업훈련 희망률은 24.3%로 가장 높으며, 임금근로자는 16.4%, 비임금근로자는 9.0%가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로 직업훈련 희망률은 차이가 있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우 51.4%가 앞으로도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였으나 직업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11.2%만이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업훈련 경험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직업훈련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특성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가 30.0%로 가장 많으며, 취업을 위해서인 경우가 23.9%,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경우가 22.9%이다. 남성의 경우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15~19세 연령층에서는 46.8%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11-9>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

		전 체	창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 타
전 체		100.0 (1,425)	17.1 (243)	23.9 (341)	30.0 (427)	22.9 (326)	6.2 (88)
성별	남 성	635	20.3	21.4	36.7	18.6	3.0
	여 성	790	14.4	25.9	24.6	26.3	8.7
연령	15~19세	126	3.2	33.3	12.7	46.8	4.0
	20~24세	181	6.1	33.1	30.4	28.7	1.7
	25~29세	256	15.6	21.1	34.8	21.5	7.0
	30~39세	536	21.1	22.0	28.5	21.5	6.9
	40~49세	220	21.4	19.5	37.7	15.5	5.9
	50~59세	84	28.6	21.4	31.0	10.7	8.3
	60세 이상	22	18.2	27.3	22.7	9.1	22.7
교육 수준	무 학	3	-	100.0	-	-	-
	고졸 미만	255	18.8	27.1	20.4	28.2	5.5
	고 졸	600	18.5	25.5	26.5	21.7	7.8
	대졸 미만	152	7.9	31.6	23.0	33.6	3.9
	전문대졸	136	19.1	17.6	39.0	20.6	3.7
	대졸 이상	279	16.5	15.8	45.9	16.1	5.7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638	17.7	15.7	42.0	20.4	4.2
	비임금근로자	197	22.3	8.6	49.7	14.2	5.1
	실업자	106	16.0	50.0	11.3	19.8	2.8
	비경제활동인구	484	14.3	35.3	10.1	30.4	9.9

20대 후반과 40대 연령층의 경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50대에는 28.6%에 달한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의 경우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는 경우의 비중이 25% 전후로 비슷하였으나, 대졸 이상자의 경우 45.9%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원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42.0%가,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49.7%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30% 이상으로, 새로운 직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원하는 비중이 높다. 실업자의 경우 50.0%가 취업을 위해, 16.0%가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고 싶은 직업훈련의 내용으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서비스 분야로 19.4%이며, 기계 및 건설 분야도 7.5%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희망률이 37.6%로 가장 높고, 기계 및 건설 분야가 16.2%이다. 여성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비중은 41.8%로 남성보다 높으며, 서비스 부문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도 28.0%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 20~24세 연령층의 55.2%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직업교육을 희망하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희망률은 60대 이상에서도 27.3%로 다른 직업훈련의 분야들 중 가장 높게 유지된다. 서비스 분야는 30대의 희망률이 23.5%로 가장 높으며 40~50대로 들어서도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농림어업 및 광업과 기계 및 건설 분야의 직업훈련 희망률이 각각 16.7%와 13.1%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및 전문대졸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의 희망률이 53.7%와 54.4%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고졸과 고졸 미만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희망률이 각각 24.4%와 26.7%로 높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42.3%가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의 직업훈련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통신 분야를 희망하는 비중은 27.4%로 낮아지고 대신 서비스 분야가 19.3%, 농림어업 및 광업분야가 14.2%로 증가한다. 실업자의 29.2%는 컴퓨터 분야를, 25.5%는 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4.2%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를 희망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희망률도 23.1%로 높다.

<표 11-10>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내용

(단위 : 명, %)

		전 체	농림어업 광업 <sup>1)</sup>	섬유, 화학, 금속 <sup>2)</sup>	기계, 건설 <sup>3)</sup>	전기, 전자 <sup>4)</sup>	컴퓨터정 보통신 <sup>5)</sup>	서비스 <sup>6)</sup>	사무 관리 <sup>7)</sup>	기 타 <sup>8)</sup>
전 체		100.0 (1,425)	2.5 (36)	4.4 (62)	7.5 (107)	2.0 (29)	39.9 (569)	19.4 (277)	6.7 (96)	17.5 (249)
성별	남 성	635	5.0	4.3	16.2	4.4	37.6	8.8	7.1	16.5
	여 성	790	0.5	4.4	0.5	0.1	41.8	28.0	6.5	18.2
연령	15~19세	126	-	3.2	7.9	3.2	49.2	13.5	6.3	16.7
	20~24세	181	-	1.1	4.4	1.7	55.2	12.7	9.9	14.9
	25~29세	256	-	2.7	7.0	1.2	48.8	18.4	6.3	15.6
	30~39세	536	1.3	6.0	7.3	1.9	36.4	23.5	6.2	17.5
	40~49세	220	5.5	5.5	9.1	3.2	26.8	20.0	8.6	21.4
	50~59세	84	16.7	4.8	13.1	1.2	26.2	17.9	1.2	19.0
	60세 이상	22	13.6	4.5	4.5	4.5	27.3	22.7	4.5	18.2
교육 수준	무 학	3	-	-	33.3	-	-	66.7	-	-
	고졸 미만	255	7.5	9.8	14.1	1.2	23.5	26.7	2.4	14.9
	고 졸	600	2.3	4.8	8.5	2.3	34.0	24.5	6.7	16.8
	대졸 미만	152	0.7	1.3	4.6	3.3	52.6	11.2	9.9	16.4
	전문대졸	136	0.7	1.5	2.9	1.5	53.7	13.2	8.8	17.6
	대졸 이상	279	0.4	1.4	2.9	1.8	54.5	9.0	8.2	21.9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638	0.6	4.1	9.2	2.7	42.3	15.7	8.3	17.1
	비임금근로자	197	14.2	6.6	5.6	3.0	27.4	19.3	3.6	20.3
	실업자	106	0.9	3.8	17.0	0.9	29.2	25.5	4.7	17.9
	비경제활동인구	484	0.6	3.9	3.9	1.0	44.2	23.1	6.4	16.7

주 : 1) 농림어업, 광업 분야(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2) 섬유분야(섬유가공, 편물, 염색, 의복제조, 섬유디자인, 섬유기계 보전 등),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화학제품 제조, 도자기 제조, 위험물 취급 등), 금속분야(금속가공, 열처리 등).  
 3) 기계·장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건설분야(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4) 전기·전자 분야(기계 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5) 컴퓨터·정보통신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설비 운용수리 등).  
 6) 서비스 분야(음식조리,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7) 사무관리분야 (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8) 의료분야(물리치료, 간호 등), 운송장비 제조 분야(자동차, 조선, 항공장비 제조 등), 산업응용분야 (인쇄출판, 가구 등 디자인 개발, 광학분야 등), 공예분야(귀금속, 가구, 자수, 도장 등), 기타.



## 주관적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

## 제 1 절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과 주거환경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1~2차년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5개 범주로 나누어 답변을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는 ‘보통이다’(3점)에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양 극단인 ‘매우 만족스럽다’(5점)와 ‘매우 불만족스럽다’(1점)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약간 낮아져서 평균점수는 서로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1~2차년도 생활만족도 비교

(단위 : 점)

	생활 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1차(1998년)	2.9	2.5	3.7	2.8	3.1
2차(1999년)	2.9	2.6	3.7	2.8	3.1

2차년도 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생활 전체/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9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응답자의 64.3%가 가족관계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변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가족의 수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2.6점으로서 다른 생활만족도에 비해 대체로 점수가 낮은 편이며 가족의 수입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3.5%에 불과하다.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평균 만족도가 각

<표 12-2>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평균점수 (점)	전 체	매우 만족 스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모름/ 무응답
생활 전체/ 전반	2.9	11,765 (100.0)	119 (1.0)	2,642 (22.5)	5,899 (50.1)	2,667 (22.7)	419 (3.6)	19 (0.2)
가족의 수입	2.6	11,765 (100.0)	38 (0.3)	1,554 (13.2)	4,865 (41.4)	4,309 (36.6)	997 (8.3)	22 (0.2)
가족관계	3.7	11,765 (100.0)	1,023 (8.7)	6,547 (55.6)	3,695 (31.4)	386 (3.3)	84 (0.7)	30 (0.3)
여가활동	2.8	11,765 (100.0)	140 (1.2)	2,290 (19.5)	4,798 (40.8)	3,633 (30.9)	885 (7.5)	19 (0.2)
주거환경	3.1	11,765 (100.0)	240 (2.0)	3,607 (30.7)	5,794 (49.2)	1,817 (15.4)	286 (2.4)	21 (0.2)

주 : 평균점수를 구할 때 모름 또는 무응답은 제외함.

각 2.8점, 3.1점으로 보통(3.0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에서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 전체/전반과 가족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생활 전체/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 20대는 3.1점으로 보통(3.0점) 이상을 얻고 있으나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높을수록 보통(3점) 이하로 낮아지며,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20대에 2.8점이나 50대에서 2.4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가족관계, 여가활동 및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 교육수준은 모든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과 기혼 유배우자의 생활만족도가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보다 좀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 유배우자가 3.8점인 데 비해 별거의 경우는 3.0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별거, 이혼, 사별)일 경우 생활만족도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와 개인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에서 경제활동상태별로 볼 때 취업자의 개인 수입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고,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실업자의 생활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는데, 특히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불만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소득 또는 수입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임금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며,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득 또는 수입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의 만족

도는 2.0점에 불과하지만, 250만원 이상 소득자의 만족도는 3.2점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반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생활만족도 문항에 비해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 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전 체		2.9	2.6	3.7	2.8	3.1
성별	남 성	3.0	2.6	3.7	2.8	3.1
	여 성	2.9	2.6	3.7	2.8	3.1
연 령	15~19세	3.1	2.9	3.7	2.9	3.1
	20~24세	3.1	2.8	3.6	2.9	3.1
	25~29세	3.1	2.8	3.7	2.8	3.1
	30~39세	3.0	2.6	3.8	2.7	3.1
	40~49세	2.9	2.5	3.7	2.7	3.1
	50~59세	2.8	2.4	3.6	2.7	3.2
	60세 이상	2.8	2.5	3.5	2.8	3.2
교육수준	무 학	2.7	2.4	3.4	2.7	3.0
	고졸 미만	2.8	2.5	3.6	2.7	3.1
	고 졸	2.9	2.6	3.7	2.7	3.1
	대졸 미만	3.1	2.8	3.7	3.0	3.2
	전문대졸	3.1	2.8	3.8	2.8	3.2
	대졸 이상	3.2	2.9	3.9	3.0	3.4
혼인상태	미 혼	3.0	2.8	3.6	2.9	3.1
	기혼 유배우	2.9	2.6	3.8	2.7	3.2
	별 거	2.4	2.1	3.0	2.3	2.7
	이 혼	2.3	2.1	3.1	2.5	2.7
	사 별	2.7	2.4	3.3	2.8	3.1

<표 12-4> 경제활동상태와 개인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 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전 체		2.9	2.6	3.7	2.8	3.1
취업자	소 계	3.0	2.6	3.7	2.7	3.1
	50만원 미만	2.7	2.3	3.6	2.7	3.0
	50만~100만원 미만	2.8	2.5	3.6	2.6	3.0
	100만~150만원 미만	3.1	2.7	3.8	2.7	3.1
	150만~200만원 미만	3.2	2.9	3.9	2.8	3.3
	200만~250만원 미만	3.4	3.1	3.9	3.0	3.4
	250만원 이상	3.4	3.2	4.0	3.1	3.6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2.6	2.0	3.7	2.6	3.0
비임금근로자 중 가족종사자	2.9	2.4	3.7	2.6	3.1	
미취업자	실업자	2.5	2.1	3.5	2.7	2.9
	비경제활동인구	3.0	2.7	3.6	2.8	3.2

## 제 2 절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는 취업자들에 한하여 질문하였으며, 취업자 공통영역과 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나뉜다. 취업자 공통영역은 소득임금에 대한 만족도,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등 7개 영역이다.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는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더하였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직업만족도의 평균점수를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비교해 본 결과 거의 점수의 변화가 없었으나 소득임금, 취업의 안정성, 개인의 발전 가능성, 근로환경,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0.1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취업자의 직업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 및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2.5점으로 낮다. 소득과 임금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4.0%의 취업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임금근로자에 한하여 질문한 인사고과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와 복지후생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9점과 2.7점으로 보통(3.0점)보다 조금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성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한 비중은 22.5%이며, 복지후생에 대한 비중은 38.6%로 복지후생에 대한 불만족 크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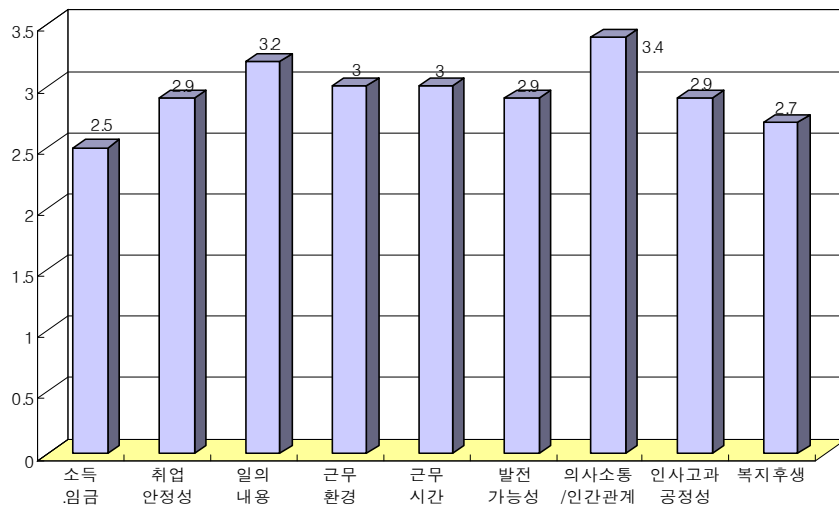
<표 12-5> 1~2차년도 직업만족도 비교

(단위 : 점)

	취업자 공통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소득 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근로 환경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 인간관계	복지후생 제도	근로시간
1차('98년)	2.4	2.8	3.2	2.8	2.9	2.9	3.4	2.7	2.8
2차('99년)	2.5	2.9	3.2	2.9	3.0	2.9	3.4	2.7	2.9

주 : 직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 <표 9-5>의 1~2차년도 직업만족도 비교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12-1] 취업자의 직업만족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생활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직업만족도가 전 영역에 걸쳐 가장 높으며, 특히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20대의 경우 3.0점인 데 비해 60대

<표 12-6> 취업자의 직업만족도

(단위 : 명, %)

		평균점수 (점)	전 체	매우만족 스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불만족 스럽다	모름/ 무응답
취 업 자 공 통	소득임금	2.5	6,102 (100.0)	20 (0.3)	697 (11.4)	2,083 (34.1)	2,635 (43.2)	660 (10.8)	7 (0.1)
	취업의 안정성	2.9	6,102 (100.0)	69 (1.1)	1,546 (25.3)	2,529 (41.5)	1,613 (26.4)	338 (5.5)	7 (0.1)
	하고 있는 일의 내용	3.2	6,102 (100.0)	94 (1.5)	2,105 (34.5)	2,774 (45.5)	993 (16.3)	128 (2.1)	8 (0.1)
	근무환경	3.0	6,102 (100.0)	66 (1.1)	1,737 (28.5)	2,858 (46.8)	1,276 (21.0)	158 (2.6)	7 (0.1)
	근무시간	3.0	6,102 (100.0)	56 (0.9)	1,702 (27.9)	2,609 (42.8)	1,535 (25.2)	193 (3.2)	7 (0.1)
	개인의 발전 가능성	2.9	6,102 (100.0)	62 (1.0)	1,269 (20.8)	2,819 (46.2)	1,685 (27.6)	255 (4.2)	12 (0.2)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4	6,102 (100.0)	202 (3.3)	2,638 (43.2)	2,740 (44.9)	449 (7.4)	65 (1.1)	8 (0.1)
임 금 근 로 자	인사고과의 공정성	2.9	3,901 (100.0)	29 (0.7)	628 (16.1)	2,309 (59.2)	716 (18.4)	160 (4.1)	59 (1.5)
	복지후생 정도	2.7	3,901 (100.0)	15 (0.4)	526 (13.5)	1,800 (46.1)	1,169 (30.0)	336 (8.6)	55 (1.4)

이상의 경우 2.7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 직업만족도에서 보면 대졸 이상자의 직업만족도는 모든 문항에서 취업자 전체의 평균점수보다 높다. 특히 취업의 안정성과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3점과 3.5점으로 무학인 경우 2.5점, 2.8점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특성별 구분집단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특히 임금 및 소득 만족도에서 임금근로자의 만족수준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높으며 다른 만족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를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특히 취업의 안정성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만족도 차이가 다른 문항에 비해 더 크다. 비임금근로자를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로 구분하면 고용주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취업자 전체 평균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는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사업체의 규모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표12-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만족도

(단위 : 점)

		소득 임금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 체		2.5	2.9	3.2	3.0	3.0	2.9	3.4
연령	15~19세	2.8	2.9	3.3	3.3	3.2	2.8	3.6
	20~24세	2.7	3.0	3.3	3.2	3.1	2.9	3.5
	25~29세	2.7	3.0	3.3	3.2	3.1	3.1	3.5
	30~39세	2.5	3.0	3.2	3.0	3.0	3.0	3.5
	40~49세	2.4	2.8	3.1	3.0	2.9	2.8	3.4
	50~59세	2.4	2.8	3.1	3.0	3.0	2.7	3.3
	60세 이상	2.3	2.7	3.0	2.9	2.9	2.7	3.3
교육 수준	무 학	2.3	2.5	2.8	2.8	2.8	2.5	3.2
	고졸 미만	2.3	2.7	3.0	2.9	2.8	2.6	3.3
	고 졸	2.5	2.9	3.2	3.0	3.0	2.9	3.4
	대졸 미만	2.6	2.8	3.3	3.2	3.2	2.9	3.5
	전문대졸	2.7	3.2	3.4	3.2	3.1	3.1	3.5
	대졸 이상	2.7	3.3	3.5	3.3	3.2	3.3	3.5

클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에서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높다. 특히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에서 정규직의 만족도는 2.8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만족도는 2.4점에 불과하다. 소속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임금근로자의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 사업체의 규모와 노조의 유무는 특히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업만족도

(단위 : 점)

		소득 임금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 환경	근무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 체		2.5	2.9	3.2	3.0	3.0	2.9	3.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6	2.9	3.2	3.1	3.0	2.9	3.4
	정규직임금	2.7	3.2	3.3	3.2	3.1	3.0	3.5
	비정규직임금	2.4	2.4	2.9	2.9	2.9	2.6	3.3
	비임금근로자	2.3	2.8	3.1	3.0	2.9	2.9	3.4
	고용주	2.5	3.0	3.4	3.2	3.0	3.2	3.6
	자영업자	2.2	2.7	3.0	2.9	2.9	2.8	3.3
	가족종사자	2.2	2.8	3.0	3.0	2.8	2.7	3.3

<표 12-9>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단위 : 점)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전 체		2.9	2.7
고용형태	정규직	3.0	2.8
	비정규직	2.7	2.4
사업체 규모	1~4인	2.8	2.4
	5~9인	2.9	2.5
	10~49인	2.9	2.6
	50인 이상	3.0	2.9
노조 유무	있 음	3.0	3.0
	없 음	2.9	2.6

### 제 3 절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에서는 취업자 중 현재 일자리에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취업자의 교육수준 적합도

전체 취업자의 현재 하는 일과 교육수준의 적합도가 맞다고 응답한 비중은 76.8%이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21.9%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수준 적합도를 보면 연령별로 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이 받은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학적 특성별로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받은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3% 내외로서 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대졸 미만의 경우 자신이 받은 교육수준에 비해 하는 일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

취업자의 교육수준 적합도를 살펴보면, 우선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8만원인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하는 일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05.8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는 일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82.9만원으로 나타나,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하는 일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교육수준이 맞거나 높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더 낮은 편이다. 산업별 분포에서 보면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업무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다.



<표 12-10>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수준 적합도

(단위:명, %)

		전 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모름/무응답	
전 체		6,102(100.0)	1,339(21.9)	4,684(76.8)	67(1.1)	12(0.2)	
성별	남 성	3,632(100.0)	826(22.8)	2,757(76.0)	43(1.2)	6(0.2)	
	여 성	2,470(100.0)	513(20.8)	1,927(78.0)	24(1.0)	6(0.2)	
연령	15 ~ 19세	119(100.0)	39(32.8)	76(63.9)	4(3.4)	-	
	20 ~ 24세	437(100.0)	128(29.3)	3.6(70.0)	3(0.7)	-	
	25 ~ 29세	684(100.0)	154(22.5)	521(76.2)	8(1.2)	1(0.2)	
	30 ~ 39세	1,803(100.0)	4.9(22.7)	1,371(76.0)	19(1.1)	4(0.2)	
	40 ~ 49세	1,652(100.0)	374(22.7)	1,255(76.0)	21(1.3)	2(0.1)	
	50 ~ 59세	943(100.0)	173(18.4)	758(80.4)	10(1.1)	2(0.2)	
	60세 이상	464(100.0)	62(13.4)	397(85.6)	2(0.4)	3(25.0)	
교육 수준	무 학	212(100.0)	19(9.0)	190(89.6)	1(0.5)	2(0.9)	
	고졸 미만	1,800(100.0)	318(17.7)	1,456(80.9)	23(1.3)	3(0.2)	
	고 졸	2,385(100.0)	606(25.4)	1,747(73.3)	28(1.2)	4(0.2)	
	대졸 미만	241(100.0)	88(36.5)	150(62.2)	3(1.2)	-	
	전문대졸	444(100.0)	98(22.1)	342(77.0)	4(0.9)	-	
	대졸 이상	1,020(100.0)	210(20.6)	799(78.3)	8(0.8)	3(0.3)	
혼인 상태	남성	미 혼	654(100.0)	188(28.8)	459(70.2)	7(1.1)	-
		기혼 유배우	2,893(100.0)	612(21.2)	2,242(77.5)	34(1.2)	5(0.2)
		기혼 무배우	85(100.0)	26(30.6)	56(65.9)	2(2.4)	1(1.2)
	여성	미 혼	552(100.0)	121(21.9)	422(76.5)	8(1.5)	1(0.2)
		기혼 유배우	1,652(100.0)	340(20.6)	1,294(78.3)	14(0.9)	4(0.2)
		기혼 무배우	266(100.0)	52(19.6)	211(79.3)	2(0.8)	1(0.4)

<표 12-11> 취업자의 개인소득·종사상 지위별 교육수준 적합도

(단위 : 명, %)

		전 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모름/무응답
전 체		6,102(100.0)	1,339(21.9)	4,684(76.8)	67(1.1)	12(0.2)
월평균 소득(만원)		100.8	82.9	105.9	105.8	66.7
개인 소득 <sup>1)</sup>	50만원 미만	692(100.0)	227(32.8)	456(65.9)	7(1.0)	2(0.3)
	50만 ~ 100만원 미만	1,908(100.0)	509(26.7)	1372(71.9)	25(1.3)	3(0.1)
	100만 ~ 150만원 미만	1,346(100.0)	272(20.2)	1059(78.7)	12(0.9)	3(0.2)
	150만 ~ 200만원 미만	663(100.0)	100(15.1)	556(83.9)	7(1.1)	-
	200만 ~ 250만원 미만	353(100.0)	38(10.8)	312(88.4)	2(0.6)	1(0.3)
	250만원 이상	299(100.0)	32(10.7)	261(87.3)	5(1.7)	1(0.3)
	소득 없음 <sup>2)</sup>	259(100.0)	48(18.5)	206(79.5)	5(1.9)	-
	가족종사자	520(100.0)	95(18.3)	419(80.6)	3(0.6)	3(0.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901(100.0)	945(24.2)	2,905(74.5)	46(1.2)	5(0.1)
	비임금근로자	2,201(100.0)	394(17.9)	1,779(80.8)	21(1.0)	7(0.3)

주 : 1) 소득 및 수입이 있는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범주형으로 구분한 것임.

2)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소득이 '0'인 응답자와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적자를 보고 있거나 수입이 '0'인 응답자를 의미함.

<표 12-12>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산업·직업별 교육수준 적합도

(단위 : 명, %)

		전 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모름/무응답
전 체		6,102(100.0)	1,339(21.9)	4,684(76.8)	67(1.1)	12(0.2)
사업체 규모	0인					
	1~4인	1,568(100.0)	290(18.5)	1,260(80.4)	14(0.9)	4(0.3)
	5~9인	986(100.0)	238(24.1)	736(74.7)	10(1.0)	2(0.2)
	10~49인	465(100.0)	118(25.4)	337(72.5)	9(1.9)	1(0.2)
	50인 이상	2,155(100.0)	438(20.3)	1,688(78.3)	27(1.3)	2(0.1)
산 업	농림어업	530(100.0)	76(14.3)	446(84.2)	4(0.8)	4(0.8)
	광공업	1,356(100.0)	278(20.5)	1,059(78.1)	19(1.4)	-
	건설업	500(100.0)	145(29.0)	346(69.2)	7(1.4)	2(0.4)
	공익설비업	380(100.0)	90(23.7)	288(75.8)	1(0.3)	1(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82(100.0)	408(25.8)	1,161(73.4)	10(0.6)	3(0.2)
	금융 및 부동산업	602(100.0)	109(18.1)	479(79.6)	14(2.3)	-
	공공서비스업	1,103(100.0)	216(19.6)	873(79.2)	12(1.1)	2(0.2)
직 업	전문관리직	1,213(100.0)	141(11.6)	1,055(87.0)	16(1.3)	1(0.1)
	사무직	619(100.0)	109(17.6)	498(80.5)	10(1.6)	2(0.3)
	서비스직	1,436(100.0)	371(25.8)	1,051(73.2)	12(0.8)	2(0.1)
	농림어업직	515(100.0)	75(14.6)	433(84.1)	3(0.6)	4(0.8)
	생산직	2,258(100.0)	626(27.7)	1,603(71.0)	26(1.2)	3(0.1)

## 2. 취업자의 기술수준 적합도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수준 적합도를 보면 전체 취업자들의 응답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기술수준에 맞다고 응답한 비중은 78.4%로 과반수를 훨씬 넘으며 수준이 낮다고 한 경우 20.3%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별 구분에서는 10대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기술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조금 높았다. 취업자 중 연령이 10대인 집단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금근로자이므로 이들 집단은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단순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이 60대 이상의 경우 자신의 일과 기술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기술수준 적합도를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하는 일과 자신의 기술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비중이 89.2%이고, 대졸 미만 취업자의 경우 자신의 기술수준과 하는 일의 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비중이 64.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기술수준 적합도도 앞의 교육수준 적합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개인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자신의 기술수준과 업무상의 기술수준이 맞다고 한 비중이 높다.

<표 12-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수준 적합도

(단위 : 명, %)

		전 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모름/무응답	
전 체		6,102(100.0)	1,238(20.3)	4,786(78.4)	63(1.0)	15(0.2)	
성별	남 성	3,632(100.0)	762(21.0)	2,822(77.7)	39(1.1)	9(0.3)	
	여 성	2,470(100.0)	476(19.3)	1,964(79.5)	24(1.0)	6(0.2)	
연령	15~19세	119(100.0)	40(33.6)	76(63.9)	3(2.5)	-	
	20~24세	437(100.0)	113(25.9)	319(73.0)	5(1.1)	-	
	25~29세	684(100.0)	146(21.4)	529(77.3)	7(1.0)	2(0.3)	
	30~39세	1,803(100.0)	365(20.2)	1,414(78.4)	18(1.0)	6(0.3)	
	40~49세	1,652(100.0)	356(21.6)	1,275(77.2)	18(1.1)	3(0.2)	
	50~59세	943(100.0)	160(17.0)	772(81.9)	10(1.1)	1(0.1)	
	60세 이상	464(100.0)	58(12.5)	401(86.4)	2(0.4)	3(0.7)	
교육 수준	무 학	212(100.0)	20(9.4)	189(89.2)	1(0.5)	2(0.9)	
	고졸 미만	1,800(100.0)	313(17.4)	1,463(81.3)	21(1.2)	3(0.2)	
	고 졸	2,385(100.0)	550(23.1)	1,805(75.7)	26(1.1)	4(0.2)	
	대졸 미만	241(100.0)	83(34.4)	156(64.7)	2(0.8)	-	
	전문대졸	444(100.0)	82(18.5)	355(80.0)	5(1.1)	2(0.5)	
	대졸 이상	1,020(100.0)	190(18.6)	818(80.2)	8(0.8)	4(0.4)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654(100.0)	177(27.1)	469(71.7)	8(1.2)	-
		기혼 유배우	2,893(100.0)	559(19.3)	2,297(79.4)	29(1.0)	8(0.3)
		기혼 무배우	85(100.0)	26(30.6)	56(65.9)	2(2.4)	1(1.2)
	여 성	미 혼	552(100.0)	109(19.8)	436(79.0)	6(1.1)	1(0.2)
		기혼 유배우	1,652(100.0)	9(19.3)	1,313(79.5)	16(1.0)	4(0.2)
		기혼 무배우	266(100.0)	48(18.1)	215(80.8)	2(0.8)	1(0.4)

<표12-14> 취업자의 개인소득, 종사상 지위별 기술수준 적합도

(단위 : 명, %)

		전 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모름/무응답
전 체		6,102(100.0)	1,238(20.3)	4,786(78.4)	63(1.0)	15(0.2)
월평균 소득(만원)		100.8	82.2	105.6	105.1	81.8
개인 소득 <sup>1)</sup>	50만원 미만	692(100.0)	223(32.2)	461(66.6)	6(0.9)	2(0.3)
	50만~100만원 미만	1,908(100.0)	471(24.7)	1,412(74.0)	24(1.3)	1(0.1)
	100만~150만원 미만	1,346(100.0)	249(18.5)	1,083(80.5)	9(0.7)	5(0.4)
	150만~200만원 미만	663(100.0)	86(13.0)	571(86.1)	5(0.8)	1(0.2)
	200만~250만원 미만	353(100.0)	36(10.2)	313(88.7)	3(0.9)	1(0.3)
	250만원 이상	299(100.0)	29(9.7)	264(88.3)	5(1.7)	1(0.3)
	소득 없음 <sup>2)</sup>	259(100.0)	42(16.2)	212(81.9)	4(1.5)	1(0.4)
	가족종사자	520(100.0)	88(16.9)	423(81.4)	6(1.2)	3(0.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901(100.0)	875(22.4)	2,978(76.3)	40(1.0)	8(0.2)
	비임금근로자	2,201(100.0)	363(16.5)	1,808(82.1)	23(1.0)	7(0.3)

주 : 1) 소득 및 수입이 있는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범주형으로 구분한 것임.

2)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소득이 '0'인 응답자와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적자를 보고 있거나 수입이 '0'인 응답자를 의미함.

<표 12-15> 취업자의 사업체규모, 산업, 직업별 기술수준 적합도

(단위 : 명, %)

		전 체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모름/무응답
전 체		6,102(100.0)	1,238(20.3)	4,786(78.4)	63(1.0)	15(0.2)
사업체 규모	0인	1,568(100.0)	269(17.2)	1,279(81.6)	16(1.0)	4(0.3)
	1~4인	986(100.0)	219(22.2)	754(76.5)	11(1.1)	2(0.2)
	5~9인	465(100.0)	112(24.1)	349(75.1)	3(0.7)	1(0.2)
	10~49인	912(100.0)	203(22.3)	693(76.0)	15(1.7)	1(0.1)
	50인 이상	1,243(100.0)	209(16.8)	1,020(82.1)	11(0.9)	3(0.2)
산 업	농림어업	530(100.0)	71(13.4)	452(85.3)	4(0.8)	3(0.6)
	광공업	1,356(100.0)	263(19.4)	1,079(79.6)	14(1.0)	-
	건설업	500(100.0)	123(24.6)	366(73.2)	9(1.8)	2(0.4)
	공익설비업	380(100.0)	80(21.1)	298(78.4)	1(0.3)	1(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82(100.0)	380(24.0)	1,188(75.1)	11(0.7)	3(0.2)
	금융 및 부동산업	602(100.0)	104(17.3)	487(80.9)	11(1.8)	-
	공공서비스업	1,103(100.0)	203(18.4)	881(79.9)	13(1.2)	6(0.5)
직업	전문관리직	1,213(100.0)	134(11.1)	1,062(87.6)	14(1.2)	3(0.3)
	사무직	619(100.0)	104(16.8)	507(81.9)	5(0.8)	3(0.5)
	서비스직	1,436(100.0)	338(23.5)	1,083(75.4)	13(0.9)	2(0.1)
	농림어업직	515(100.0)	70(13.6)	439(85.2)	3(0.6)	3(0.6)
	생산직	2,258(100.0)	577(25.6)	1,649(73.0)	28(1.2)	4(0.2)

## 제 4 절 사회계층 소속감

1999년 한국노동패널(2차)에서는 응답자의 가족이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소속감을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계층의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가족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은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하층으로 23.5%, 중상층 18.5%이며,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의식 비중은 불과 0.3%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계층 소속감을 볼 때, 성별에 따른 사회계층 소속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에 비해 30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연령층은 낮게 나타났으나 50대 이상의 경우 그 비중이 높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볼 때 무학이나 고졸 미만의 경우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중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특성별 사회계층 소속감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월

평균 소득은 63.8만원이고, 중하층은 99만원, 중상층 149.7만원, 상층의 경우 237.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했을 때 실업자의 경우 사회계층 소속감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16>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계층 소속감

(단위:명, %)

		전 체	하 층	중하층	중상층	상 층	모름/무응답
전 체		11,765(100.0)	2,770(23.5)	6,751(57.4)	2,182(18.5)	37(0.3)	25(0.2)
성별	남 성	5,670(100.0)	1,316(23.2)	3,298(58.2)	1,031(18.2)	15(0.3)	10(0.2)
	여 성	6,095(100.0)	1,454(23.9)	3,453(56.7)	1,151(18.9)	22(0.4)	15(0.3)
연령	30세 미만	3,590(100.0)	617(17.2)	2,203(61.4)	746(20.8)	12(0.3)	12(0.3)
	30대	2,613(100.0)	498(19.1)	1,616(61.8)	490(18.8)	5(0.2)	4(0.2)
	40대	2,272(100.0)	528(23.2)	1,287(56.7)	447(19.7)	8(0.4)	2(0.1)
	50대	1,539(100.0)	443(28.8)	837(54.4)	251(16.3)	4(0.3)	4(0.3)
	60세 이상	1,731(100.0)	680(39.3)	796(45.0)	244(14.1)	8(0.5)	3(0.2)
교육 수준	무 학	793(100.0)	404(50.1)	318(40.1)	66 (8.3)	1(0.1)	4(0.5)
	고졸 미만	4,050(100.0)	1,274(31.5)	2,190(54.1)	571(14.1)	5(0.1)	10(0.3)
	고 졸	3,876(100.0)	766(19.8)	2,467(63.7)	622(16.1)	13(0.3)	8(0.2)
	대졸 미만	967(100.0)	137(14.2)	588(60.1)	239(24.7)	2(0.2)	1(0.1)
	전문대졸	647(100.0)	71(11.0)	420(64.9)	152(23.5)	3(0.5)	1(0.2)
	대졸 이상	1,432(100.0)	118 (8.2)	768(53.6)	532(37.2)	13(0.9)	1(0.1)

<표 12-17> 개인소득 및 종사상 지위별 사회계층 소속감

(단위 : 명, %)

		전 체	하 층	중하층	중상층	상 층	모름/무응답
전 체		11,765(100.0)	2,770(23.5)	6,751(57.4)	2,182(18.5)	37(0.3)	25(0.2)
월평균 소득(만원)		100.8	63.8	99.0	149.7	237.5	96.9
개인 소득 <sup>1)</sup>	50만원 미만	692(100.0)	281(40.6)	345(49.9)	65 (9.4)	1(0.1)	-
	50만 ~ 100만원 미만	1,908(100.0)	552(28.9)	1,162(60.9)	186 (9.8)	3(0.2)	5(0.3)
	100만 ~ 150만원 미만	1,346(100.0)	212(15.8)	931(69.2)	201(14.9)	1(0.1)	1(0.1)
	150만 ~ 200만원 미만	663(100.0)	40 (6.0)	456(68.8)	164(24.7)	1(0.2)	2(0.3)
	200만 ~ 250만원 미만	353(100.0)	12 (3.4)	197(55.8)	143(40.5)	1(0.3)	-
	250만원 이상	299(100.0)	10 (3.3)	111(37.1)	170(56.9)	8(2.7)	-
	임금을 받지 않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	259(100.0)	89(34.4)	136(52.5)	32(12.4)	1(0.4)	1(0.4)
	가족종사자	520(100.0)	126(24.2)	303(58.3)	91(17.5)	-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901(100.0)	839(21.5)	2,392(61.3)	653(16.7)	10(0.3)	7(0.2)
	고용주	517(100.0)	57(11.0)	303(58.6)	153(29.6)	4(0.8)	-
	자영업자	1,164(100.0)	325(27.9)	676(58.1)	159(13.7)	2(0.2)	2(0.2)
	가족종사자	520(100.0)	126(24.2)	303(58.3)	91(17.5)	-	-
	실업자	520(100.0)	202(38.9)	271(52.1)	45 (8.7)	-	2(0.4)
	비경활인구	5,143(100.0)	1,221(23.7)	2,806(54.6)	1,081(21.0)	21(0.4)	14(0.3)

주 : 1) 개인소득이 무응답인 5,72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